朝鮮日報
夕刊
十日(火)
本紙朝夕刊十二面

日支共同調査를決定

【上海九日發同盟】 上海市長兪鴻鈞은 九日午後十時十五分 我總領事館에 岡本總領事를 訪問하고 雙方折衝한結果 모뉴멘트路事件을 解決키爲하야 日支共同調査를施行하기로決定하엿다

挑戰的行爲繼續하면 斷乎膺懲할方針決意

大山中尉射殺等上海의情勢險惡化로

海軍省聯合首腦部會議

【東京電話同盟】 海軍에서는 上海에서 發生한 大山中尉等射殺事件에 關하야 十日午前八時三十分 省部聯合首腦部會議를 約一時間半 省內大臣室에서 開會, 海軍省側으로부터 米內海相、山本次官、豊田軍務局長、軍令部側으로부터 島田次長、近藤第一、高橋第二各部長等이 出席하야 長谷川 第三艦隊司令長官이 보낸 公電及 各方面에서 到達한 情報를 中心으로 重要協議를 遂하고 其對策을 決定하엿다 現地情勢는 益益險惡하게 되여 事態의 進展은 容易하게 豫斷을 不許하며 더욱 目下上海에 居留하는 邦人은 上流地方에서 下江한 居留民을 合하면 三萬名을 突破하는바 그들의 生命財産保護와 警備의 萬全을 期할것을 前提로 嚴重且愼重한 態度를 堅持하야 支那側이 依然誠意를 表示치안코 陰險한 挑戰的行爲를 繼續할 時에는 斷乎이를 膺懲할 確固한 方針을 決意하게 되엿다

工部局을中心으로 事件現場實地檢證開始

日支雙方立會로再檢屍

支那側無誠意하게도檢屍書에署名을不應

【上海十日發同盟】 모뉴멘트路事件에 對한 正式實地檢證은 十日朝에 行하엿는데 工部局 殷總監補 總領事館으로부터 吉岡領事及福井書記生 海軍武官室로부터 田尻中佐 陸戰隊로부터 山內 松永兩參謀 支那側으로부터 淞滬警備司令部 保安隊兩責任者 市政府로부터 張秘書長 各代表者는 午前九時 總領事館에 參集하엿다가 現場에赴하야 工部局이 中心이되여 實地檢證을 開始하엿다

【上海十日發同盟】 支那側은 昨夜의 大山中尉、齋藤水兵兩名의 死體引受에 對하야 有馬軍醫少佐의 作成한 檢屍書에 對하야 言을 左右하야 署名에 應치안키때문에 十日午前十時 다시 市政府醫師의 來訪을 要하야 死體를 安置한 陸戰隊病院에서 正式으로 日支雙方立會로 檢屍를 行키로하엿다

事態重大化未免

支那側의態度不遜無誠意

現場에兵力集中準備

【上海十日發同盟】 虹橋事件이 發生하자 支那側은 自己의非를 掩蔽하고 奇怪하게도 現場附近의 設備配置를 強化하는一方 北停車場西南에잇는 共同租界와 支那街境界線에는 急遽土囊을構築하고 多數保安隊가 現場守備態勢를 取하야 手榴彈을 所持한 制服隊에게 全部退去를命하고 추럭과 뻐스를 集結하는等 極히 挑戰的不穩한 態度를 示하고잇다 市政府首腦部는 事件이 發生하엿슴에도 不拘하고 何等陳謝할 誠意를 示하지안코 그리고 現場에는 新聞通信記者及 寫眞班의 出入을 嚴重拒否하야 事件을 默殺하려하는바 모든것으로보아 그의 不遜不誠意는 容許키難한바잇다 我方에서는 元來事件不擴大를 希望하고 誠意로서 其解決에 當하려할에도不拘하고 이 支那側의 挑戰的不誠意는 何時에 如何한不測의 事態를 招來할지도 알수업는 現狀인데 事態는 마침내 重大化하게되엿다

【上海十日發同盟】 支那側에 事件을 더욱擴大식히려는 意圖가잇다고 推察되는點은 左의諸點이다

一、北停車場에 集結하고잇는 支[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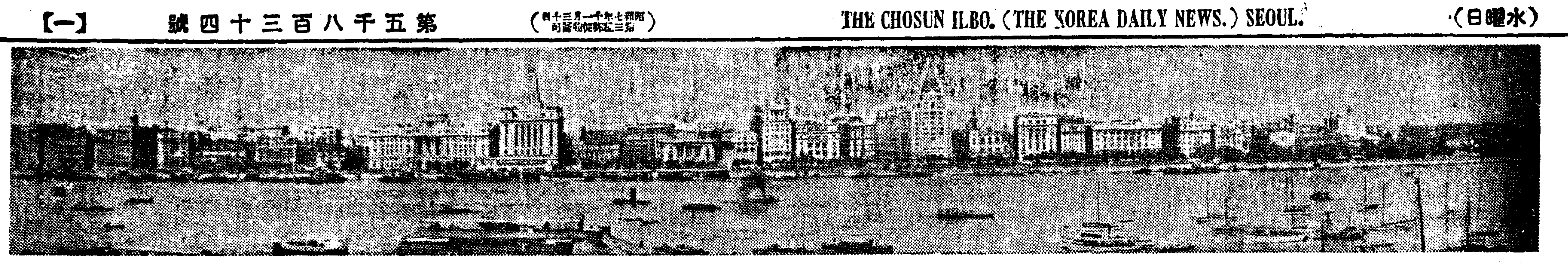
一、事件現場附近에는 土囊을構築하야 保安隊及 兵器를所持한 警察官으로하여금 [illegible]射擊케하고

一、트럭 뻐스를 集結하야 [illegible] 大軍隊를 兵力集中輸送에 備하는것

一、虹橋附近에 一個中隊의 正規兵이 駐屯하야 이들正規兵이 日本軍人을 射殺하엿다고 確言으로 宣傳하는것等이다

秩父宮兩殿下 瑞西에御歸還

【海牙九日發同盟】 秩父宮同妃兩殿下께서는 御豫定으로 目下海牙에서 御靜養中이신데 [illegible] 殿下께서는 [illegible] 良好하시고 妃殿下께서도 入日夜來平熱로 御回復하섯슴으로 十日에는 [illegible] 兩殿下께서는 十四日頃瑞西에 御歸還의 御豫定이신바 이미 御準備도 完了되섯다 [illegible]



(大上海의側面)

世界平和會議開催

米大統領이機會보아서提唱

【華盛頓九日發同盟】 國務長官 헐氏가 지난 七月十六日 中外에發表한 米國의 外交政策에 關한 一般的聲明에 對하야는 이미 世界四十餘國이 贊意를 表明하엿고 또 [illegible] 그리하야 루즈벨트大統領은 [illegible] 世界平和會議 [illegible] 이 有力하게되엿다 日本獨逸伊太利 [illegible] 아직 態度를 明確히 하지안코잇스나 廣田外相 히틀러總統、뭇솔리니首相은 일즉 平和會議開催에 原則的贊意를 表하엿는데 會議招集에 支那도 加來하는것은 업스리라고 觀測되다 勿論 會議의 開催時期는 아즉全然豫測을 不許하나 現在 倫敦에서行하는 戰債及 通商問題에 關한 米英側의 非公式交涉을 近近 레이드·못스氏의 渡米를 機會로 [illegible] 戰債不拂國에 對한 [illegible] 을禁하는 [illegible] 法案을 廢止하고 [illegible] 하여서는 大規模의 國際金融復活을 促하야서 世界平和會議召集의 準備工作을 行하게되리라고 觀測된다

獨、米外交政策에贊意

【伯林九日發同盟】 獨逸政府는 米國이 外交政策을 闡明한 七月十六日의 헐國務長官의 聲明에 對하야 今日까지 沈默을 직히고잇든니 九日非公式으로 헐長官의 聲明에 對한 原則的贊意를 表明하야 左와如히 言明하엿다

獨逸政府의 根本方針은 平和的手段에 依하야 國際關係의 調整을 目的하는것으로 헐國務長官의 見解와 完全一致되는줄로 信한다

海軍省副官談發表

大山中尉射擊事件에對하야

【東京電話同盟】 海軍에서는 大山中尉射擊事件에 關하야 十日午前十一時 副官談의形式으로 左와如히 發表하엿다

海軍省副官談

一、其後의報告에依하면 大山中尉는 西部派遣隊長으로 上海西部에잇는 邦人의 警備 紡績會社其他租界 在留邦人의 護衛任務를帶하고 九日午後五時頃 正規軍裝으로 齋藤水兵이 操縱하는 陸戰隊自動車에 搭乘하고 水月倶樂部(內外棉倶樂部)를出發하야 附近地區를視察한後 陸戰隊本部에 連絡次로 向하는途中 午後六時頃(엑스璧金路渡)인 碑坊路上에서 不法한支那側保安隊의 包圍射擊을 受한것인데 我方으로서에는 事件의性質에鑑하야 嚴重且愼重한 態度를取하야 即時支那側에 實地檢證을 [illegible]을左右로하야 [illegible] 하고 겨우死體引取에 同意한데不過하고 今夜(十日)에겨우 [illegible] 同意하는狀態로 事態의 進展은 容易히 豫斷을不許한다

長江流域에亘한 直接警備의大任을完了

海軍、本來의使命에邁進

【東京電話同盟】 海軍에서는今次 北支事變勃發以來 政府의 事件不擴大方針에 基하야 事變의推移를 靜觀하고 支那沿岸은勿論長江沿岸所在의 我海軍은極히愼重한 態度로서 在留邦人의 保護 帝國의國際權益擁護에 遺漏업기를期하여왓스나 支那의 排日的行爲는날마다 激烈또危險케되고잇서 이대로 두어서는 長江沿岸特히 그上流에잇는 邦人의 生命에도 憂慮될 事態가 나타나게되엿슴으로 드디여그撤退를 決行키로되엿다 即八月一日重慶、宜昌沙市의 邦人은 警備艦護衛下에 同地發漢口經由上海에 下江、同五日 長沙在留邦人도 警備艦護衛下에 南京에 撤退하고 同六日 南京居留民의 撤退를 開始하고 翌七日午後五時 各各鳳陽丸、信陽丸에 全員이乘船하야 警備艦 三隻으로 護衛하고 上海에 向하야 下航 八日九江、蕪湖、大冶、南京、鎭江居留民도上海에 向하야 撤退하엿다 그間重慶에서 上海에 至하는一千數百哩에 亘하야 約二千八百名의 居留民을 護衛하는 我艦隊는 或時는 江岸의砲臺에서 大砲의 標的이되고 或은夜間屢次 探照燈의 照射를 受하엿는데 海軍第一의 使命인 居留民保護의 重責은 이로써 無事完了되엿다 이리하야 帝國海軍은 今日까지 自重에自重을 거듭하고 居留民保護撤退를 第一義로 하여 왓는바 上海를 除한長江流域一帶에 亘한 直接警備의 大任은爲先完了하엿다 그러나 支那側이 居留民撤退後 權益을 侵害하든지 또는 上海에잇는 我居留民의 安全을 脅威함과如한일이잇스면 斷然한 態度로서海軍本來의 使命에 向하야 邁進키로되엿다

高宗武亞洲司長 川越大使와會談

國府外交部命令으로官邸訪問

【上海九日發同盟】 國民政府亞洲司長高宗武는 國民政府外交部의 命令으로 九日朝南京으로부터來滬하야 午後六時我川越大使를官邸에 訪問하고 會見一時間半辭去하엿다

南總督과大野總監

小磯軍司令官과深澤中將招待

時艱克服에對하야懇談

南總督은 渡東中의 大野政務總監도 歸任하엿슴으로 時局에 鑑하야 다시 軍官民一致를强化코저 十日午後六時半부터 小磯軍司令官및 深澤中將을 總督官邸로 招待하야 總督、總監、軍司令官、深澤中將의 四人만으로 여러가지懇談을 遂行하고 時艱克服에關하야 半島統治의隔意업는 意見交換을 行키로되엿다

日本人各路聯合會 緊急會議開催

【上海十日發同盟】 日本人各路聯合會는 昨九日大山事件發生으로 가장惡化하게된 上海抗日風潮에 鑑하야 十日午後四時半부터 日本人倶樂部에서 各委員參集하야 緊急會議를 開催하고 在留民保護에 關하야 意見을 交換하기로되엿다

中國側、事件을 蔣介石에게報告

【上海十一日發同盟】 虹橋事件이 勃發하자 上海市政府警察當局及 淞滬警備司令楊虎는 即時部下警察隊 保安隊及 保衛團에 嚴重警戒를命하는 同時에 蔣介石에게 事件을 急報하고 또電話로써 刻刻情報를國民政府軍政部當局에報告하야 非常한緊張을示하고잇다

繁華한上海街道

不安激化로行人稀少

【上海十日發同盟】 連日不安과恐怖狀態에 바진支那街及 租界居住의 支那人은 事件發生報道에 往來人이 만흔 午後九時頃부터큰 거리에잇는 商店들은 大門을내리우고 行人의 往來는 全혀杜絶하여 一般은不安한빗치 濃厚하다 北四川路一帶의 繁華街도 死의거리로化하야 悽慘한 沈默속에잠겻다

陸戰隊本部의 現地調査結果

【上海十日發同盟】 陸戰隊本部에서 調査한結果

一、大山中尉는 同日外出에當하야 피스톨을 携帶하지안코 피스톨은 本部內의 同中尉所持品中에서 發見되엿다 其他武器도 가지지안엇다

一、實地檢證에 依해서도 明白한바와가티 運轉手台의 齋藤一等水兵은 後頭部에 貫通銃創을받고 即死하엿슴으로應戰할도업섯슬것이다

라는等의 事實이 判明되엿다 日本軍의射擊으로 支那兵一名이射殺되엿다는것은 全然支那側이 故意로事實을歪曲하는것이 明瞭하다

犧牲된兩氏略歷

【東京電話同盟】 上海에 暴戾한支那保安隊에게 不法射擊을 밧고 마침내悲壯한 死를遂한 大山海軍中尉는 福岡縣出身本年二十六歲、昭和七年十一月少尉候補生 同九年三月 少尉任官 同十年十一月 中尉에昇進 上海特別陸戰隊附兼第三艦隊司令部附로되엿는데 前途가囑望되는靑年將校이다 그리고行方不明된 齋藤一等水兵은 今年二十四歲 福井縣出身이다

兩氏의遺骸

陸戰隊病院에安置

【上海十日發同盟】 大山中尉、齋藤一等水兵의遺骸는 約十二時間 放置된後 十日午前五時四十五分 現場으로부터 陸戰隊病院에到着하야 病院一室에安置되엿다

新크레디트設定

佛支間成立調印

【巴里九日發同盟】 國民政府財政部長孔祥熙는 五日巴里에 到着한以來 佛國政府當局과 밋巴里銀行團에 對하야 對支經濟援助를懇請하고 連日折衝을 繼續하엿든데 九日午後에 이르러 마침내佛國銀行團과의 間에特別크레디트設定契約에 調印한 旨를發表하엿다 新크레디트契約은『支那의在外資金充實을 援助하기爲함』이라하엿슬뿐으로 金額及融資銀行의 名稱等具體的內容은 一切發表치안엇다 UP通信巴里支局의 探知한바에依하면 크레디트總額은 四億法으로 右金額은 國民政府의 在外資金으로巴里에預金하고 必要에應하야 取崩하리라고 觀測된다 孔財政部長은 右契約調印을 完了하고九日巴里를出發하야 伯林에向하엿다

海軍首腦會合

事變經過說明

【東京電話同盟】 海軍에서는 九日午後二時半부터 海相官邸에 大角 末次 高橋 藤田四軍事參議官의 參集을求하야 本省側으로부터 米內海相 山本次官 豐田軍務局長 軍令部側으로부터 嶋田次長 近藤第一部長等出席하야 北支事變그後 經過에對하야 說明하엿다

上海特別市에 戒嚴令布告

大山事件發生後

【上海十日發同盟】 淞滬警備司令部는 事件以來 支那街一帶에 戒嚴令을 施行하엿거니와 九日모뉴멘트路事件發生後 特別市에 戒嚴令을 布하야 支那街一帶는 夜十一時以後 一般通行을 禁止하는旨를 今朝에 通告하엿다

人事·集會

◆富田直亮氏(朝鮮軍參謀總督府御用掛) 新任人事次來社

獨通信記者에 英政府退去命令

【倫敦九日發同盟】 英國內務省은 七日로칼·안치이가紙特派員크로메氏外레데氏그라프·라이히스·산하通信社特派員린컨氏의三獨逸通信記者의 滯英許可證再下付를 拒絕하고 二週間以內에 英國을退去하라고말하엿다 英國駐在獨逸代理大使게르만氏는 九日午前英國外務省을 訪問하고 右에對하야 抗議를提出하엿는바 抗議內容은 穩健한것으로뵈인다

事變後二週餘에 北平은全혀安定

【北平九日發同盟】 不安과 焦慮의 二週間의 籠城으로부터 解放된 二千餘名의 內鮮人은九日朝 모두喜喜樂樂하게 길거운 我家에 各其도라가 가장日本人이 만흔東單牌樓等地에는 日本婦人의 日用品을 사러나오는者도보이며 겨우平常의 北平으로도라가다 事變以來 二十九軍撤退後 北平城內는 保安隊의손으로 治安이 維持되여 잇더니 保安隊만으로는 어쩌지 依賴할수업다고 생각하든 支那人들도 八日 日本軍隊의 堂堂한 入城과 規律이바른 行動을보고 大端히 信賴하는念을 가져 以後北平城內에는 아모것도 아니 이러나지안흘것이란 安全感을늣겨 하야 事變後 二週間餘로서 겨우平靜한 北平으로 도라가다

八面鋒

◇日步二十錢 二十五錢의 高利貸金이 盛行한다고。

◇點心한그릇에 二十錢은주고 먹는다면 百圓의利子를 먹는세음。

◇金融의梗塞으로 一時的現狀이라할지라도 月六七分의 利子는無法한것。

◇警務當局이 徹底한團束을하리라하니 多少緩和될것은 豫想할수잇스나。

◇要컨대 事實本이아니면 안될일, 먼저 金融梗塞을 緩和함이어떨가。

◇投機資金을막기爲하야 一般商去來까지 困難하게되다는것은 實로重大問題。

酷暑가極度에達하야
身體는고단하고허느정거린다
胃腸을튼튼히·
해서食事가잘되면
더위도아무러치안코元氣가난다

여름안타고酷暑도아무러치안타

大阪·北原夏子

胃腸이튼튼케되여元氣가充滿

東京·靑木顯正

每年苦生하는夏瘦가도로혀살쩌

福岡·松田文夫

더위도아무러치안는强健體가된다

東京·並木三郎

食事가늘고아주健康케일한다

三重·小泉京子

貴重한高山藥草 合釀仙酒貴

鹽澤家三百年의 家傳秘法으로山놉고물맑은 信州伊那谷에서 天然自然의風土氣候中에 昔時부터 珍重히여긴 幾多의貴重高山藥草가 合釀된特產物로芳香美味는 萬人의口味에맛고 身體上有効하다는것은 幾萬의愛飲家의 好評이眞實함을말하고잇다

小瓶進呈

貴重한深山仙酒로서芳香美味하야 먹기조흔것을紹介하기爲하야 養命酒試飲用小瓶一本會無代로送呈하오니 東京澁谷區上通四丁目九番地養命酒本舖出張所로 葉書를보내주시요 또有名藥店에는 養命酒實驗者의 感謝狀付寫眞帖이備置되엿스니 參考해보시요

信州伊那谷의特產

鹽澤家三百年家傳

養命酒

携帶用 一圓五十錢 大瓶 參圓 德用 四圓

●全國有名藥店百貨店에잇슴 東京出張所로直接注文은 送料本舖負擔代金引換은 送料實費를要합니다

僞造品이잇슴 專賣特許鹽澤家養命酒란文字에 特히注意하시고사십시요

信州上伊那郡南向村大草 釀造發賣元 養命酒本舖天龍館

東京市澁谷區上通四丁目 番地 養命酒本舖出張所 電話靑山五三九八番 振替東京六八八五五番

滋養强壯劑로서
◆神經衰弱인분
◆不眠·숨갑븐분
◆胃腸衰弱한분
◆强腦强精의目的
◆呼吸器羸弱한분
◆疲勞倦怠한분
◆貧血寒冷한분
◆根氣薄弱한분
◆虛弱體質인분
◆産前産後의婦人
◆精氣回復期等等

이제가면 언제오리 매암 매암 매암!

中部以北에霖雨

大體로氣流는不安定하다!

아프로큰비는업슬듯

찌는듯한더위가 한때 계속하더니 수일래로는 비가 련일게속하며 아주 장마날세를 보이고잇다 십일 오전륙시 현재의 기상개황에 대하야 경성측후소의 말을들으면

저기압(低氣壓)은 지나양자강(揚子江)중류와 북만(北滿)에잇서 모두동으로 이동중이고 조선도 기압이 나즌데 대체로 기류가 불안정하야 전조선적으로 날이흐렷다 비가왓다 혹은 개엿다 하고잇다 비는 중부이북으로 서조선북조선에도 오고잇고 남조선은 호리기만하나 이곳저곳 비오는곳도 잇슬모양인데 중부이북의비는 아직이상얼간을 이대로게속하야장마날세를 지속할터이나 그리큰비는 올것갓지안타는것이다 압록강(鴨綠江)연안에도 비가오나 그리큰비는 업슬모양이라고한다

대체이와가튼 상태에잇서 이미 압록강연안평북지방은 심각한수해를입엇스나 이비때문에 다른지방은 그리홍수를 볼정도에는 밋치지안흘뜻하다고하며압으로이 비만개이면 날세도 청신서늘하여질터이라한다

大館市에豪雨再襲

【龜城支局特電】 지난이일에 쏘다진 호우로 산이허무러저서 그 삼분의 이가량이 매몰된 삭주 대관(朔州大館)시가는 십일오전 아홉시부터 폭우가또다시엄습하야압 강물이 이메돌이나 불어서 남어지 시가에잇는 우편소기관청에 두자이상식 침수하야 전화통을 떼여가지고 산으로 올려가는등 대소동을 이르켯다 이대로 한시간만 더게속하면 대관시는 글자그대로 전멸될위경이다 전신도 겨우귀성까지통할뿐으로 다른곳과는 전부두절되엿다

伊川에豪雨

【伊川支局特電】 구일오후일곱시경부터 강원도이천지방에 큰비가와서 십일오전열시까지 일백삼십사『미리』의 우량이엇다각지의 하천은 범람되여 이천과 평강(平康)사이의 정기자동차이외는 전부교통이 끈허젓다 호우는 아직도 게속하고잇다 (十日午後一時)

釜山、奉天間 直通二列車休轉

철도국에서는 부산(釜山)서 봉천(奉天)으로가는 제일천사열차와 제일천신열차는 지난십일부터당분간 정주(定州)안동(安東)사이의 운전을 쉬고 정주로부터 되도라오게하기로되엿다는뜻을십일에전조선각역장에게통첩하엿다

安奉線開通

수해로 말미암아 불통중이든 안봉선(安奉線)은 십일 오전한시사십분에 개통되엿다한다 그리하야 오후열시오십분에 봉천(奉天)서 떠나 부산(釜山)으로가는 제일천일백 팔렬차는 모두직통하엿다한다

各地降雨量

구일저녁때부터 십일오전 여섯시까지의 각지우량(降雨量)은 다음과갓다(單位粍)

新義州一一▲平壤一▲仁川一九▲京城五〇▲全州二〇▲濟州六▲中江鎭九▲城津一七▲元山三〇▲大邱二▲釜山二九

鐵嶺安全農村 水害危險僅免

지난칠일이래 만주(滿洲)일대의 폭우로 하야 철령안전농촌(鐵嶺安全農村)약백호와 농장약 오백사십정보가 탁낭에 싸혀서 일시는위험을전하야오든바 구일부터 점차감수되기시작하야 큰위험을면할모양이다 그피해상황은방금조사중이다

平北水害救濟金 各方面에서漸次集合

평북수해리재민구제로 아래와가튼 구제금이모여엇다

▲一百圓也 李熙迪 ▲三十圓也 愛國婦人會新義州分會 ▲五十圓也 世界館기머

疑問符남기고 下女가自殺

부내수은동(受恩洞)[illegible]번지 전평양부윤 대도량사(大島良士)씨댁의 하녀김순(金孝順)(三)이는 십일오전렵시반쯤에 술이취하야가지고 남대문통(南大門通)경성구락부(京城俱樂部)에 차저와서 장가쥬여가겟다고 함으로 그곳김리인이 전부터낫흘향하고잇든처지라 이층에서 자게하엿는바 오전세시쯤에 금순이가 자고잇는방에서 이상한신음소리가틀리므로 방문을열어보앗드니 금순이가 쥐잡는약을먹고 고민하고잇슴으로 곳 본정서원에게 알려서『세브란스』병원에 입원식히고 온갓수당을 가하엿스나 오전일곱시쯤에 드디어절명하고 말엇다한다 본정서에서는 지금 그녀자의 자살원인을 조사중이라고한다

十一日은末伏

더위도압흐로는退散

십일일은 음력으로 칠월초엿새로 말복(末伏)이다 이로써 더위철은 다 지나가고 엽헤 처서(處暑)하나만 남엇다 삼십사도까지 뛰어올르든 한난계도 하강선(下降線)을 그리여 팔일은 최고기온이 이십구도칠밧게안되엿다 당분간 로양(老陽)이라하야 오후에는 따끈따끈한 해볏치 내려쪼일것이나 이것도 얼마동안으로 더위는 한거름 물러간셈이다 논밧헤는 오곡이 열매를맷기시작하야 일는벼는 벌서 누럿케 익어가고 늣벼도 상이삭이 한이삭 두이삭씩 나와서 참으로 도향(稻香)이 무르녹을때도 눈압헤 닥처왓다

交民巷에收容한 在留同胞無事

一時는傳染病騷動도잇섯스나

북지에 파견한 실전사무관(實田事務官)의 보고에 의하면 지난칠월십일일 북지 로구교(蘆溝橋)의 일지충돌사건이 발발한이래 북평(北平) 천진(天津)을중심으로 험악하야 북평일대재류피난동포 일천삼백십명을 북평교민항(交民巷)에 수용중이든바 일전에 〇〇부대가 입성하야 치안을 유지하고잇는외에 지나중견인물로서 치안유지회가 조직되어서 안전을 기하게되엇스므로 전기피난동포 일천삼백십명을 전부 해방하야 각각 그본거로 도라가게하얏다 그리고 피난동포중에는 전염병이 발생하야 일시소동을 이르켯스나 외무성(外務省)과 협력하야 방역에 전력을다한결과 큰일업시 종식되엿다 또북평재류동포들은 참극을 어르킨 통주(通州)잔존동포들의구호하기 위하야 위문반을 조직하야가지고 십일오전 북평을떠나 통주로향하얏다

電車傷人

구일오전여섯시오십분쯤 부내공덕정(孔德町)일백칠십칠번지 압헤서 부내창신정(昌信町)삼백 삼십번지 량금룡(梁金龍)(三)이가 전차 일백이십삼호를운전하고 서대문을 향하야질주하여 오다가 공덕정이백구십오호 철공소직공 김상천(金相千)(三)과 충돌하게되여 전신에 전치삼주일의부상을밧게 하엿스며 현재적십자병원에 입원치료중이다

溺死少女의 身元判明

기보=팔일밤 부내한강 신사아래에나타난 십사세가량의소녀의익사체는 구일오후두시에 그신원이판명되엿다 그는 원적을 충남서산군 음암면 탑곡리(塔谷里)에두고 부내흑석정(黑石町)일백팔십삼번지 김선호(金善鎬)방에서 고용녀로 잇든 고간난(高干蘭)(一四)이엿스며 항상 도벽(盜癖)이 잇스므로주인으로부터 본가로 쪼처보낸다고 꾸지람을하자 먹을수업는본가에가기를 실혀하는 그는 필경 자살을 도모하고팔일오후아홉시반쯤 집을나갓는데 그때곳 흑석정 일백오번지압 한강연안으로가서 투신자살한것이 판명되엿다

살수업서放火하고 監獄行을哀願!

病身되어살길막힌卜箕碩에 檢事는七年役을求刑

사바에서 살길이업서 형무소살림을하고저 남의집에 불을노앗다는 가련한생활의 패부자— 충남청양(靑陽)출신으로 주소가 일정치안흔 복기석(卜基碩)(三)은 예에 방화피고사건공판은 십일경성지방법원에서 산하(山下)재판장주심 대국(大國)검사관여 미테열리엿다 피고는 지난이월에 경기도포천군영중면량산(抱川郡永中面梁山)에서 광부노릇을하다가 화약이폭발되는바람에 예와상을당하야 실직한후 서울인천(仁川)등지로 다니면서 직업을구하기에 애썻스나 마음대로 직업을구할수업고 생활은점점궁박되여가매 그는차라리 형무소에나 들어갈계획으로 남의집에 불을놀계획을하고 지난유월십칠일오전네시쯤에 부내금정(錦町)이백삼십팔번지 서군팽(徐君彭)의집에와 십팔일에는부내안암정(安岩町)일백이십구번지 신권우(申權雨)의집에 각각 불을노아 얼마큼식 타게한것인데 재판의 취조에 대하야 그는 차라리 사바에서 먹을것이업서 굴머 죽는것보다는 형무소에라도 가서 밥걱정이나 안하고 사는것이낫겟다 생각되야 불을놀결심을하엿다하야 생활난에 쪼들리는사

京城、議政府間 臨時汽動車運轉

近郊旅客의不便을緩和 十日부터二往復開始

경성철도사무소에서는 림시변경운전시간으로 말미암은 렬차운전회수감소로 근교려객의 불편을 될수잇는대로 완화시키기 위하야 교통이빈번한 경성 의정부(議政府)사이에 십일부터당분간 림시려객렬차(기동차)이 왕복을 운전하기로되엿다

▲오전아홉시사십오분 룡산역발 오전열시삼십팔분 의정부착 ▲오후한시십팔분 경성역발오후두시이십분 의정부착 ▲오전열시사십오분 의정부발오전열한시삼십오분 룡산착 ▲오후두시삼십분 의정부발 오후세시이십분 룡산착

天氣豫報

概況 弱한 低氣壓은 新京北方과 揚子江下流에 잇스며 高氣壓은 本邦東海上으로부터 西日本을 거처서 朝鮮에로進出하야 雨時節特有의 氣壓配置가 되여잇다 滿洲와 新京附近은雨 其他도흐리고 朝鮮은南鮮地方 其他는 비가오고잇다 日本內地는 大槪개여잇스나 九州에는 處處에小雨가잇다 그리고 東北地方以北은 흐려저잇다

豫報 京城地方의 今夜과明日은 날이 흐리고 때때로소낙비가 올모양이다 京畿道全區도以上과갓다

昨日最高 三一度六 同最低 二三度三 今朝最低 二三度七 今日正午 二七度七

運動界人事·集會

▲崔龍德君 (全日本아마추어拳鬪라이트級의覇者·明大)九日入京 人事次來社

國防獻金遝至

軍援聯盟取扱額 二萬圓을遂突破

基督矯風會應召軍人家庭慰問

경성군사후원연맹에서는 사업개시이래 아직 며칠되지 못하엿는데 구일까지에 기금이이미 이만이천원에 달하엿다한다 그리고 위문금모집소회주머니를 각정총대의 손을 거처서집집마다 배포하기로 되엿는데경성기독청년회에서는 회원이천명의 회비일개월분내지 이개월분에 상당한 금액을 모아내는 외에 십일일부터 십오일까지 매일오후네시로부터 오후아홉시까지사이에 본정어구에서 돈을 모으기로되엿다한다 기독교 부인교풍회(矯風會)경성지부에서는 부내 응소군인의 가족을 일일히 차저다니면서 위문하며 격려하고잇다한다

東署取扱의 國防獻金

십일동대문서에 들어온국방헌금

▲五百圓 天一藥房主人 趙寅燮氏 ▲二百二十六圓六十五錢 同店員一同 ▲十圓 苑南町二四三 [illegible]요氏

金益泳氏千圓

부내삼각정(三角町)일백십팔번지 지주김익영(金益泳)씨는 구일본정서에 국방헌금 천원을 가저왓다

裝蹄自動車 飯泉氏獻納 貯銀五千圓獻納

부내본정일정목 반천홍청(飯泉弘淸)씨는 도사천원을 드려서 소형장제자동차(小型裝蹄自動車)한대를 조선군사령부에 바치엇다

◇조선저축은행에서도 돈오천원을 십일에 국방비로헌납하엿다

飮食店業者外 十四名이獻金

십일오전열시쯤 룡산서보안계에 부내한강통(漢江通)음식점업자조치민(趙治民)외열네명이 국방비삼십사원을 모아서 헌납하엿다

朝鮮印刷社長이 千五百圓獻金

시내 봉래정(蓬萊町)삼정목팔십이번지 조선인쇄주식회사 (朝鮮印刷株式會社)사장소삼근팔(小杉謹八)씨는 십일시내서대문서를 거처 현금일천오백원을 국방비로헌금하엿다

小鹿島癩患者 分錢모아獻金

전라남도 무안군 소록도(全羅南道務安郡小鹿島) 갱생원(更生園)에서 세상을등지고잇는 그들자각환자(自覺患者)들은 라병과싸우면서 이백구십칠원사십전을 생활비에서 한푼두푼식모아서 국방헌금으로 구일총독부에보내엇다고한다

負傷한金少佐 本社에人事電報

戰死傷한部下將兵의遺族에 同情을禁할수업다고

조선인장교로 평진전선(平津戰線)에서 분전하야 만흔공을세운 김석원(金錫源)소좌는 지난 칠월이십칠일의 격전에 명예의부상을당하고 방금 천진에서입원치료중인데 십일본사에 다음과가튼 전보를 보내어왓다

『소관은 출정한이래 원기왕성하다 반도이천만동포를 대표하야 축원함을 다해가며 황국을위하고 반도민중을 위하야 마음것 분전하고잇스니 안심하야주기 바란다. 지난이십칠, 팔량일간 격전의 참호에 돌입할때 바른 편발목을 부상당하야 지난오일에 북평에 입원하얏다 그리 큰 상처는아니기때문에 전치까지에는 사십일 가량걸릴모양이다. 안심하기바란다. 다만 우리부하장병 일백이십일명이 명예의 전사, 상을당하야 그유족에 대하야 참으로동정을 금할수업다. 〇〇군병원에서』

(사진은 김석원소좌)

女給에홀린 시골靑年

三千圓의돈橫領

함남단천군단천면송동리(端川郡端川面松洞里)에 사는 류성범(柳成範)의 족하라는 류와룡(柳臥龍)(二)이는 그전에 서울로구경왓다가 시내종로카페락원회관(樂園會館)의 녀급에 홀려서고

流言蜚語犯送局者

부내청엽정(靑葉町)이정목칠십일번지사는 전남출생인 모용달사(用達社)사원 최대식(崔大植)(二)은 얼마전에 류언비어를전파한 혐의로 룡산헌병분대에붓잡혀서 취조를 밧고잇든중십일오전에 드디여 경성검사국으로넘어갓다 그는그의 친구에게놀러가서 북지사변에 관련하야엉터리업는 말을지어전파한것이탄로되엿기때문에붓잡힌것이라한다

時局懇談會開催

【席上에서交換된重要話題】

북지사변발발이래 조선동포의 국민적지원과 동포적협력의 태도가 현저하야 감격할바이 잇는데 이를 계기로하야 보담완전한 내선일체를 목표로 조선동포의 국민적의식의 앙양을 기도하고 관민의 완전한 일치협력에 의하야 조선동포가 시국에 참가협력할 기회와 분위기를 양성하려고 지난칠일 오후에 시내 명월관에서 시내유지의 시국간담회를 개최한바석상에서 교환된 중요한 화제는 다음과갓다한다

一、당국의 시국에 대처하는재정방침을 적극적으로 지지할것

二、내선일원의 원칙에립각하야 완전한 내선민중의 일치협력을 촉진할것

三、만약 조선동포로 지원병제도와가튼 병역제도가 시행될경우에는 속히 이에응할수잇도록 그에필요한준비적 훈련과 정신을 촉진할것

四、파견장병에게 조선동포의마음으로부터 울어나는 위문대를 보낼것

五、이러한 사항을 실행하는데필요한 여론을 환기하는데노력할것

六、본시국간담회는 사변이완전한 종결을고하기까지 존속할 것과 동시에 또잇는 유지의참가를 종용할것

七、필요잇슬때마다 집합하는것은물론 매월한번씩 대회를개최할것

이상의론이끗나서 열시반에폐회하엿는데 이날중요한출석자는다음과갓다

大朝京城支局長鈴木正文 大每京城支局記者玄命健 徐旗驎盟 女永燮 同森田芳夫 大東民友會李覺鍾 同朱鍊 同車載貞 李承元等

伊太利敷設艦 十九日仁川入港

우리령(日伊)협정에 의하야 지중해를방문하야 일이(日伊)량국해군의친선교환이잇슨이때 이태리국동양함대부설함 『레팡토』호는 함장 『바토리오·바시가르피』중좌=국동수석지휘관=좌승하야 오는십구일대련으로부터 인천에 입항하야 이십사일까지 정박하는동안 승조원는 경인량도를 방문할예정이라한다 총독부에서도 환영의준비를하고잇다

大邱에大盜 全朝鮮에犯人手配

경북대구남산정(南山町)이백사십팔번지 허걸(許杰)(三)씨집에지난칠일밤 열한시로부터 팔일오전다섯시동안에 어떤도적이 월장침입하야 안방에서 현금일천팔백구십원과 사백여원의 예금통장두종과 인장을 훔처가고말엇는데 방금경북경찰부에서는 전조선각지에 수배하야 범인을엄탐중이다 …향에서 돈을뫼어가지고 서울로오려고 애를쓰고잇던중 [illegible] 에서 그의삼촌명의로 [illegible] 도주하여 버렷는데 방금전기 금돈을 가지고 서울로작정한 혐의가 잇다고하야 경기도 경찰부에의뢰하야 그행방을수사하는중이다

磯貝範士等 武專生來京

大日本武德會武道專門學校四年生三十五名(劍道十五名 柔道二十名)은 範士 磯貝 小川兩九段引率下에 朝滿旅行의途에 오를터이라는바 九月二十二日에入京하야 京城에三日間滯在하면서 在京選士들과練習을行할터이라한다

名古屋의日米水上

米國水上競技團 招聘戰은七日午後六時부터 名古屋振甫풀에서 擧行하엿는데 米國選手는 連日의轉戰으로 疲勞한 氣色이 떠돌고잇섯다

▲二百米=中村(日大)二分一六秒一 ▲女子二百米=後藤(淑德女)三分二四秒二 ▲四百米=메데이카(米)五分一〇秒六 ▲女子百米=로ー르스(米)一分一秒四 ▲二百米平泳=히긴스(米)二分五一秒二 ▲百米=伊藤(愛水)一分四秒一 ▲百米背泳=키ー파(米)一分八秒五 ▲女子百米背泳=로ー르스(米)一分二七秒 ▲二百米背泳=키ー파(米)二分三八秒 ▲八百米=메데이카(米)一〇分四三秒二 ▲女子四百米繼泳=相山女學園五分一五秒五 ▲三百米混繼泳=아메리카팀(키파、히긴스、메데이카)三分三七秒

빅타ー레코ー드

최상의吹込陣과 最良의技術이融合된

春香傳全篇

全十八枚 美麗解說書二冊付 金拾圓

又今第一回 即時配付中

名唱 丁貞烈·李花中仙·朴綠珠·林芳蔚·金素姬諸氏力唱의 春香傳決定盤!

朝報案內

集金 係募集廿五才迄希望者ハ履歷書携帶本人來談アレ但シ保證金三百圓及ビ市內確實ナル保證人二名ヲ要ス面會時間午後一時ヨリ三時マテ 京城本町二丁目 株式會社 村木時計店京城出張所

掛時計日賦販賣 掛時計日賦販賣員二十五歲ヨリ四十五歲迄方採用ス、保證金三百圓及ビ保證人二人要ス履歷書携帶本人來談アレ、面談時間午後一時ヨリ三時迄 京城本町 株式會社 村木時計店 電話本局四七一

日本勸業證券株式會社京城支店

本店東京 日本勸業銀行構內

九月一日初回くじ 新債券 賣値十圓十七錢

證券擔保簡易貸付

貸出(十一回より十七回まで) 割引債券九圓半 四分利附勸業十圓券十圓

◎今の値段ならば買つて安心

回別	仲値	回別	仲値	回別	仲値
割 一〜十七	[illegible]	勸	[illegible]	復 一〜十	[illegible]

▲印來月抽籤當籤番號表一部二錢一個年三十錢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二十八番地 振替京城二一九七・電話本局四〇五四

登錄商標 거북선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業社 電光二一五九

▲連日超滿員▼ 謝恩延期十日까지

上演!再上演!延期!又延期로 愛劇家의 絶對賞讚下에目下上演中인『사랑에속고돈에울고』를觀客諸位의激勵와 懇囑으로 또하로(一日)를 延期하야 今十日밤까지上演하고 明十一日낫부터는 오래約束하여온『靑春日記』를 斷然上演하게되엿사옵기紙上으로 謝告하나니다

注意 十日밤까지『사랑에속고돈에울고』 十一日낫부터『靑春日記』 上演

東洋劇場 謹白

在來式朝鮮本燒酎白松、松來、松鶴、松筍 高麗人蔘酒等有名燒酒

釀造元 開城釀造株式會社

京城一手發賣元 京城東大門市場內

各種食料品卸商 三益商會

電光二八四五 電略(サン)又ハ(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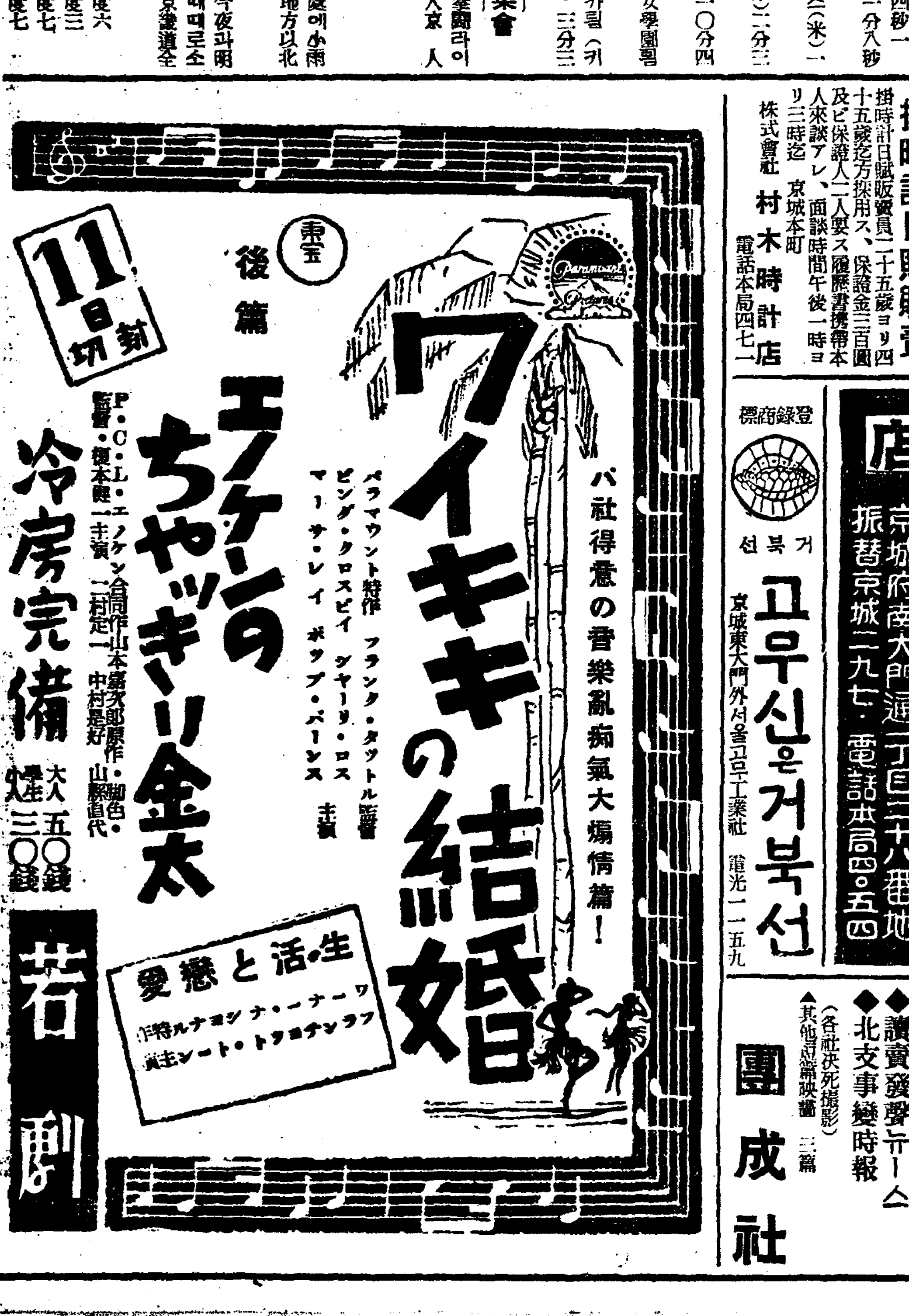
認可

電醫養成全國無試驗開業 醫師同樣聖業

全鮮唯一認可(失業絶無成功必至)

朝鮮高等電醫專門學院

學則送呈 釜山府榮町一丁目三三



劇團中央舞臺第四週告別 八月十一日부터 興行

夜間 ▲朴英鎬問題의野心作 戀愛問題 全三幕 許多人의戀愛問題를凌蔑하고새로운問題를내걸은名作果然어떤問題가提議되려는가? ▲殷鶴山 作 웃의造化 全一幕

晝間 十錢뉴ー스劇場 自午前十一時至午後五時 四回續映

◆朝日新聞世界뉴ー스 ◆東日大每國際뉴ー스 ◆讀賣發聲뉴ー스 ◆北支事變時報 (各社決死撮影) ◆其他短篇映畫 三篇

團成社

漫畫뉴ー스

桃花劇場 電(龍)一三三三番

◇八月十一日부터三日間! 每日晝夜二回公開 (낫一時…밤七時半始映)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待望의二大傑作朝鮮映畫!)

◇京城撮影所超特作映畫 朝鮮語全發聲 春香傳 監督…李銘牛 出演…韓一松 文藝峰 金蓮實

◇京城撮影所超特作品 朝鮮語全發聲 洪吉童 監督…李銘牛 出演…朴齊行 李鍾哲 李慶善 羅雄

全鮮第一封切 黃金座

9日ヨリ5日間

北支事變ニユース	2·00	6·40	
新版 花大人	2·10	6·50	
現代劇 美人賞	11·30	3·20	8·00
時代劇 浮名三味線	12·40	4·30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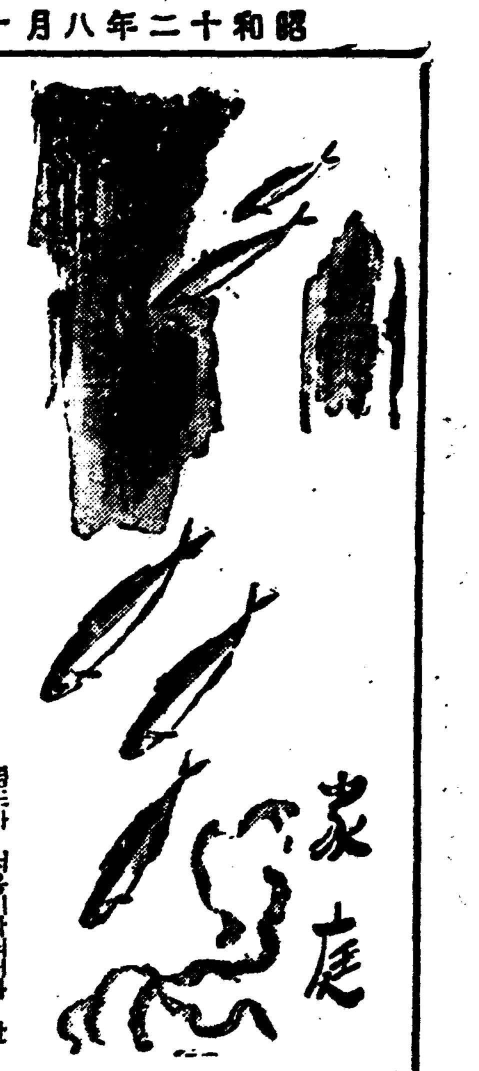
(第一線) 各席全部大人學生30錢 小學生20錢

八日ヨリ十一日マデ四日間 階下十錢均一

鐵拳熱血紳士 赤心城 木やり唄一番纏

每日晝夜三回興行 第一回 一、 第二回 三、 第三回 七、

中央館



병이 잇는 증거로 현깃증생겨
우습게내버려둘수업는증세 / 무슨병에 껴생길까

현기스증이란 어떠한 병의 한증세니까 무슨 병이든지 잇서 가지고야 밥븟이 생기는것입니다。 가끔가끔 그러타가는 도로곳 아무럿치도안타고해서 심상히녀기어버리다가는 그야말로 위험한결과를 맷게될것입니다。 그런데 현기를 이르키는 병은 굉장히 만습니다。 그만흔병을 이로다 들수는업는일이요 오즉그중에서 중요한 몃가지만을 엿쭙기로하겟습니다。

급성(急性)이거나 만성(慢性)이거나 귀스병에는일체로 현기가나기 쉽고또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으로뇌동맥(腦動脈)이 경화된경우에도현기가나기 쉽습니다。 대뇌(大腦)나 소뇌(小腦)에 무슨병이 생기면 현기가나는데특히소뇌에종상(腫瘍)이생기면현기가 자조자조 나게됩니다。

머리를맘시 어더맛거나부드첫슬때 매독간이 뇌를범햇슬때 뇌빈혈이나 뇌충혈(腦充血)이 될때 등등 그이 외에도 심장병、코스병、신경쇠약、히스테리、당뇨병(糖尿病)또는 알콜、커피、담배、차등의 중독으로도、그뿐이 아니라 안악네들은월경불순에도 현기가 나고 임신중에도 현기가 나고또경도가 처음시작되거나 단경이 될 때도 현기가 잣습니다。 임신중에는 변비가되면 밥븟이 현기가 난다고 합니다

물론 병이 아니고서 입시 현기만 나는 때도만습니다。 위선 월경을 처음시작할때와 단경기에 나는현기도 그러커니와 배나 기차에서 멀미를 할 때라든지 노픈 산에 올라 갓슬때라든지 그런때 나는 현기도 보통들 현기를 데단치 알고그대로 지내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큰 탈입니다。 위선 뇌일혈이 되기전 현기가 나는데 그 때쯤만 서둘럿면 못 고칠것이 아니요 뇌스속에 종양때문으로도 현기가 나는데 그것도 곳서둘러서 치료를해야 될것입니다。 현기는 만흔 경우에잇서 병이 온다는 노픈을 놋는것이니까 그 노픈을 듯고도 가만이 잇다는 것은 우수운 소리입니다。

안악네들에게 적당한운동
"줄넘끼"하면조흔체격이돼 / 몸뚱뚱한분은곳시작해볼일

안악네들도 운동을 해야됩니다는거야 누가모릅니까만서도 실상알만한 운동이 맛당한것이업습니다。 정구(庭球)가튼것도 설비가잇서야되고 또뎨로은마당이 잇서야되고 동무가잇서야되니까 어디그러케 손쉽게할것이 못됩니다。

그러면 안악네들이 누구가 얼피할수잇는 운동은 업습니까? 요사이 문부성(文部省)에서도 장려(奬勵)하고잇는운동으로 줄넘기와 둥그럼쇠던지기가 해롭지 안할것가터보입니다。

줄넘기。 이것은 권투나 류력녕을 배우는 사람들도 보조삼아하는 운동인데 더구나 뚱뚱한 안악네가 살을 나리게하기위해서는 다시업시 조흔 운동입니다。 줄은 혼자하는 짤은줄과 둘이상이 하는 긴줄이잇고 또 넘는방법으로는 두다리로 넘기、한다리로 넘기 다리가달을 벌렷다 옴으렷다 하면서 넘기등이 잇습니다。 옷자락을 펄럭펄럭어리며 깡충깡충 뛰어넘는것이 숭업다고 하실지 모르지만은 운동을 하실바에야 숭업고안 숭업고를 차즐것이 업습니다 그러고 조석뒤 애기네들읍다리고 나서서 가족단란하게줄넘기를하시는것은 비단 운동만 될뿐이 아니라 가정평화에도유조합니다。

둥그럼쇠던지기。 말뚝을박아노코 그말뚝을 견양하야 둥그렁쇠를 던지어서 집어 넛는 것입니다。 말뚝과 둥그렁쇠는 물론 사와야 됩니다。

처음에는 가까이서 던지다가 나종에는 차차 멀리서던지기로 합니다。 혼자서도 할수잇고 여럿이서 내기도 할수잇습니다。 물론 줄넘기보담은 간단치 안하나 그보담재미도 잇고 또 점잔흔 맛이잇습니다。 가족끼리는 물론이요 친한손님대접에도 팬찬습니다。

소년군의「캠핑」

오하이오주 에리호수까에경치 조키로 유명한 로레인시에는 소년군마찬가지로 소년군이 잇는데 금년여름에는 호수까에다가 캠프촌을 이루고 삼복더위를 지내기로 계획하얏습니다。 계획은 하얏스나 자금이 문제인데 그러타고 부모에게 가서 응석을부리어 엇기는 너어나 소년군의체면이 상한다고 소년군의마크를 너허가지고 과자를맨들어 팔기로 되얏답니다。

우리차지

버러지

고추짱아는 공중에서
분열식하는 군용 비행
기다。
풍뎅이는 철갑을 입혓
다。 공중에 나를수도
잇는 장갑차다。
물매미는 잠항정、물속
을 마구다니는 쇠로맨
든배다。 매미는 나무
에 다러노은 라디오。

(글과그림 주영섭)

001591

長篇小說 찔레꼿 【97】

金末峰 作
金熊超 畫

영혼의시장(八)

정순은 경구의 이상한 광채가 번득이는눈과 마주치자 그는강렬한 광선에나 부디친듯이 눈을흘려버렷다。

『안선생님!』

나즈막이 그러나 저력잇는소리로 정순을불른 경구는 고개를 돌려 복도쪽을 한번바라보고는

『안선생님! 이런말을 갑자기드르신다면 어떠케 생각하실지 몰으겟습니다만 저는 이저녁에 사업을위하여 일생을 바치겟느냐 그보다도 내가사모하는이를 위해서 사업을 단념해야 올흘까 하는것을 작정하지안흐면 안되게되엿습니다』

『네ー 그러세요?』

전부터 약간 경구의 기분가운데 다소의 의심을가지고잇든정순은 오늘저녁 경구의 입에서 어떤 커ー다란 선언이 굴러나오고 말것가튼 두려운 예감에 그의가슴은 격랑(激浪)처럼 뛰기시작하엿다。

경구는 부들부들떨리는 손으로또한번 머리털을 쓸어넹기며

『안선생님! 저는이이상더 저자신을 학대할수는 업습니다 백열된 불덩어리를 안고하로하로를 지내가는 저는 너무도 괴롭습니다……안선생님 당신은 목숨을내노코 사모하는 저의사랑을 바더주시렵니까?』

『………』

한참동안 무섭게긴장된 침묵이 흘러갓다。

『정순씨! 대답해주시시요 저는 당신을사랑합니다』

하고 경구는 달려드러 정순의 한편손을 힘껏붓잡엇다。

『웨 그런말슴을 하서요?』

하고 중얼거리는 정순의음성은 떨렷다。

나이는비록 자기보다 만치마는 정순은 경구를 대할때마다 선량한 동생가티 순실하고 친절한 청년이라는 늣낌을 가젓슬뿐 단한번이라도 사랑의대상으로 생각하얏을은 업는것이다。

그러한 경구에게 사랑의고백을 듯는 정순은 당황하여 적당히 대답할말이 생각나지 안는것이다。

그러나 삼년전 민수가 자기에게 사랑을 속삭이든장면이 눈아페나타나자 그의 철업시두근거리는 가슴은 찬물을끼언진 불뗌이처럼 잔잔하게되엿다。

다만 인생의 패잔자(敗殘者)만이 맛보는설음이 누런연기처럼 정순의 눈가흘에 눈물을 자아내는것이다。

정순은 슬퍼젓다。 이미한남자에게 진심을바처버린 자신의 싸늘해진 가슴이 서글퍼젓다。

웬일인지 두어방울눈물이 정순의 옷것에 떠러젓다。

『정순씨!』

경구는 정순에게로 가까이드러서고 그리고 두팔로 정순의어깨를 가만히어루만지며、

『사랑은 슬픕니다 그러나 슬픔은 강한기쁨보다 얼마나 더아름다운것을 나는 짐작합니다』

경구는 정순의 아프로 고개를 돌려 그의이마에 입술을대이려는순간、

『경구씨!』

하고 부르지즌 정순은 별로 놀라지도안코 천천히 얼굴을비키면서、

『당신의 도라오기를 기다리고 오늘까지 당신의아름다운 부인이 되려고 결심하고잇는 그 처녀를 이저버리시렵니까?』

정순은 싸ー늘한 눈으로 그러나 슬픔이 가득찬눈으로 경구를치어다보앗다。

『당신의 신부될날을 손꼽아기다리고잇는 윤희씨를 버리려하십니까? 당신은 그러케잔인한 남성이던가요네?』

경구는 잠자코 고개를 좌우로흔들엇다。

『그것은 아버지의 생각입니다 그때문에 아버지께서는 내가 윤희씨와 결혼하지안흐면 내가 사업을위하야 청구한돈십만원을 내노치안켓다는거야요 그러나 정순씨! 나는 당신업시는 사업을해나갈수업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내인생의반려(伴侶)가되여 주지안흐면내게는 오직 암흑이 잇슬뿐입니다 정순씨』

하고 경구는 번쩍두팔로 또한번 정순의어깨를 안으라는순간 문이방싯 열리엇다。

『어여 올라오서요 손님들이 기다리시는데』

나즈막하게 소군거리는 경애의 목소리가 문밧게서 들려왓다。

『그럼 저먼저 이층으로 가니까요 정순씨도 올라오서요 네?』

하고 경구는 정순을 도라보며 복도로나왓다。

우두머니 혼자서잇든 정순은 경구가 자기방에잇고 그리고 경구가 팔을벌려 자기를안으려든 찰나에 경애가 문을열고…… 이일이 내일쯤 아니이밤안으로 민수에게 방송되지안흐리라고 누가 단언할수 잇슬것인가 하고 생각하자 정순은 어데다 호소할수업시 억울한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민수의 그보기조흔 코잔등을 냅다쳐주든한 쾌감이 중추신경을 찌르고지나가는것을 부인할수업섯다。

경애가 다시내려오고 차를더 만들어야 되겟다는 주문대로정순은 행주치마를걸치고 주방으로갓다。

정순은 차쟁반을안고 경애는 과일바구니를끼고 두번재 이층으로 올라갓슬때다。

언제왓는지 테ー블을둘러 안저잇는 손님들가운데는 얼굴비치 약간 창백하여진 영환이가 석겨잇섯다。

이층을 중심으로 젊은이들의 아름다운 포부와꿈이 찬란한비단처럼 무늬를그리고잇는데 아래층조씨서재에는 주인조만호씨가 침모박씨를향하여 빙그레우스며

『이건 마나님 용돈으로 바더두시요』

하고 십원자리 다섯장을꺼내 침모의 아페 내밀엇다。 그러나침모는 무엇때문인지 도로도로조두줘아프로 밀어노흐며

『영감마님 정말 머리아픈문제가하나 생겨낫는뎁시요』

하고 갑자기 목소리를나초앗다

『웨무어이?』

『저ー안선생님 말슴이야요 저ーー암만해도 저ー참 제가 이런말슴을드리면 어떠케 생각하실지 몰릅지요만서도 저 암만해도……!』

침모는 무슨중대한 비밀을 보고하려는지 그의서론(序論)은장황하고 그리고 약간 신음에가까운듯 떨리기조차하엿다。

(イ) 實用時計 機械瑞西産 구로ー무側

(イの一番)(五十個限り) 丸十半型七石入アンクル十年保證書付 當社定價十圓の品を 大特賣中 三圓八十錢に投賣す
(イの二番)(五十個限り) 新變型十型支七石入十年保證付 當社定價十三圓の品を 大特賣中 四圓五十錢に投賣す
(イの三番)(五十個限り) 新變型十型七石入十年間保證書付 當社定價十五圓の品を 大特賣中 五圓八十錢に投賣す
(イの四番)(三十個限り) 新變型九型半十石アンクル十五年保證 當社定價十八圓の品を 大特賣中 六圓五十錢に投賣す
(イの五番)(三十個限り) 新變型九型半十石アンクル十五年保證 當社定價二十圓の品を 大特賣中 六圓八十錢に投賣す
(イの六) 五型婦人用(廿個限) 白寶石裝飾付側十五石十五年保證 當社定價四十五圓の品 大特賣中、十五圓 に投賣す
(イの七番)(三十個限り) 切子變型八型十五石アンクル十五年保證 當社定價廿五圓の品を 大特賣中 八圓五十錢に投賣す
(イの八番)(二十個限り)婦人用 最小變型彫刻付六型十五石入アンクル二十年保證 當社定價四十圓の品 大特賣中 十二圓 に投賣す
(イの九)(二十個限り) 最優秀モリス 九型十五石アンクル四十年保證 當社定價四十三圓を 大特賣中 十三圓 に投賣す
(イの十)(三十個限り) 最優秀機械九型半十石アンクル廿五年保證書付 當社定價廿七圓の品 大特賣中 七圓九十錢 に投賣す
(イの十一)(三十個限り) 夜光時計 十型十石アンクル廿五年保證書付 當社定價廿九圓の品 大特賣中 八圓七十錢 に投賣す
(イの十二)(三十個限り) 夜光時計丸變型九型半十五石入アンクル三十年保證 當社定價三十五圓を 大特賣中 九圓五十錢に投賣す

(ロ) 高級時計 (金側은造幣局保證檢定刻印의付品이다) 金側 機械瑞西産 八型婦人用

(ロの一)(三十個限り) 丸型十五寶石入アンクル十五年保證付 (金質保證)當社定價三十五圓の品 大特賣中 十三圓 に投賣す
(ロの二)(三十個限り) 丸型十五寶石入アンクル十五年保證付 (金質保證)當社定價三十五圓の品 大特賣中 十三圓 に投賣す
(ロの三)(三十個限り) 切子變型十五寶石入アンクル十五年保證 (金質保證)當社定價四十五圓の品 大特賣中 十五圓 に投賣す

(ハ) 高級時計 機械瑞西産 側國産 푸라치나側

(ハの一)(三十個限り) 新變型十五寶石入アンクル二十年保證付 九型半 當社定價三十五圓の品を 大特賣中 九圓 に投賣す
(ハの二)(三十個限り) 新三味型十五石入アンクル廿年保證付 入型 當社定價四十圓の品を 大特賣中 十四圓 に投賣す
(ハの三)(三十個限り) 八型新長角型十五石入アンクル廿年保證 當社定價四十五圓の品を 大特賣中 十六圓 に投賣す
(ハの四)(三十個限り) 九八型婦人用十五寶石入アンクル二十年保證書付 當社定價四十圓の品を 大特賣中 十四圓に投賣す
(メの二) 目覺時計 當社定價二圓の品を 九十錢 に投賣す

切取線 朝鮮日報愛讀者優待
東洋時計 一枚一人에限하야 讀者大割引券 此券을切取하야片紙와同封해서申込하시면代金引換으로發送합니다 東京 株式東洋時計會社

左의堅牢正確無比한時計流質處分確時奉仕로서向後十日間內로申込한분께限하야左의廉價로投賣합 書信中에上欄에印刷된大割引券을切取封入하야申込하시면곳代金引換으로發送합 十日內라도賣切일時는容恕하십시요

(ニ) 寶石入金指輪 金質은造幣局保證檢定刻印付의品이다

(ニの一)卅個限 赤ルビー入金指輪 當社定價六圓の品 二圓五十錢に投賣す
(ニの二)卅個限 赤ルビー入金指輪 當社定價八圓の品 二圓八十錢に投賣
(ニの三)廿個限 青サフヤ入金指輪 當社定價十圓の品 三圓五十錢に投賣
(ニの四)廿個限 淡紫色 ペートマス入 金指輪當社定價 十二圓の品を 四圓七十錢に投賣
(ニの五)廿個限 眞珠入 金指輪 當社定價廿圓の品 五圓五十錢に投賣
(ニの六)廿個限 黑寶石ヘマタイト 金指輪 當社定價 十八圓の品を 五圓三十錢に投賣
(ニの七)廿個限 眞珠大石に廻り小粒白サフヤ數入 金指輪、當社定價 二十五圓の品を 七圓五十錢に投賣
(ニの八)十個限 ダイヤ入 金指輪 當社定價五十圓の品 十八圓に投賣す

(ホ) 寶石入 푸라치나指輪

(ホの一)十個限 眞珠入プラチナ 指輪 當社定價 四十五圓 の品を 十五圓 に投賣す
(ホの二)十個限 黑石ヘマタイト入 プラチナ指輪當社 定價五十圓の品を 十八圓 に投賣す
(ホの三)十個限 ダイヤ入プラチナ 指輪 當社定價 九十圓 の品を 三十九圓に投賣す
(ホの四)十個限 ダイヤ入プラチナ 指輪 當社定價 七十五圓の品を 二十九圓に投賣す

指의寸法
실이나노끈으로손구락의周圍를재어서片紙속에너허보내주십시요

(ヘ) 誕生石入金指輪 金質造幣局檢定保證刻印付の品

一月에난분은아리기산다二月에난분은바이오렛도라는것와가치左의生月에該當한寶石入金指輪을恒常쓰시다면모든幸運이차저온다고古來로傳하고잇습니다

【一月生の人は】(への一)赤紫 アレキサンダ入金指輪當社定價十七圓の品 五圓五十錢投賣
【二月生の人は】(への二)青紫 バイオレット入 金指輪 當社定價 十八圓 の品を 五圓七十錢に投賣
【三月生の人は】(への三)青色 ブリユースヒル 金指輪當社定價 十六圓の品を 五圓四十錢に投賣
【四月生の人は】(への四)水色 ホワイトジルコン 金指輪 當社定價 十九圓 の品を 五圓八十錢に投賣
【五月生の人は】(への五)淡綠 エメラジン入 金指輪當社定價 十五圓の品を 五圓三十錢投賣
【六月生の人は】(への六) 眞珠二ツ入金指輪 當社定價二十五圓 を八圓八十錢に投賣
【七月生の人は】(への七)赤色 ルビー入金指輪 當社定價十四圓を 五圓十錢に投賣す
【八月生の人は】(への八)淡綠 エリナイト入 金指輪 當社定價 十三圓の品を 四圓七十錢に投賣
【九月生の人は】(への九)青色 サフヤ入金指輪 當社定價二十圓 を六圓五十錢に
【十月生の人は】(への十) オパール 金指輪 當社定價三十圓を 十圓 に投賣す
【十一月生の人】(への十一)黄色 ゴールデン入 金指輪當社定價 二十一圓の品を 六圓に投賣す
【十二月生の人】(への十二)淡青 ジルコン入金指輪當社定價 二十一圓の品を 六圓二十錢投賣

(ト) 各國高級懷中時計

(トの一) クローム側十六型懷中時計瑞西製 七寶石アンクル十五年保證書付 當社定價十五圓の品を 大特賣中 五圓三十錢に投賣す
(トの二) クローム側 十六型懷中時計瑞西 最高級タバンシーマ 七石入アンクル鍍方針付 當社定價三十五圓を 十圓 に投賣す
(トの三) クローム側 十二サイズ懷中時計米國 最高級 ウオルサム 七石入アンクル廿年保證付 當社定價 四十圓の品 十三圓 に投賣す
(トの四) クローム側 十二サイズ懷中時計 米國 最高級 ウオルサム 七石入アンクル卅年保證付 當社定價四十九圓の品 十七圓 に投賣す
(トの五) 十二サイズ ウオルサム 十五石入 五十年保證 クローム側 當社定價 六十圓の品を 二十三圓投賣 金側當社定價百三十圓を 六十五圓に投賣
(トの六) クローム側 腕卷 (三十個限り) ウオルサム⅝型七石入卅年保證付 當社定價四十五圓の品を 大特賣中 十六圓 に投賣す
(トの七) クローム側 腕卷 (三十個限り) ウオルサム⅝型十五石 五十年保證書付 當社定價六十圓の品を 大特賣中 二十二圓 に投賣す

(チ) 振動不感時計 クローム側 精工舍特製

이時計는特殊한케ー스裝置를해서던저도떠러드려도깨지지안는일은업습니다激烈한運動家自轉車用勤務에가장適한時計입니다

(チの一)(五十個限り) 丸九型七石入アンクル廿年保證書付 振動不感 當社定價 二十圓 の品 大特賣中 八圓五十錢 に投賣す
(チの二)(五十個限り) 新變型十型七石アンクル廿年保證書付 振動不感 當社定價二十二圓の品 大特賣中 九圓八十錢 に投賣す
(チの三)(五十個限り) 新變型十型七石アンクル廿年保證書付 振動不感 當社定價廿五圓の品 大特賣中 十 圓 に投賣す
(チの四)(五十個限り) 新變型十型七石アンクル廿年保證書付 振動不感 當社定價廿五圓の品 大特賣中 十圓五十錢 に投賣す

一般的價騰貴하는此時特히時計、指輪、金、푸라치나等은압흐로더暴騰이豫想됩니다。 이러한때右記한것만을大特賣를敢行하야平素의愛顧에報答하려고합니다片紙로申込하시면곳代金引換으로申込順대로公平히發送합니다藥書로申込하실분은大割引券을藥書뒤에풀로부처보내주십시요

代金引換이란=片紙나藥書로註文品을申込하시면本社부터곳註文品을貴地에보냄니다貴地의郵便所에서貴下에게着荷通知를보내면代金을同封해서註文品을受取하는方法입니다
注意、振替=本社로註文하실때는前金을보내실必要는업지요마는만약形便上보내실적에는振替로하시요
債券類를代金의代로=所用업는勸業債券을代金代로充當하시려는분은日本勸業證券을當社의時價보다一分高로受取합니다債券을보내실時는書留로하십시요

東京市杉並區荻窪一丁目大通
東洋時計會社

電話荻窪四一三番
電話荻窪四〇〇四番
電話荻窪四八〇三番
電話荻窪四九二三番
振替東京一九一六一番
取引銀行第百銀行
取引銀行住友銀行

靑年期新興의全貌

一面高原一面平野 人秀物給의樂土!

赴戰高原의絕景과城川流域의沃壤 美哉라新興의山河

新興郡은設置된지 겨우二十四年이되고 地勢가險峻한 高地帶를타고안젓기때문에 文化的으로나 經濟的으로나 先進他郡에比하야 遜色이잇슬것은 勿論이다 그러나古來로 關北에이름놉흔 人物이 만히이땅에서 輩出하엿나니 文으로朴淸 鄭時元 蔡定相宋纘商가튼 碩學文豪와 武로柳應秀鄭海溥朴中立李忠傑朴吉男가튼武人勇士이 그아니엇든가 雄壯한千佛山幽奇한觀音坊은名區로北道에冠絕하거니와 近代科學이만들고 열어노흔 赴戰高原의崇高한山岳、廣大한湖水 幽邃한密林 珍奇한高山動植物 五千尺絕嶺의鋼索線等風景은참으로이땅의자랑일뿐아니라 朝鮮의자랑인世界的名勝地이다 產業으로말하면五穀도適宜하야 그收穫率이 他郡에讓步치아니하거니와 特히高地東上面은 燕麥의豐產地로 年產燕麥三百五十萬貫 澱粉三千石을 超過하는것이며 鑛業도興旺하야 所謂咸興炭의長豐炭鑛、千佛山、下元川의金銀鑛、東上面의砂金鑛等은 그年產額이 百餘萬圓에達하는것이며 特히朝窒會社의 四個發電所가잇서 十九萬八千키로와트의 電力을發電하고잇다 敎育은매우普及되여 普通學校外에 坊坊曲曲마다 無產敎育機關이 設置되여 文盲은著著退治하고잇다 그리고 이땅精氣를타고난人士는 모다이땅의 文化向上과이땅의 產業發展을 爲하야 活躍하는重要人物이다 이러한內容을가진 내고장을 자랑하여도 그다지부끄럽지는 아닐듯십허서 이에紹介版을 發行하는것이다

沿革

本郡은 大正三年三月府郡廢合할때에 咸興郡의八面、端津郡의一面을 洪原郡의二面、(?)의一面을 떼여다가 設한것인데 當同年四月面廢合의結果東古川、元平、加平、西古川、永高、東上、上元川、下元川의八面 百三十二個里가되엿고 本年에東古川面을 新興面이라改稱하엿다 東上面은開拓되지 몃해못되여 沿革이업스나 他七面은 上下半萬年間幾多의滄桑을겪은것이다 한녯날에는沃沮땅이엇고 暫時衛氏에게 거부럿다가 衛亡後漢의玄菟郡에 編入되고 玄菟가遼東으로移郡되자 樂浪郡에隸하엿다가 高句麗가 强大하자그版圖에들어가고高句麗亡後는 渤海의領地가되고渤海亡後 女眞의本據가되고 元이興하자 元의領有가되엿다가 高句麗恭愍王時에 비로소奪還하야 李朝五百年間 咸山咸州咸興等名稱을가지고온것이다

人口

最近新興郡의 人口는 해마다 줄고 잇스니 그것은 冷害其他살기 어려운事情으로 말미아마年年히 外地로 流離하여가는 證左이다 左表를보면

昭和七年	一六、四四四戶	九〇、三九五人
同 八年	一五、六〇二	八四、八六三
同 九年	一五、三三六	八一、〇八六

右表와如히 最近三個年間에 一千六十八戶 五千二百四人의 激減을示하엿고 다시 昭和十年十二月末日現在의 戶口와人口는如左하다

—戶口—

面別	戶數	人口
新興面	一、六六八	九、七五五
元平面	一、五三二	九、〇五八
加平面	一、四三〇	八、四三三
西古川面	七七五	四、七五九
永高面	三、一八一	三一、七五〇
東上面	三、八〇五	四、七九八
上元川面	八八二	五、三三七
下元川面	一、一四一	六、八〇一
計	一三、二六八	八一、八九五

이것을 다시氏族別로表示하면

種別	戶	人口
朝鮮人	一四、九六六	八〇、九〇三
日本內地人	二六八	八八六
滿中人	三四	一〇六
計	一三、二六八	八一、八九五

地勢

新興郡은 咸鏡南道의 中央部에位하야東은豐山 北靑、洪原、의三郡에接하고西北은長津、南은咸州郡에隣接하엿스니面積은 一百四十一方里二에 該當하다 地勢는 半島의 脊梁山脈이 郡內를 橫斷하엿기때문에高地帶와 平地帶로 兩分되엇다어 이 高地帶는 蓋馬高原의 一部인 東上面一圓으로 絕勝赴戰高原地帶를 指稱한것이니 東은朝鮮第三位의 高山遮日峰(海拔二五〇六米)을 爲始하야 北白水、白山、玉蓮山、三水嶺、西는大白山、小白山、有麟嶺、水砧山等、어느것이나다千九百米以上의 高山峻嶺、南은赴戰嶺及白岩山脈이橫斷하야 雄大한 斷層崖를 이루어잇다 本郡平地帶와의分水嶺이되어잇다 赴戰江은 이赴戰嶺及白岩山의 幽谷에서 發源하야 高地帶의中央을 貫通北流하야 長津江에 合流하야 鴨綠六千餘里(六百餘里)를 지나 鴨綠江에合流되는것이나 現在에는 朝窒會社發電用貯水池가 되어 東上面漢垈里에서 가로막어 一萬五千間의隧道水路를 逆流하야 白岩山의 斷層을貫通、平地帶에떠러저서 城川江에 合流하는것이며 分水嶺以南의 平地帶는 咸興平野北端에 連接한 平野를除하고는 모다高山幽谷에 包圍되어 耕地는 매우적다 北은赴戰嶺及黃草嶺의 山脈에 連하고 東은八峰山及高峰、西는 高大山、千佛山等의 峻峰이 連亘하야南進함에따라 標高漸減된다。城川江은 根源을 黃草嶺에서發하야 郡內의中央을 貫通하야咸州郡五老里에 이르러 黑林川과 合流되어 咸興灣에 注入된다。

產業

新興은 農家戶數一萬一千六百十三戶(十年末)를가진 農業本位의山郡이다左에簡單히 農業營爲에關한 數字를적으면

—耕地面積—

畓	田	計
一、九六〇反	二五、三三七反	二七、〇四四反

이고 이外土地台帳에 未登記되耕地로는 田六九、五〇九反、火田一一五、三〇〇反이니 火田은 東上面、下元川面과가흔 山面이만히잇서 當局은 그整理에不斷의注意를하고 잇다한다

◇農產物生產

種別	作付反別	收穫高
普通作物	二〇九、〇七七	一〇九、六三五石
特別作物	三、〇四八	二〇、九三〇貫
蔬菜	八六八	一二三、四三六貫
果樹	三四五本	一三、六三三貫
計	(一七七石)	

(備考)普通作物은 米、大麥、大豆、小豆、綠豆、粟、稗、黍、蜀黍、玉蜀黍、燕麥、蕎麥等이고 特別作物은 大麻、荏、胡麻 蔬菜는 馬鈴薯、라듸、白菜、甜瓜 果樹는李果、梨、栗等을 各其指稱한다

◇養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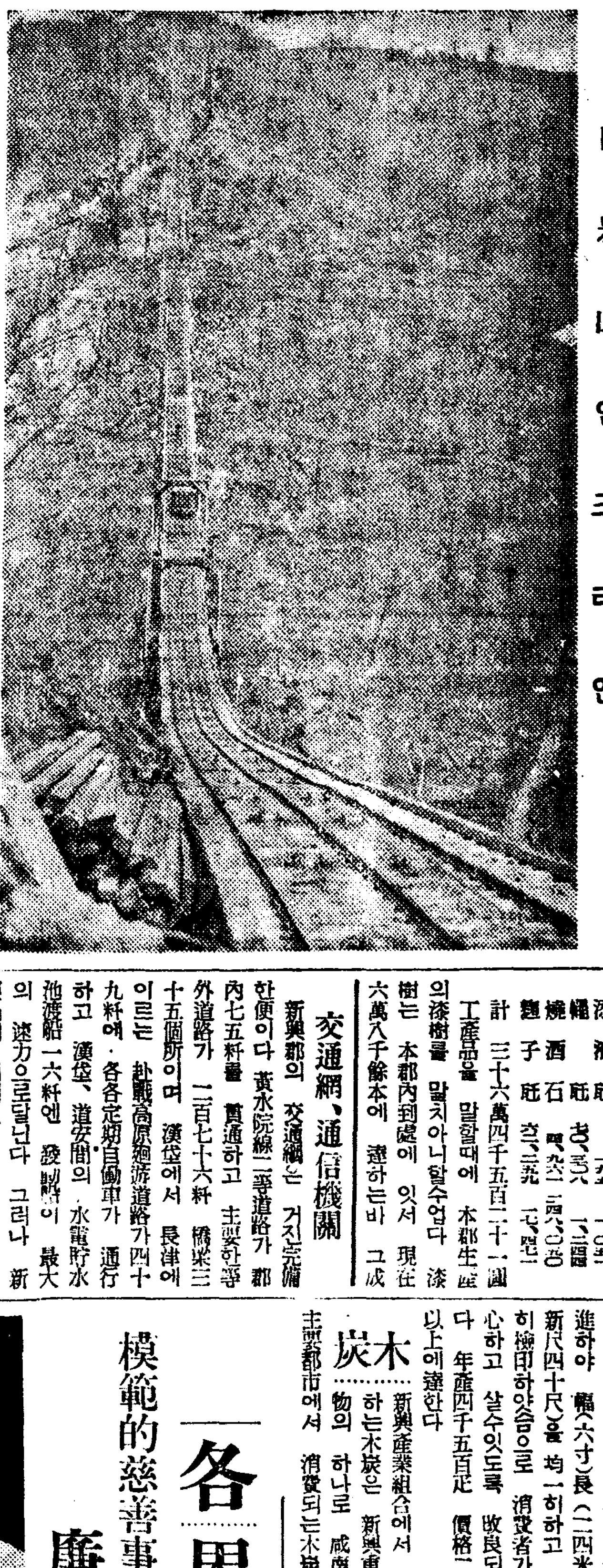
本郡은 氣候風土가養蠶業에는 適當하다 이에昭和十年度蠶業成績을보면(春蠶、夏秋蠶)飼育戶數五千七百四十一戶에掃立이 一千五百六十九枚이며 이에따른 產繭量은 六萬二千八百六十二瓩에達하고 다시蠶繭의販賣狀況을보면 그數量이三萬八千七百二十八瓩에 價格은三萬二百七十圓에이르니 有望한副業이아닐수업다 그리고養蠶에關한 指導研究의機關으로 郡農會投資下에 蠶業小作組合이잇스니 十年度現在의現況은 組合數八、組合員二一九人、桑田四六町步、總經費二萬六千六百五十圓이다

◇畜產 (十年末)

牛	馬	豚	山羊	緬羊	鷄
一三、六六七	一〇〇	三、五四一	二	三三	一三、四四五

◇林業

新興郡의 林野는 國有地一〇六、八四七町步、私有林六五、九四〇町步로서 計一七二、七八七町步에達하며 造林補助事業으로 三一、六七三町步에七五七、七三〇本의植木을 十年春까지하엿는데 그大部分은落葉松이다



白岩山인크라인

◇鑛業

新興의 鑛業은 그歷史가 相當히 길으나 東上、上元川、下元川의 一部를 除한 金鑛脈은 거의가寸土의 交換조차업시 朝鮮窒素肥料株式會社의 所有에歸하여 잇다 그中年產額以上의 會社를 紹介하면

鑛區	鑛業者	資本金	年產額
加平面	朝鮮合同		
咸興炭鑛	株式會社	一、三〇〇、〇〇〇	三三、〇〇〇
明太洞	明治鑛業		
千佛山	開發會社	一、〇〇〇、〇〇〇	六六、〇〇〇

◇商工業

市場賣買 年五十七萬餘圓 工產品代價三十六萬餘圓 本郡의 商工業은 아직도 他地方에比하야 不振狀態에 잇스니 그一年間 取引되는 數字를보면 알것이다

(1)市場

市場은 八個所인데 昭和十年度總賣買高는 農產物 一九二、九二五圓 水產物五三、一九五圓 畜產物一四〇、六一一圓 畜產類一〇五、九二六圓 其他八三、七六六圓 合計五十七萬六千四百七十三圓에 不過하며

(2)主要工產品

種別	單位	數量	價格
生絲	瓩	二、三二一	三〇、三一二
木炭	同	五三〇	三、三三元
大麻布	疋	三三四	二、三四〇
籾	斤	二六、二三五	六、〇五〇
澱粉	瓩	一四、〇〇〇	二、七〇〇
改良叺	枚	一五三、〇〇〇	八、九六〇
添液	瓩	一、八六〇	一、三一四
燒酒	石	一、六二一	二〇、〇〇〇
麴子	瓩	六、二五〇	一、〇七〇

計 三十六萬四千五百二十一圓

工產品을 말할때에 本郡生產의漆樹를 말치아니할수업다 漆樹는 本郡內到處에 잇서 現在六萬八千餘本에 達하는바 그成

交通網、通信機關

新興郡의 交通網은 거진完備한便이다 黃水院線二等道路가 郡內七五粁를 貫通하고 主要한等外道路가 二百七十六粁 橋梁三十五個所이며 漢岱에서 長津에 이르는 赴戰高原遊覽道路가四十九粁에、各各定期自働車가 通行하고 漢岱、道安間의 水電貯水池渡船一六粁엔 發動船이 最大의 速力으로달닌다 그러나 新興邑의 關門인 新興橋가 頹落하야 通行人에게 危險을 줌은 不快한 일이어서 그改善을 要望하는바이다

鐵道는 朝鮮鐵道와 新興鐵道가本郡을 南北으로 貫通하야 延長六十八粁에 達하니 運輸에便하며 通信網으로는 新興、松興、赴戰高原郵便所의 三個郵便所가잇스나 아직 電信、電話의 施設은 업는것이 遺憾이다

本郡의特產

麻布

新興郡이서 生產하는麻布는 從來부터『咸興麻布』라하야 麻布類의王座를 占하엿다 近來 產額이 八千疋에 價格이 二萬圓에 不過하지만 當局에서는 年年一萬本式의 增殖計劃을 立案中이라고하며 現在에 그收量은 五千五百餘貫、價格은 一千二百餘圓에 達한다하니 將來改良獎勵하게만하면 農家의副業으로 理想的일것이다

木炭

新興產業組合에서 取扱하는木炭은 新興重要產物의 하나로 咸南道內主要都市에서 消費되는木炭의過半을占한다 當局은 年年히製炭講習會를開催하야 包裝 品質을一層改善하고 規定貫數以上의數量으로하야 消費者의 好評이 籍籍한데 今年부터는 朝鮮外地에도 相當히搬出되리라한다 年產四萬俵그代金은三萬二千餘圓에達한다

澱粉

澱粉은 名勝赴戰高原地帶의 特產物이다 咸南道特產物取締規定에 依하야 東上產業組合에서統制取扱한以來 年產三千餘石 販賣數量一千二百餘石에 그代金은 三萬六千餘圓에 達하야 더욱其品質이 向上된다

燕麥

此는 高地帶에서 常食하는 主要穀物이다 年產三百五十萬貫 그代金은 二十四萬餘圓에 이르는바 太半陸軍馬糧으로 提供되는다 新興郡農會及東上產業組合에서 그改良增產을 圖하는同時에 馬糧販賣를 斡旋한다

一面一校完成이나 收容力은大不足 敎育機關擴充이急務

新興郡의 敎育機關은 西古川公普의 設置로서 一面一校制는 完成되엿다하나 年年히 志願兒童의 半數도 收容할길이 업서 多數兒童으로 하여금 依然 文盲地獄에서 허덕이게하니 어찌 慨嘆할 現狀이아니랴 新興公普의 學級增設運動 西古川公普의 學年延長及 學級增設運動을 爲始하야 郡內到處에 學校設置의 要求의 聲이 놉흐니 當局에서는 一日이라도速히 이郡民의要求를드러주어 文盲의苦杯를맛보는可憐한兒童들에게 就學의길을 開放하여주기를 熱望하는바이다

◇公立諸學校◇

學校別	學級數	敎員數	生徒數
新興公立農業公民校	二	二	九〇
新興公普	九	一〇	六〇五
加平公普	七	七	四五三
下元川公普	三	三	一六八
永高公普	六	六	四五九
同釜淵簡校	一	一	八〇
東上公普	五	五	三七〇
同興慶簡校	一	一	七五
同連開簡校	一	一	七九
同泗洞簡校	一	一	八〇
同漢岱簡校	一	一	七六
千佛山公普	三	三	一四〇
上元川公普	三	三	一五四
同興東簡校	一	一	八〇
西古川公普	三	三	一五〇
計	一五校	四六	三、三三六

◇小學校◇

學校數	學級數	敎員	生徒數
二	四	五	一一八

◇私立學校◇

學校別	學級數	教員數	生徒數
私立東成校	二	二	一一七

◇學術講習所及書堂◇

學校數	兒童數
四七	一、三八〇

(以上十二年五月現在)

代表的私學機關

多數英才길은 大東書堂

李炳璹氏의熱誠

新興의 私設教育機關을 말할때 잇지못할것은 西古川面大洞에잇는 大東書堂이다 大正年間向學熱이 澎湃하든 當時에 그附近有志들의 誠力으로 創設되어 無數한 波瀾과 曲折을 겪그면서 今日에 이르른것이다 大東書堂의 門을나온 만흔 英才가오늘社會各方面에서 活動하고잇거니와 元來財團的基礎가 업는지라 歷代의 敎師들은 모다犧牲的으로 敎育하여왓다 現在의 李炳璹氏(書堂主)도 오직 二十餘年을 敎育의 一念에서 努力하야 邦家의公益을 爲하야 犧牲的 勞力을 아끼지안는 이어니와 四十年을 하로가티 大東書堂의 發展과 二世敎育에 心血을 다하는 篤學家 皆이 公明正大하고 高潔한 人格으로 兒童의 訓育에 犧牲的 努力하며 社會의 信任과 學父兄들의 信賴를 바다 오는 바이 不少하다 社會의 信任과 學父兄들의 敎養과 父兄의 期待가 크다 이 어찌 偶然하랴? 大東書堂의 運命을 雙肩에지고 書堂敎育에 犧牲的努力을하는 李炳璹氏에게 滿腔의 敬意를 表하는바이며 이러한 良心잇는 敎育者들을 가진 大東書堂의 將來가 또한 有望할것이다 이밖게도 이書堂을 爲하야 힘쓰는이들이 만하니 韓宗燁氏 李昇林氏 李炳郁氏 李鼎柱氏 韓鋼烈氏等은 모다이 書堂發展上 숨은支柱들이다 (寫眞은 李炳璹氏)

公普로昇格도在邇 隆運!永川講習所

外觀內容이모다完備

永川私設學術講習所는 距今十二年前에 公普位置가 高山으로 指定되자 當永川人士가 奮起하야 大正十五年六月에 創立한 永高面唯一의 講習所로 今日에 이르기까지 有志의 誠力과 父兄의 援助로 維持하여오는바 이 지방의 敎育機關으로서 大正十二年에 有志들의 발의로 設立되어 모다 勞力의 結晶으로 오늘의 隆盛을 보게된것이다 現在學生 三百六十餘名에 達하며 今年부터 公普로 昇格 될것이 確實하다 하니 그 前途는 實로 洋洋하다 現在職員은 所長李道均氏外講師五人이잇다

私立東成學校

敎育界功績多大

新興에잇서 私立東成學校는 新興郡에 단 한개소인 東成學校로서 文化가 뒤떠러진 地帶에잇서서 그地方發展에 이바지한 偉大한功績을 끼치고잇스니 이學校亦是 大正十二年頃 西古川의巨儒故崔鎭道氏及 現設立者인 崔昌俊、鄭洪漢氏와 設立當時의 敎員李在瀕氏等의 犧牲的精神으로 設立한 學校이다附近八個里住民이 基金을 共同出捐하야 經營의 任務를 分擔하며 이學校를 나온卒業生들이 社會各方面에서 또한 多角的으로 活動하고잇스니 비록四年制의 初等學校이나 이學校는 僻地인下東古川地方에 잇서서는 文盲退治와 아울러 唯一의 文化機關으로 되어잇다 現校長李鍾澈氏外敎員一人이잇고 在籍兒童은 男女百二十名假量이라고한다

高原의자랑

一、赴戰嶺의 高度로 朝鮮第一
二、高山植物 百數十種 朝鮮第一
三、赴戰湖 周圍十九里 朝鮮第二
四、北水白山 海拔二、五二二米 朝鮮第三
遮日峰 海拔二、五〇六米 朝鮮第三
雲峰 海拔二、四八七米 朝鮮第四
白山 海拔二、四七六米 朝鮮第五
五、赴戰江第一發電所 落差 〇〇〇尺 十三萬키로와트 東洋第一
六、漢岱堰堤 高二百七十尺 長一千七百尺 東洋第一
七、赴戰江水路隧道 長七里 朝鮮第一
八、白岩山인크라인 三十五度傾斜 十二尺式으로 東洋第一
九、白岩山驛 海拔一、五八〇米 日本最高의 인크라인驛
本線最高의 鐵道驛 海拔一、三八〇米 赴戰嶺驛

朝窒의發電內容

電氣新興의偉觀

工事槪要

赴戰江一大貯水池工事는 四千五百萬圓을 計劃하고 六千尺의 高岑에 築立한 本郡赴戰嶺에서 發源하야 海拔五千尺으로부터 四千尺의 大高原을 北流하는 赴戰江을 가로막어 一大貯水池를 만들어 다시 그貯水를 逆流시켜 日本海에 注入하야 城川江에 떠러지는 水勢를 利用하야 水力發電을 이르킬 것인데 이工事는 大正十五年十月에 起工하야 昭和六年十月에 完成되엇는바 그工事의 槪要는 如左하다

水路延長(全部隧道)一四、六五〇間 隧道形狀 長蹄形 高幅各十二尺一寸 鐵管線延長九千五百尺

漢岱堰堤 高二二六〇尺 長一二一八五八間 立積七萬五千坪 貯水 面積一五方里 周圍一九、五里 貯水量二百四十億立方尺 工事用架空索道二十七哩 同鋼索線二十哩

第一號發電所 落差二、〇〇〇尺 出力三八、〇〇〇키로와트
第二號發電所 落差 〇〇〇尺 出力四〇、〇〇〇키로와트
第三號發電所 落差 二九六尺 出力一八、〇〇〇키로와트
第四號發電所 落差 一〇〇尺 出力 一二、〇〇〇키로와트
第一、第二、第三、第四(發電總出力一九八、〇〇〇키로와트)

名勝古蹟

▲千佛山

千佛山은 元平面西北에 聳立한海拔一四五四米突의 高山으로 關北의이름노픈 名勝地이다 開心寺事蹟에依하면 檀君이 어나山에와서 持提山人을 맛나신까닭에 持提山이라稱하엿고 箕子가 또한 이山에와서 雲間으로 笙簫의소리를 들으시고鳳流山이라 命名하셧고 그後高僧遺說이와서 一千의 塔을쌋코 山名을고처千塔山이라고하엿고 그後十六年에 名僧指空이 寺를創建하고 山名을千佛山이라고 更稱하엿다고한다 山岳이雄大하고 溪谷이 幽邃하고 樹林이鬱蒼하야 實로風光이明媚한바 山內名所는 아래와갓다

開心寺 千佛山麓에서 西方三里許에잇는 大伽藍인데 三十年前까지는 咸鏡以北의 大本山이엇다 極樂殿大雄殿 靈山殿 眞府殿 雨花樓等大建物이잇다

今距一千一百十四年前唐의 指空僧이 俗稱舊寺基即上基에 創建한바 그後回祿을當하매 懶翁이俗稱白岳당만即中基에 移建하엿고 또回祿을當하매 龍船 虎山兩和尚이下基에移建하니 即現在寺利이다 開心東川朴璡의詩에

不到開心二十年
重來物色總依然
老僧說盡餘三四
閑坐雲山赤白巓

山內名庵 白岳瀑布上에 大乘庵이 엇스니 元曉祖師가 創建한後 白樹가重建하엿고 蕭寺基後에 月佛庵이엇스니 指空의 創建으로 一相居士가重建하엿고

白岳瀑布 開心寺에서 北으로高林蒼藤이天日을가리운山溪谷을오르고 또오르면 千仞絕壁으로 飛流直下하는 白岳瀑布가잇다 詩人朱 의詩에

千古靈藏山不秘
碧岩終日散明珠

▲赴戰高原

本郡의西北에잇는 平均海拔千二百米以上의 高地帶로서 前萬古를 깊이秘藏되엿든 大自然이 二十世紀偉大한 科學의힘에依하야 비로소開放된것이다

白岩山인크라인 高原의 關門인 白岩山驛은 標高五千百七十四尺의 白岩山頂에잇는데 松興驛으로부터 인크라인이數設되여 直高三千尺의絕壁을昇降한다 이것을라고 脚下를瞰下하면 그야말로羽化登仙의感이 잇는것이다

赴戰湖 周圍二百里(十九里)되는 朝鮮第一의 大湖水인데 上下天光푸른물결이 구비처흐르고 白雲綠林이 그림자를倒映하는 景致는 仙境이 分明하다 여름에船遊하면 萬斛凉味를 먹고 덜덜 떨리거니와 겨울에 自動車를타면 飛行機를 타니만큼 爽快한것이다。

紅葉谷 白岩山麓에잇는데 九

開心寺東谷에 普門庵이잇스니 無學國師의創建으로 寒岩이 重建한것인데 모다淸淨한佛界이다

大花園 이高原은春秋가업고 여름과겨울이잇슬뿐인데꼿은여름한철에만꽈번에핀다石楠花金鑛梅도조키니와到處高原에는高山特有의花園을열러서 鈴蘭、萬浦花、紅白白黃紫藍各色이름모를꼿이滿開하니 可謂百花齊夏一時發千葉萬紅今春이라하겟다

植物及昆虫 이高原에는高山植物이百數十種에達하고 여게만特產하는것이 二十餘種이되여 高山植物이만키로 朝鮮第一가되다 또特殊한高山性昆虫類도만어서 嶋大의高山蝶도잇다

丹楓白雪杜鵑花 五月下旬까지눈이오는것이普通으로 綠發草勝花時에白雪이滿乾坤하고 杜鵑花는六月初에야滿發한다 丹楓도平地보다約一朔前에시작한다

▲德安陵

豐上驛의西北方一里許에잇는데 穆祖及其配孝恭王后의 御陵으로 老樹蒼鬱한聖域이다

▲英州城址

加平面東興里赤葉山下에잇는데 周圍十餘里 零碎片瓦가 散在하나 옛날尹侍中의쌋흔 九城의一로서 지금零碎片瓦가여게저게散在하다

▲長城址

英州城址로부터 加平元平의境界線을지어가지고 黃草嶺以西까지築한것인데 古老가相傳하되 尹侍中의쌋흔것이라한다

▲元平古戰場

옛날壬辰戰役에 柳應秀等一妬(?)호든古戰場이다

▲延嗣宗遺墟

元平面興德里에잇는데 延嗣宗은 李太祖를따라 偉功을이른開國功臣谷山君이다

▲觀音坊

西新興驛前西北約五里許에잇는데 香爐峰等五峰은 神斧鬼鈸로깍가세운듯한 壁立千仞의石峰으로서 그奇偉함이 小金剛名勝이 부끄럽지안으며、峰下에碧松庵이 이엇고 庵의右岡에 萬景臺가잇스니 臺上에서바라보면 멀리는 遼奇한觀音坊의全景이 눈에흐르는듯이 脚下에는 水天萬里의東海烟波가眼前에展開되엿다

▲一遇岩

西古川面吉松里城川江中에 聳立한 樓船狀의巨岩인데 岩壁에老松이푸르고 岩下에碧溪가 흘러서 景槪가조코 楊蓬萊가쓴 一遇岩三字가 岩面에새겨잇고岩下二個日에龍堆虎膂四字도刻하엿다 옛날鄭時元이附近에 卜居하엿는데 韓紀百이 그遺墟를지나다가 有詩曰

江水東流岩石老
麟山明月照龍堆

▲新興公園

新興邑前에잇는데 옛날柳應秀將軍의演武林은 지금도 橫楡가蒼鬱하며 八角亭과 柳將軍碑가잇다

▲六忠祠

壬辰의戰役 奮戰한柳應秀外五名의魂을 祭하는 祠字인데 邑의東南半里許에잇다

▲三釜淵

東興驛西北에잇는데 石壁으로흐르는물이 石槽로서次第로 三個圓坎에注하는것이다

(寫眞은 開心寺)

各界重鎭의面面

模範的慈善事業家 廉河龜氏

半世紀의 長久한 時日을두고 天災地變이 잇슬때마다 巨金을投하야 貧民을 救濟하므로서 新興社會事業에 一大『新記錄』을지은 廉河龜氏는 果然어떠한어른인가? 距今七十二年前甲寅에元平面長興里에서 出生하얏다 어려서부터天性이 謙厚하고 慈善心에富한 어른이라 光武三年己亥에 天時凶하자 長興、長中兩里貧民三十四戶를爲始하야 大正八年大旱災後까지 前後三年에 百四十餘戶貧民에게各其糧米를 配給하엿고 乙丑、乙巳兩年과戊辰大洪水에는 元平面內貧民及水災民千餘戶의 莫大한 第一期戶稅를代納하는一方 巨額의水災民救濟金을義捐하여왓음으로 面民의세운數座의施惠碑가 元平鄕項에兀立하야 頌聲이藉藉하다 慈善事業뿐아니라 距今三十二年前에는崔永仁朴春吉朴長觀諸氏로더부러私立興東學校를設立하고 數千坪의土地를提供하야 咸南敎育界의先驅者가되엿고 그後도元平學校의 設立者로잇서 敎育界에貢獻이多大하엿다 氏는鄕校掌議로부터 陵參奉 德陵令 面協議員 新興樓業組合特別評議員 元平學校設立者 郡農會特別評議員 加平公普學父兄會長 新興鄕校贊事都總次等職을 歷任하엿고 新興郡守咸南道知事 朝鮮公道會長 朝鮮總督으로부터 表彰感謝가만엇다 漢學의 造詣도깁고 매우儉素하야 鄕黨의模範이될만하다 實日廉泉流處 豈無德波 業善好施 後人正標 (사진은 廉河龜氏)

儒林界의耆宿 魏大源氏

右相洞魏氏라하면 一族三百餘戶의 名門巨族인것은 咸新地方에선 共知하는 事實이다 李朝世宗朝에 生員魏自恭先生이 全南長興으로부터 北來하야 右相洞에 卜居한것이 魏氏新興의始初로 以來四百五十餘年間 科甲名士가 連世輩出하고 現在도著名紳士가 連綿繼承하야 本地方에서 名望을 날리거니와 이門內에서도 鍾出한 大人物로 天性이 從容端雅하고 意志가 高潔圓滿하며 淸廉한우에 道德에 노픈 어룬으로 各階級을 通하야 師表로 推仰되는 高宗皇帝壬寅에 法部法律起草委員에 被命되신以來 元平學校長 水北敎育研究會長 新興儒學院副院長 新興大成學院長等을 歷任하엿고 新興儒會長 新興鄕約會長 京城經學院講士의 兼職으로 今日에 이르니 李朝末葉으로부터 本郡에新敎育輸入의 元勳이시다

新興의名望家 李逵舜氏

義谷 李逵舜氏는 明治九年出生이다 性이仁慈하고도 剛直하며 大義에밝고 度量이 寬厚하야 老少를 勿論하고 敬畏한다 일즉이 西古川面長、金融組合長、繁榮會長、新興公普學父兄會長、同學務委員囑託、同評議員等을歷任하고 現在 新興產業組合長、朝鮮工產株式會社取締役社長으로잇서 名聲이 널리 傳播되어룬이니 過去半生을 오로지 本郡의 發展을圖하고敎育의 普及을爲하야 物心을公에 바친은 文化運動의 先驅者이며 新興의元老이다 그러므로今日老少各層을無論하고 新興의社會的重大事는 반드시 氏의手를經하고 諮詢하며 도한確然이아니다 氏는實로郡民의參謀인同時에 本郡의名望大家이다 (寫眞은 李逵舜氏)

民營林業의總本營 新興林產副業組

仲商芟除 林業事務代行

元來本郡의 民營林은 그經營方法이 粗漏하야 林利가 遲遲한것은 事實이엇스니 林野의大部分은 生產의 素地는無論、副業的生產材料도豐富하므로 그開發은 農山村不況經濟打開上緊急事이라하야 新興郡當局에서는昨年五月에 郡內林野所有者及林產物生產者二千名을一圓으로 新興林產副業組合을 創立하고 從來生產者의 生產利潤을 奪取하든 仲商을 交除하며 生產者個個가少量販賣하므로서 生產費高價로苦痛하든것을 綜合的大量販賣의 斡旋을하는등 그業績이 자못良好한데 더욱히 生產者의 販賣事業(木材、薪炭、其他)購買事業林業用具其他) 利用事業(倉庫其他) 金融施設等等의 林業事務를 總代行하야 組合永遠의 福利增進策을圖하는 一方 林野의 健全

金融界의權威 金弼奎氏

新興金融組合理事

金融界元老인 新興金組理事金弼奎氏는 利原出身으로 當年四十一歲의 斯界의 重鎭이다 利原德原兩郡金組를거치어 新興金融組合理事로서 敏腕을 發揮하다가 昭和五年 新興으로 轉勤되여오엇다 來新當時의 新興金融組合은 組合員이 겨우 八百、貸付金十一萬圓、貯金十五萬圓에 不過하고 延滯欠損은 枚擧키 難할만치 不振狀態이든것이 現在는 모다 그몃倍에 達하야 咸南 三十九組合中에서도 優秀한 業績을 보이고 잇스니 이것은 全혀 氏와가흔 斯界의 權威者를 마지한 때문이다 이만케도 功績이 許多하야 昨年에는 組合員들이 氏의 功績碑까지 建立하엿다 氏는 압흐로 新興을 爲하야 益益金融의 善策을 圖謀할것이다 (寫眞은 金弼奎氏)

祝辭

新興郡守 郭麟浩

貴社에서 今番本郡紹介版을 發行하신은 地方發展上 크게 有益하고 將來될것을 確信하고 感謝함을 마지안습니다 本郡은 이미 赴戰高原의 所在地로서 널리世上에 알리우게 되바어니와 管內交通機關이 完備함과 水土의良好함이 또한矜誇할點이며 產業方面은 主로農業인데 其中特히 東上面의 燕麥과 馬鈴薯澱粉은 其品質로나 生產量으로나 他의追隨를 不許하는바 昨年度分에 燕麥을 陸軍馬糧으로 供給한것이 八千餘萬貫 價格二十四萬餘圓에 達하엿고 澱粉은 平年作이면 販賣價格이 十萬圓을 不下하는 狀態인데 此等은 아직도 改良增產의 道程에 在하며 牧畜業은 郡全體가 理想的 地帶이니만큼 얼마든지 投資할 餘裕가 有하고 地下資源은 加平面에서 採出하는石炭이 咸興炭이란 名號로 博得하는바이며 鑛山은有名한千佛山과 明太洞兩金鑛을 爲始하야 郡內到處에 多數의 鑛區가잇서 大概는 아직探鑛期에 屬하지만은 今後好況에 發展함을따라 또한新界의王座를占할 可能性이 有

新興警察署長 中本修

本郡은 大正三年咸州、洪原、長津의 三郡의一部로서 新設되엇슨 字그대로의 新興의郡으로서 어른면 三郡民의 集合이지마는 郡以來一官民間잘 共同一致하야 互譲互敬의 精神下에서 一絲不亂의 步調로서 終始한結果 他에 比類가업는 產業의 發展을 有하니 產金報國에有意한 人士는 勿論 아니지못할處所이며 도한 年地方振興運動이起한以來 官民이一致協力하야 奮鬪努力한結果 郡民의精神이 크게振作되야 郡名에 相應하게 新興의氣分이橫溢하야 本郡의將來가 頗히囑望됩니다

本郡이다 뿐만아니라 歷史的古蹟과 天然의景勝地等이許多한데도 不拘하고 一般에게 널리宣傳되지못한것을 恒常遺憾으로生覺하여오든중 맛침今回에 朝鮮日報社新興支局에서 新興郡紹介版을 發行하야 널리 本郡을天下에 紹介하는것은 快事임과 同時에 本郡을 爲하야 慶賀를堪치못하는바이다 그리고 本事業에對하야 特히 李恒國氏가 常時互尊互敬의精神으로서 新聞의 使命을 萬全히하야 地方發展上貢獻하는 一事이다 바라건대 益益自重自愛하야 社會를 爲하야 貢獻할것을바란다

【五面繼續】

各界重鎭의面面(續)

工業朝鮮의至寶 咸南道會議員 尹日重氏

氏는性格이溫厚하고 廉潔無僞한이로 當年四十六歲의京城人이다 京城第一高普를거처 總督府官費留學生으로 東北帝大電氣工學科를 卒業하엿스니 그頭腦의明晳함과 學識의豊富함은 足히써知할것이다 氏는實로 工業朝鮮建設의至寶이니 京城電氣會社 開城電氣會社 東京電燈會社等에서 그擔當한技術을實驗하엿고 昭和二年十月에 新興에왓다가 그會社가 朝鮮窒素肥料株式會社에 合倂된後 昭和十年에 그會社發電課長으로 昇進되어 今日에 至한電氣王國新興의 電氣王者이다 그뿐아니라 氏는政治的頭腦와 社會的識見도 他의 追隨를 不許하야 過般咸南道會議員 改選時에는 壓倒的票數로 當選되엇스니 氏와가튼 公正圓滿한 人格者를 道會에세운 新興郡民이 또한 賢明하다 多辯은 아니고 善辯은아니지만 熱이잇고 力이잇는 氏의論調는 道政上傾聽할 價値가 잇슬것이며 郡民의 福利를 增進식힐것이다 이것이氏가 斷然 氣槪잇는 新人으로推仰되는點이다 氏는 또 公益事業에도 功勞가크다 永川學院, 松興學院 其他公共團體에 陰으로 陽으로 後援이만흔 評判노픈名士이다 (寫眞은 尹日重氏)

內科小兒科權威 咸興에서開業 朴永仁氏

新興社會에 새消息하나를 傳한다 內科, 小兒科의 專門醫院이新興人醫學士의손으로 咸興府黃金町二丁目에開設되엇스니 朴永仁醫院이그것이다 院長朴氏는 加平面出生으로 昭和十年에京城帝國大學醫學部를 優秀한成績으로卒業하고 同大學附屬醫院伊藤內科에서 臨床研究를하든이로 儀表가端雅하고 親切叮嚀하야 傳業의 先生으로 適切한이다 더욱히 氏의造詣깁흔 手術은 大病院이 擬比할 咸興醫療界에서도斷然權威라는 名聲이 藉藉하다 氏는 아직三十五歲의青年이니그 前途는 참으로洋洋하다 (寫眞은朴永仁氏)

新興의社會的重鎭 實業界의元老 金永翊氏

氏는設郡以來二十餘年을 하로가티 邑民의 共存共榮과 地方發展을爲하야 盡力하는 新興社會의 重鎭人士이니 天質이 寬容仁厚하야 地方發展事業에 物心兩方으로 貢獻이 多大한이다 重要公職을여러번 歷任하엿고現今도東古川面協議員으로 在職中이며 新興市民의 一大遊園地오外來觀覽客에게 자랑꺼리인 新興公園은 그過半은 氏의 努力으로 된것이니 公園의 八角亭이 업서지기前에는 永遠히 氏의 거룩한 뜻을 이저버리지아니할것이다 一方氏는 新興實業界의元老이다 氏의經營인 新興釀造所는優良한技術과 獨特한製法에 現代科學을 利用하고 設備를 完全히하야 咸南酒造聯合會와 全鮮酒造品評會에 優等賞의 讚揚을 바든만큼 新興酒는 社交界의絕讚을밧고잇다 이우에 常識이卓越하고 注意周到한令息昌煥氏가 協助의役을하고잇스니 知命의域을 넘은 氏의將來에 우리의祝福과期待가 어찌크지안흐랴? (寫眞은 金永翊氏)

刀圭界의權威 新興公醫 李景燮氏

氏는 北青郡出生으로 大正七年에 京城醫學專門學校를 卒業한後 京都帝大病院에서 二年間 臨床研究를하고 大正十年에 甲山郡公醫로 配置되엇다가 昭和四年五月에 新興公醫로 轉勤되어온이다 以來平全한議論과 努力으로 新興郡民의 保健事業에 心血을 傾注하는인데 그밖에 [illegible] 富한만치 內外科를 通하야常識과技術이非凡하야 新興刀圭界의 巨星的權威로 一般의 信望이 集中되어 잇는이다 (寫眞은 李景燮氏)

重厚한長者 李泰根氏

加平社會의 德望家이고 農村振興의 指導者인氏는 大正九年부터 四個星霜을 加平面長의職에잇서서 그正確한 意見과 修理整然한 理論을 面行政에 實施

多角的活動家 實業家 廉宛模氏

氏는 慈善事業家廉[illegible]翁의令息으로 家親을 닮아 溫厚謙遜하야 驕의風은 조금도업는 氣宇英邁한 實業家이다 抱負가偉大하고 性格이 大膽直裁하야所信에잇서서는 秋毫의躊躇도업시 果敢敏捷히 處斷함으로써 有名하다 大正十年에 淸洞水利契를創立하고 同十二年에는 農業經營의 經驗次로 水田八町步를開墾하엿스며 翌年에 日本內地를視察하고 깁히 늣긴바잇서서 果樹園七町步를 經營하엿으니新興에果木輸入의 元祖이다 社會事業에도頭角을달리 關心하야 大正十五年에典洞學院을 開設하야今日에至하얏고 다시小作人救濟의 意味로 昭和八年엔 典洞養蠶組合을創立하고 그組合長에被任, 八町步의桑田으로 輪奐의美를極한二百四十餘坪의 蠶室을 建築하야 個人經營의 蠶業으로는世界一이라는 稱을 듯든이다 氏亦漢學이 能하고 書法이長하며 特히 漢方醫學엔 造詣가 깁고 手法이 奧妙하야 現代의扁鵲이라는 稱讚가잇스나 外處한듯해로는 行世치안는다 豪放한만치 狩獵을 조와하야 名砲手라는말도듯는 當年四十一歲의 大人物이다 (寫眞은 廉宛模氏)

土木工事界覇王 間組配下 劉學豊氏

自手로 創業하야 一躍 土木界의 王座를占하고 이르는곳마다 그地方發展과 教育事業에만흔貢獻을 남기는이는 本籍을永高面에두고 現咸州郡上岐川에 가서 長津江水電 第四號發電施工을 하고잇는 間組配下 劉學豊 氏이다 여러번 失敗하되 不撓不屈하고 悪戰苦闘하야 畢竟今日의 確乎한 地盤을 獲得한이라 性質이 强柔를 兼하고 仁厚豪活하야 部下를 사랑하고 隣人을同情하며 義理를 尊重히하는이다 氏는氣象이斬易하며 手腕이非凡하고 觀察이明敏하야 明治四十年에 總督府元山土木課現場監督으로서 土木事業에着眼 大正六年까지三個의 大工事를指揮하고 大正八年廉島組下請負를비롯하야 昭和二年에 間組配下가되어 今日에 이르는사이에 二十餘回 百數十萬圓의 大土木工事를 請負竣工하야 이江山到處에氏의 功績을 남기게되엇다 視角을 달리하야 氏가 各方面公職으로 社會에功獻한大綱을 紹介하면 昭和二年以來 永高公普學校評議員 松興消防組頭 新興郡學務委員 永高面協議員 下元川公普評議員 咸州郡下岐川公普學務委員(現職)同面協議員(現職)等을歷任하엿고 鑛業에도進出하야 所持鑛區가 모다佳良하다 氏는 當年四十九歲의中年 압길이 더욱洋洋하다 우리는氏의 [illegible]

唯一한青年實業家 永泉釀酒所 朴春三氏

新興社會에 唯一의 慾望으로滿都人氣가 總集中되어잇는 青年實業家는 芳年二十九歲의朴春三氏이다 昭和二年부터 新興邑中央에서 鮮滿米穀貿易과精米業을經營하는一方 運送業을 兼營하야그業蹟이 顯히優良하얏스나昭和八年에 永高面慶興里의 永泉釀酒所를 引繼經營하면서부터 前者는 모다整理하고 以來酒造에만專念하야 芳香無比한永泉酒의聲價는 實로社交界에 [illegible] 立場에서게되엇다 一方今後滿洲에 [illegible] 計劃하고目下視察考究中이다 氏는[illegible] 磊落活達하고 頭腦가明晳하며 社交에 能爛한우에 資力이 豐富하야 大實業家의 風貌를具備하고잇다 現在東古川面協議員의公職에잇서서 行政에도 功獻하는배크다 氏의大成功을期待한다 (寫眞은 朴春三氏)

商界의敏腕家 豐上市 韓基默氏

[illegible] 不動할것이다 (寫眞은 [illegible]氏)

豐上市布木商界의 第一人者韓基默氏는 溫厚正直한 人品을가진이로 淸貧한家庭에태어나 모든艱難을겪그면서도不撓不屈하는 意志와 明敏한商術로因하야 今日의地盤을 쌓어올린立志傳中의 人物이다 性質이 仁慈하고 義俠心이 만하서 同情心이 豐富하고 公共事業엔 財物을 앗기지아니하고 그地方에人望이 놉다 氏는 今年五十一歲, 豐上商界의發展을 爲하야압흐로氏에게期待되는바가 不少하다

實業界의重鎭 元平釀酒所 鄭愈徹氏

性質이沈着寡默하며 柔順溫恭하야對人接物에 好印象을 끼치는이는氏다 實行이敏捷하고外飾이 업는분으로 元平面內의教育事業과 公益事業치고는 氏의協贊이 업는것은 하나도업다 千佛山市財界 經濟界의 主人으로本郡有數의實業家이니 社交界의花形元平酒는 氏의經營인 元平釀酒所의製品이며 農業을 倂行하야 模範的篤農家라는 稱號도 잇다 千佛山公普學務委員 同校學父兄會長 元平面協議員等을歷任한 重鎭人士이니 當年五十二歲이며 將來더욱 우리新興을爲하야 보람잇는 事業을 計劃할것이期待된다 (寫眞은鄭愈徹氏)

產婦人科巨星 宋楨源氏

咸興에다녀본이는 府內黃金町一丁目에 南向한二層洋屋宋楨源醫院을 보앗슬것이다 產婦人科의權威로 咸鏡道醫學界의權威인氏도 實은 新興出身이다 昭和二年에京城醫專을 卒業한後 平北道立醫院產婦人科 京城醫專附屬醫院產婦人科等에 五年餘를 勤務하든이로 처음에五老里에 開業하엿다가 昭和十年에 現在의位置에 옴겨 產婦人科醫院을 開業하엿다 豐富한經驗과 奧妙한手術에는 百發百中의効果가잇서 產婦人科―하면 宋楨源醫院을 聯想할만치 著名하다 氏는當年三十五歲로 그將來는 一層期待된다 (寫眞은宋楨源氏)

到處에頌聲漸高 新興郡守 郭麟浩氏

氏는 明治二十六年 關西의 雄都 江西에서 出生하야 大正元年에 總督府水原農林校를 卒業하고 朝鮮總督府技手로勤務, 昭和五年에는 府屬으로 兼任하엿다가 同九年에 拔擢되어 一躍新興郡守로되어온 手腕家이다 天性이 率直하고 溫和하며 그根底에흐르는信念은 언제나 郡民의生活을 어떠케 向上식히느냐?하는 一念에잇다 이點에서 一郡의長官으로 一般郡民에게 崇仰을바드며 [illegible] 이올다 (寫眞은 郭麟浩氏)

教育界의重鎭 加平公普訓導 李成淑氏

[illegible] 教育者의 人格이 무엇보다도 [illegible] 實地로 [illegible] 示하여야한다 이點에서 [illegible] 李成淑氏는 [illegible] 師表로서의 [illegible] 具備한이라고한다 大正六年에 咸興高普를 卒業하고 同十一年에 永興公普訓導로 赴任하엿다가 同十二年에 加平公普에 轉勤되어온이로 十四年을 하로와가티 同校의教壇에서 잇스니 新興치고도 人材가만흔 加平의 일꾼으로는그過半이氏의薰育을 바든분들이다 性品이 溫順從容하야 성내는빗치나 不快한表情을 죽이보지못햇다는 조흔評判을가진이다 氏는永高面出生 今年四十一歲이다 (寫眞은李成淑氏)

職務에充實한 永高面長 李漢璧氏

氏는 多年間永高面會計員으로 在勤하야 法規에 通曉할뿐아니라 面政에對한 經驗을쌋어 昭和八年 永高面長에 就任한以來 農村振興과 面의開發을 爲하야 圓滑한手腕과 熱烈한 誠力을 傾注하고잇다 그때문에 面의庶政이 一新하야 一郡의 好評을밧는다 氏는더욱이 面職員들을 [illegible] (寫眞은 李漢璧氏)

商界의最高權威 實業家 玄昇鎭氏

今日新興에서 大實業家를들라면 누구나엇시 異口同聲으로 玄昇鎭氏를말하게된다 氏는十八歲時부터家業을 세우기爲하야始作한商業이 그明敏한商術과 勇敢剛毅하고堅確忍耐의意志로 因하야 至今은 新興의財界와商界에 樞要한地位에 서게되엇고 다시그活動舞臺는 漸次擴大하야新興에局限치안코 多角的多方面으로 進出되며 一方鑛業에도 留意하여所持鑛區가 모다有望하다 한다 氏는頭腦가明晳하고 人品이 高潔한當年三十六歲의自手成家한 青年이라 그成功을博하기까지의 裡面에는 實로傳記的의 光彩를發하는事實이 許多할것이다 氏는修養이 [illegible] 常識이 豐富하고 政經에도 一家見을 가지고잇다하니압흐로의活動은一層注目된다 (寫眞은 玄昇鎭氏)

平元社會의重鎭 黃明瑢氏

千佛山公普校舍와 今春同校의 學級增加 學年延長運動에 率先巨金을 出捐하야 地方民에게範을 示한 黃明기氏는 元平社會의 重鎭이다 元平面協議員을數回歷任하야 面民을 爲하야努力도 不少하려니와 現在千佛山公普學務委員으로서 [illegible] 劉壽德(三)君의 今日의成功은 氏의 物質的援助와 [illegible]에 基因한것이라는 그것이다 人心이 野薄해가는 今日에잇서 [illegible] 氏는當年五十一歲의 天質이 [illegible] 意志가구든분이다 (寫眞은 黃明기氏)

運輸業界의王者 朝運取引店代表 柳昇赫氏

氏는 今年二十八歲의 青年活動家로 天性이 明朗하고 頭腦가 精密하야 一般의 嘱望을 一身에 集中하고잇다 中等校卒業後 일직이 面書記를단엿스나 鴻鵠이燕雀과벗하는格이라 것은 어지池中物이되고말라 龍이 이職業을 弊履가티 버리고 斷然히 몸을 實業界로 轉向하야 氏一流의 敏腕은 비로소發揮되엇다 現在 朝鮮運送株式會社咸南新興取引店代表로잇서 信用과 迅速을 主義로 斷然本郡運輸界의覇者가되엇다 朝鮮鑛業開發會社 明太洞鑛業所를爲始하야 咸興間의 大小貨物은 全혀 氏의貨物車를 通하야 비로소呑吐되니 氏는新興의『포-드』이다 祖業도잇서서 富名을 날리거니와 氏의活躍은 아프로一層重視된다 (寫眞은柳昇赫氏)

農振運動急先鋒 金元植氏

氏는 容貌가 魁偉하고 性格이 快活한 四十六歲의 壯年으로 누가보아도 豪傑임을 짐작할것이다 일직이 永高面書記로 勤務하야 面內事情에 精通하고 다음에 運輸業을 經營하다가 農村啓發을뜻하고 鄕里에 도라가 農振運動에 全力하는이다 昭和十年에 簡易校期成會를 組織하고 積極活動하야 今年에 簡易學校를 開設함에이르럿고 桑田組合을 創設하야 副業獎勵에도 斷然功勞者이니 氏는 實로 그地方의 恩人인同時에 農村啓發의 先覺者이다 (寫眞은 金元植氏)

佛教界의事業家 開心寺住持 許鑰氏

氏의法號는龍淵이니 青年期에 出家하야 佛門에 歸依한분이다 大本山歸州寺에서 五夏를安居成滿하고 大禪法階와 中德에昇階한이로 端川迦葉寺 東技寺의住持와歸州寺의 法務를 歷任하고 昭和十一年五月에 千佛山開心寺住持로된이다 性品이慈悲하고捨身法을實修로 佛化의普及에努力하야 開心寺住持就任以來 心田開發의佛教大講演會를 開催하야 佛教와 社會的進出을 圖謀하는 [illegible] 爲하야 늘努力하고 教育事業에도 關心을가지는 佛教界의事業家이다 氏는今年五十二歲이니압으로 [illegible] 期待할것이다 (寫眞은許鑰氏)

鑛業界의權威者 明太洞鑛業所長 金命鍊氏

氏는 京城人으로 일죽이 京城高等工業學校鑛山科를 卒業한 鑛山學界의 泰斗이다 昭和八年에 朝鮮鑛業開發株式會社에 入社하야 그縱橫自在한鑛山經營에 對한手腕은 곳會社當局에認定되어 一躍그社會經營의 明太洞鑛業所長으로 拔擢되어 現在에이른이다 性品이 活達仁厚하야 山戰水戰의 數十德大들과 數多한 鑛夫를 맛치 한家族가티 愛撫保護하야 心服케하고 다시 鑛山子弟의 教育을 爲한 金山學院을 陰으로 陽으로 發展식히는데 原動力이되이로 그地方文化發達上에도 功勞者이다 近間 그鑛山은 近代的電氣裝置와 最新의施設로 大擴張이되다니 氏의 產金報國의誠은 압흐로 그本舞臺를 向하야 邁進될것이다 (寫眞은 金命鍊氏)

(寫眞은 新興鐵工所와 林敬善氏(右) 朴喆會氏(左))

싱거-미싱分店 主任 劉萬鍾氏

싱거―[illegible]分店主任으로잇는 劉萬鍾氏는 [illegible]出生으로 當年三十一歲의 [illegible] 優秀한青年이다 [illegible]로잇다가 昭和八年에 싱가―」社入社 同十年에 新興分店主任으로昇任, 正直한 信用을 本位로하야 好評을밧는이다 이때문에 業績이 日日發展하여그前途가 자못洋洋하다 再昨年과 今年에 二回나 裁縫講習會를開催하야 洋裁縫文化普及에 盡力하는이다 (寫眞은 劉萬鍾氏)

豐上實業界巨匠 金瀅鳳氏

氏는今年三十七歲의 少壯實業家로 豐上面商業界의 巨星이다 [illegible] 米穀商과精米業을兼[illegible] 社會事業에 奉仕한 [illegible] 加平面大小事에는氏 [illegible] (寫眞은金瀅鳳氏)

青年教育事業家 李國模氏

學齡에達하야 就學코저하되收容하는 學校가不足하야 數多의 英才가 虛人되게 썩는오늘날 깁히 憂慮한바잇서 學級增加及學年延長의基金으로 넉넉지못한家產에서 一千圓의大金을 投擲하야 有産社會에 頂門一針을노흔이는 當年二十二歲의 丑丑한青年 李國模氏이다 西古川公普校는 氏의 이壯擧를 根據로 六千大金을 모앗고 學級, 學年의 增加運動이 本格化하여가니 氏의 義擧는 實로 社會의模範이다 氏는 昨年에 [illegible] 所를나와 滿洲國國務院地籍整理局에 勤務하다가 家庭上形便으로歸國하야 以來農村振興運動에 努力하는 稟性重厚한 中堅青年이다 (寫眞은 李國模氏)

新興의先覺者 劉衡國氏

氏는 加平出生 當年四十五歲의 少壯教育家로 氣骨이 壯大하고 性質이 沈毅하야 重厚長者의風이잇다 二十二年前 五星中學을 마친後 私立學校에서 教鞭을 잡으기도 잇섯고 일직이 農村啓發에 뜻을두어 鄕里鐵水里에 夜學校를 設立하고 樵夫牧童을 敎授하는同時에 農村生活改善을 꾀하엿다 夜學을繼續하기 十年間 百餘戶大村落에 一人의 文盲도업게된것은 模範的大事業

鐵工業界巨星 新興鐵工所主 林敬善氏

新興의 鐵工所中에서 第一流로自他가 共認하는것은 邑內中央通에잇는 林敬善氏(右)經營의 新興鐵工所이다 各色農具, 裝飾品等商品이俱備하며 鐵物이山積한데 現代科學을 利用하야 顧客의 要求에따라 隨時隨意로製作販賣하니 門前은 언제나저자를 이루고잇다 林氏는 어려서부터 鐵工業에 留意하야 咸興新興間여러곳 鐵工所에 勤務하야 工名을 날리든이다 開業한지 不過三年에 旭日昇天의勢로新興郡의 鐵工所의 王座를 點한것은當然한일일것이다 그우에外務朴喆會氏의 自在한手腕이縱橫으로活躍하니 이야말로龍에서날개가 돗친格이다

開墾事業의覇者 前加平面長 韓徵維氏

開墾事業으로 一躍大地主가되어咸興水利組合內에 無限의 沃畓을所有하고 開墾의 從業員과 小作人들을 指揮監督하면서 全心力을 쏘고 논둑을 거니는韓徵維氏는 曾經加平面長이엿든 鄕郡의重鎭이다 面長在職時부터産業發展에 專力하야 面政에貢獻한배만햇고 그後全혀 開墾事業에進出하야 그自由自在의 手腕은到處에서 大成功을 博得한幸運兒이다 加平公普의 學級增加時엔 拔群의 大金을喜捨하엿고 地方發展, 農村啓發, 窮民救濟等事業은氏가面長時代부터 主張하는것이다 벌서 厚德地主의聲望으로地方民의 稱頌이놉다 氏는當年五十一歲 郡民의 福利를爲하야 一層努力할것으로 期待된다 (寫眞은韓徵維氏)

理財界의手腕家 東上產組理事 韓奎炯氏

氏는永高面出生의 柔順多情한性格의所有者로 忍耐力과實行力이强하고 모든것을 自手自力으로하여가는 구든心柱를가진이다 氏의 이아름다운天品이 今日東上產業組合理事의 要職에잇서 그組合으로하여곰 全朝鮮百七產組中屈指의 模範組合을 만들게한것이다 더욱이 事物을觀察함에 緻密하고 深遠熟慮로 計畫을세우니 理財方面에 精通하다 氏는咸商出身으로 新興金組에도 勤務하엿고 操觚界에도活動하엿스며 昭和九年東上興業組合理事를 歷任하고 同十年그組合이 產業組合으로變更되자 그냥理事에 就任하야 今日에이른 當年三十五歲의前途洋洋한手腕家이다 (寫眞은韓奎炯氏)

新興社會의柱石 李遲鎬氏

新興의先覺者가 누구냐하면 李遲鎬氏이요 新興의指導者가누구냐하면 李遲鎬氏이다 氏는加平面陵里出生 今年知命의 고개를 넘은己丑生 有名한巨儒 故李基亨先生의令嗣로 嚴格한家庭에서훌륭한教訓도바덧거니와 天性이剛毅하고 儀表가嚴肅하야 先天的師表의資格을가젓고 堅固한志氣와卓越한識見으로서 三十年을하로와가티 後生의敎導와大衆의福利增進을爲하야 鞠躬盡瘁한그誠力그功勞에對하야 感謝를 [illegible] 리지안을수가업다 일직이漢城師範學校에단기다가 庚戌年에 中途退學한後 樂英學校, 咸興公普, 加平公普의教員과 元平學校의校長으로春風秋雨二十年間을勤續하야 教鞭을잡어서 咸新興에散在한弟子가數千名에 達하얏스며 教育外에항상民間疾苦와 農村弊風을 근심하야 或은帷幄에서리드하고 或은 前衛로나서 大活躍하얏나니 十餘年前數萬郡民이動員하야 水電會社와싸운것이 그一例이다 學校를나온後로新興支局長으로도 數年間勤務하면서 民益擁護에努力하얏다 그외로달닌조리와突起한鼻頭는威嚴과剛毅를表象하엿고 鐘소리가티 쨍쨍한音聲은直截果斷의 表象으로 氏의압에서는 누구나 畏敬을하게된다 그러나술이얼근하면 藝術을피운답시고눈을가늘고 길게올린後몸을 옴우리고 손곳가튼尖口를 左右로놀릴때는 抱腹絕倒치안코는못백인다 소경노릇[illegible] 엉어리방아使道大監에 氏의令季들이라면 諧謔도山川所關인지모르겟다 또特筆大書할것이엇스니 醉하면항상哭하기때문에 哭先生이란綽號까지어덧다 그哭하는理由는氏의說明이업스니 알길이업거니와 安德의哭일까요 阮籍의哭일까요 그것이아니라면 金梅月의哭일까요 아마도無限心事를哭으로푸는가배 朴燕岩의一大痛哭場이라는遼陽벌판에간다면 잘울어낼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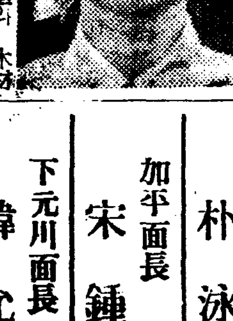
洪原海邊風雲兒 水產業 宋徽源氏

일죽이 教育界에 投身하야 二世敎導에 盡力하다가 方向을 [illegible] 가서 年産 萬圓以上의 鰯油工場을 經營하고 [illegible] 率先[illegible]하야 當地水產業界에 一大革命을 이르키고 海產業을大[illegible] 宋徽源氏는 當年三十六歲의 [illegible] 青年이다 [illegible] 海에 거치른 萬里滄波가 氏의 性格에 알마즈니 一方 茂信學校의設立者로잇서 公人으로도 重鎭이다 事理가 깁고 信用을 固守하며 社交에 能한이라 그將來엔 無限한 幸運이 빗칠것이다 (寫眞은 宋徽源氏)

模範面長 陳孝善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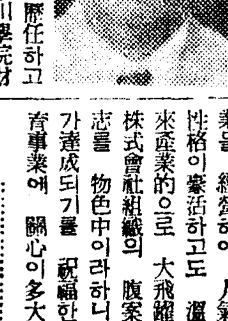
模範面長으로 面民의 絕對支持를밧고잇는 氏는當年三十八歲의 少壯活動家이다 일직이 教育界에投身하야 多數英才를 길너내어 郡廳에 勤務하야 行政의要諦를 體得하엿스니 氏가今日面長으로서 手腕을 [illegible] 게된것은벌서 當時부터 [illegible] 結晶일것이다 氏는 當面學校의 學年延長及學級增加를 爲하야 奮鬪하나머지 벌서 六千餘圓의 基金을 準備하엿다하니 氏의活動으로 그要望이 實現될날도 멀지아니하엿슬것이다 恒常 面勢擴張, 農村開發 때문에 寢食을이즌 現新的良面長이다 (寫眞은 陳孝善氏)

農村의中堅 朱相熙氏



氏는 今年三十七歲의 活動家로 그地方教育 產業等公共事業에獻身努力한배 不少하고 交際術이能하야 各方面을 通하야 好感을밧는이이다 일직이 [illegible] 咸興第三十七旅團長으로부터 感謝狀을바덧고 現在興南里區長 加平公普學父兄會幹部로잇서 農村啓發과 教育事業에 盡力하는이인데 한便木材業을 經營하야 經濟界에도 進出하는 中堅人物이다 (寫眞은 朱相熙氏)

商業經營廿三年 德興商店 金麗澤氏



弱冠에 故鄕을떠나 露領, 滿洲, 北海道等地方으로 轉轉放浪하다가 歐洲大戰을契機로 冒險的商業에서 興利歸鄕하야 東上面達阿里區長으로잇스면서 商, 農을兼營하다가 朝鮮水電이들어오자 店舖를 道安市에 移轉하고 會社相對로 機敏한商業에서 莫大한利를 본後 昭和八年에 現在居住하는 永高慶興市에 移轉하야 農, 商共히 大規模로 經營하는이가 當年四十一歲의 金麗澤氏이니 그사이, 東上面協議員을 歷任하고 現在永高消防副組頭, 永川學院財務, 米穀統制組合總代의職에잇서 當地發展上盡力하는이가氏이다 (寫眞은金麗澤氏)

多彩的活動家 李勗柱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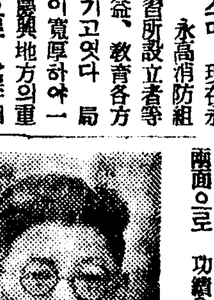
氏는 體軀가 壯大하야 一見大會社의 重役을 聯想하는 印象을끼치는이다 大正六年警察界에進出하야 模範警官으로 [illegible] 省의感謝狀을밧엇고 退職後木材商을 經營한일이잇스며 現在永高衛生組合副組合長 永川私設學術講習所設立者等의 要職에잇서 公益, 教育各方面으로 큰足跡을남기고잇다 局見이廣濶하며 天質이寬厚하야 一般의 推仰을밧는 慶興地方의重鎭, 本은西古川面人으로 當年四十三歲의 壯年活動家이다 (寫眞은 李勗柱氏)

木材業의權威 松興學院長 金振壽氏

氏는 江原道高城人 當年四十二歲의 壯年이나 性品이 柔順하고 風貌또한 俊秀하야 누가보던지 好人으로 알것이다 그우에 頭腦가 明敏하야 事業에失敗가업다 咸興營林署林木을 拂下하야 原木을 郡散賣하므로써 木材商界에 確乎한 地盤을 獲得하엿고 永高面滿興里에 黑鉛金鑛의 二鑛區를 所有한바 그品位가 良好하야 將來가 자못囑望되다한다 現在松興學院長으로 우리의 子女教育에 物心兩面으로 功績을 남기는 松興方面의 重鎭이다 (寫眞은 金振壽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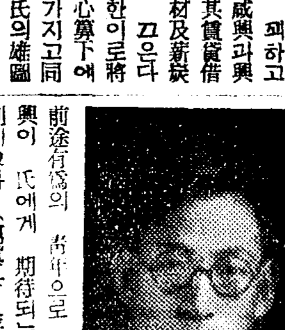
前途有爲한青年

千佛山診療所 金鶴植氏



金鶴植氏는 當年三十四歲의青年[illegible] 의地位를 [illegible] 明哲한것을 足히推察할것이다 氏는昭和二年에 朝鮮水電會社[illegible]診療所에 勤務하다가 지금은 朝鮮鑛業開發株式會社新興鑛業所醫務部로서 千佛山鑛山의 數千生命을 保護하야 名聲이 놉흔이다 特히 慈善心이 豐富하야 一般大衆에게는 加一層親切을 施하고 未貧한鑛夫에게는 同情을 施하야 刀圭界의 異彩로 好評이 藉藉하다 (寫眞은 金鶴植氏)

家屋建築業 金光鍾氏



金光鍾氏는 西古川面사람으로 將來가 囑望되는青年活動家이다 釜山高等海運學校와 京城普成高等普通學校를 卒業한後 鄕里에 도라오자 實業界進出을 꾀하고 土木事業에 着眼하야 咸興과興南間에서 家屋建築及 其賃貸借業을 經營하야 人氣를 끄으다 基地의 分割賣渡와 木材及新炭來產業的으로 大飛躍할心算下에 株式會社組織의 腹案을가지고同志를 物色中이라하니 氏의雄圖가達成되기를 祝禱한다 또한教育事業에 關心이多大하야 西古川公普의學級 學年增加運動에大金을 喜捨하고 그實現策에 對한 研究가 깁다고한다 아모튼前途有爲의 青年으로 多事한新興이 氏에게 期待되는바가 格別이크다 (寫眞은 金光鍾氏)

祝新興紹介版

社團法人 東上產業組合
事業 販賣(澱粉, 燕麥, 大麻, 馬鈴薯(ツルチユク), 其他) 購買(粟, 石油, 大豆, 食料品各種, 染料, 綿絲布, 織物, 器具, 肥料, 其他)
北鐵高原新興線元豐驛前 咸南特產品 澱粉取得業者
振替口座京城八一二六九番 電略 トサ

新興郡農會
新興相和會

社團法人 新興產業組合 咸南新興郡邑內
特產品年產 麻布—四千五百疋 價格二萬餘圓 木炭—四萬餘俵 價格二萬二千餘圓

元平面長下里 朴長英
東上面長 韓永麟
元平面長 朴榮芳
加平面豐里 李和彬
咸興府內 無名氏
東古川面長 朴泳鵬
加平面長 宋鍾德
下元川面長 韓允喆
東古川面中興里 申錫天
私立東成學校

世界教育會議印象座談會 (中)

大會의根本意義와그成果

第七回世界敎育會議는 지난八月一日부터 東京帝國大學 大講堂에서 열엿는데 內外國敎育者 三千餘名이 一堂에 모히여 總會와 分科會로 各各討論과 報告를해서 歷史的大盛況을 이루엇는바 本社東京支局에서는 이會議에 參加한 우리 敎育者들 따로 招待해서 大會의 印象과 討論內容을드러 讀者에게 傳達하려고 지난 四日午後一時 東京市內 佳風莊에서 座談會를 열엇는데 出席하신분의 氏名은 다음과갓다

出席者氏名

延禧專門學校商科科長 李順鐸氏
東京中央大學講師 全奎弘氏
延禧專門學校敎授 崔淳周氏
【本社側】 東京支局長 申泰翊 同記者 金碩淳

申東京支局長 大學專門部會에서 이번에 特別히決議한事項은업섯습니까

李順鐸氏 大學專門部에서 이번에特別히決定한事項으로는 國際的協力과 平和를圖謀하는데서 今後부터는 各國學者의交換, 學生의交換과 機關紙發行에對한 部署를새로히決定하얏습니다

申東京支局長 全先生께서 이번 會議에對한 特別히느낀바感想이잇스면 말슴하야주시면 조켓습니다

全奎弘氏 지금李先生이말슴하섯스니 大體로 印象은가젓습지오 大權威者가 적은것을遺憾으로생각하는것은 一般의共通的空氣인듯합니다 그러나大部分의 目的은 日本의姿態를 外國敎育者에게 認識시키며 同時에世界相互連絡, 世界敎育事業의國際的協力에 잇스니까 이번會議는 十分의 成果를어드리라고생각됩니다

申東京支局長 이번은三十九個國敎育者三千餘名이모혓스니까特色잇는 敎育報告도만허겟지요

崔淳周氏 外國敎育者의 準備가 잘안되여그런지는 모르겟지만 權威的報告가 全然업습니다 提案, 即다시말하면 方法論을採擇치안는만큼 權威잇는 報告는잇슬줄로 알엇는데 그것도 업스니 매우寂寂한 感이잇드군요

申東京支局長 各國學者中에서로 色彩다른潮流的敎育論이업섯습니까

全奎弘氏 獨逸介프랑가博士와米國몬로博士와 論旨가서로 相反됩니다 獨逸介프랑가博士의말에 依하면敎育은 絶對로그時代의 政治的從屬을 要求하지만 米國몬로博士의 말은學院의絶對自由 即 다시말하면 政府의干涉과 敎會의 干涉을 絶對排擊한다는것입니다 몬로博士는 敎授의思想은 時局的, 政治的批判을 絶對로하지말라는것입니다

申東京支局長 成人敎育部에서는 各國代表로부터 滋味잇는報告도잇섯겟지오

李順鐸氏 比律賓代表의말이잇섯는데 滋味잇습디다 그의말은比律賓은 지금成人敎育程度가全人口의 三〇%에不過하다고하면서 日本의成人敎育九九、八%에比하면 너무大差가잇스니 各國代表는 우리比律賓成人敎育에 만흔努力을하여달라고하니까 印度代表가 이러스더니 그러면 그成人敎育의現在以上의必要는 完全히 獨立한뒤에 必要한가 그러치안흐면 지금도必要한가 하고 質問햇는데 比律賓代表말이 獨立後에도必要하지만 現在도 大端히必要하다고합디다 이런말은 아주 正直하게協力을 付託하는點으로보든지 아주滋味잇는데요 또 가튼比律賓代表中 二十도채못되여보이는 女子가 成人敎育의 對策如何를 質問하니까 스콧트란드代表가『모저職業을주라』고 對答하든等 모두滋味잇섯습니다 (寫眞은 各國代表)

錬金楷

報告文學의待望

栢木兒

우리가 映畵劇場에서『뉴ー스』를 자미스럽게보게되는 그것이 映畵로서의 內容보다도 그眞實性에 興味을 늣기는것이다。 그럼으로 文學에잇서서는 이 眞實性을 報告文學에서 차저내는 것이 當然한 順序일것이며 報告文學이우리 文壇에서 問題가 되어야할것도 여기에 理由한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果然한 個의報告文學이 產出되엿는가?『안드레·말로ー』의『熱風』이나『상·텍쥐베리』의『夜間飛行』가튼 世界的傑作은 아무런보수가 업다하드래도 무엇이나 한가지 나올때가 되엿드라하다 偉大한 文學作品은 偉大한 背景이 必須條件이라면 그 偉大한것을 우리文壇은 새로히 發掘할 必要는업을가? 大羅馬帝國의 隆盛만이 偉大한 背景이안이고『폼베이』의 最後의날도 또한 버리지못할事實이아닌가? 이것을 全面的으로 그리지못할 不幸이 우리들에게 잇다고하면 어느一面이라도 試驗해볼수가 잇지안흘가? 最近 무슨高原이니 무슨海水浴場이니하면서 現場에서 보내는 報告를 하기는하나 거기에서文學的內容을찻즈려면하직도 먼것갓다。 낫도코ㄱ字도 모르는사람은 그것을 본대자 무슨興味를 늣길수도 업것고 글字나 아는사람이야 消日以外에 무엇을 어덧것인가? 우리가 여기서생각해볼것은 엇든『카메라·멘』이 한個의 焦點(어떤 旅行地)을찾으면 그곳에起伏되는 現象이 매우자미스러웟슴에 낫하날것이다。 그것은 機械라는 條件을 通해서 되는 것이고 無理하게 筆者의固執한 내(我)라는것이 나오지안는까닭이다, 報告文學을 쓰려거든 먼저 내라는것을업새라 그리고 現實을보여다고

健康의退潮

—文學閑談中에서— (下)

安含光

벌서 달포가량이나 그가 마지하는 아침은 한여시 우울하다。 이 우울이 시작되기비롯한 하달전—유월초순경의 어떤날아침 여행으로부터 도라온 박경호는 가라입으라고 안해가내여놋는 의복도 그대로두고 넥타이까지 맨채로 펄석 아렛목에 다리를뻐치고안저서 담배를피우고 잇섯다。 면목음 빽금빽금 빨어보다가 그는 아직 절반도타지안흔 담배를 재터리속에 부비어 꼿고 차깐에서 감기가들엇나하고 종이를내어 코를푸럿다。 풀고난뒤에도 콧속은 근질근질하다。 정녕 감기에 걸렷다고생각하면서도 그의마음은 한여시 초조하다。 머리가 어지럽고 입안이 말러오는것갓다。 그러다고생각하여서인지 이마에 땀이쪽내밸린다。 그는 제팔목을잡고 맥을보앗다。 맥박은 별로 빠른것갓지안타。 안해가 들어와서『진지상을 그럼커ー바드실려우』하고 말하는것을듯엇스나 그때는 벌서 경호의 생각이 한개의불길한예감을 부뜨럿슬때엿다。

『아니 웨이러시우。 어데몸이 재신가。』

경호의 아페 무릎을꿀코 안는 경호의 얼골을 들여다본다 안해

『아이구 이땀、또배가아프시우 시골가서 또 술을잡수신게지어 떠키나。 약하신데자주그러시믄』

경호는 아모말도안하고 바른 손을내미럿다。 손을좀 만저달라는줄 알엇든지 안해는 집고잇든 두손으로 경호의손을 보듬엇스나 그의손은 선깨럴듯이 푸들거리며 안해의 흰손가락을떠러버린다。

『무엘? 무얼말이야?』

그때서야 경호는 시끄러운듯이

『거울』하고 입울연다。 안해는 자기의귀를 의심하듯키

『거울?』

하고 재처물엇스나 곳일어나서 웃목책상우에 노힌 손거울을들고 왓다。 경호는 거울을들고 그의 얼골을 그속에서 차젓다。 여니때가트면 머리카락을보고 눈썹을 찌푸린뒤엔 얼골을 비스듬이돌리면서 수염이며 입술우에지저분한 나룻을 살펴볼터인데 시방경호는 거울속에서 두개의눈동자만을 들여다보고잇다 눈동자가 그전보다 적어젓는가 혹은 커젓는가—아모리 두려지게 파고들어보아도 죠금치 분간할수는업스나 어쩌지 작고만 적어진것가티 보인다。 갑작이 손이부르르떨려온다。 그는혈석 거울을 노코 맥업시 바람벽에기대엇다

안해는 남편의하는짓을 물끄럼이 처다보고잇다가 거울을 뜻는바람에 정신을 차렷는지 불숙이러서서 밧그로나가라한다。 시골가서 친구들과 어울려 술잔을 과도히한탓에 반년동안이나 정성들다하야 고처노앗든남편의 위괴양(胃潰瘍)이 되진줄로 짐작한것이엇다。 그러타면 위선불돌을가지고 마늘찜이래도 해보아야될것을 생각해본것이다。 그러나 경호는 손을쎌레내저엇다。

『여보 요나좀까려주。 배아픈게 아니야。』

『아니긴 머아니얘요。 갑주면누가 모른다우。 사내들은 어째채 심들것하노。 술이라면 그만사지를 못펴니。』

『잔소리말구 어서 자리나까러라。 봇흥은 아니란데 공연한잔말이야。』

성을벌컥 내보앗스나 시골서 술울먹고 위괴양이 재발하야한 주일동안 치료를하고 온것도사실이잇스므로 다시 그는어성을 나추엇다。

—(了)—

水國의清淨世界

—正法眼藏의最高聖典— ⑩

李殷相

우리一行은 이섬의主人이신始祖三神께 禮拜를 마치고 서海女길로 가 바다로 나려 바닷가로 나왓다。 바다! 바다! 다! 보아도바다뿐이여기! 부드치는 물결! 꺼어지는 波濤소리!! 壯嚴한潮水의 無窮한行進! 水平線우에 떠도는 구름과 구름! 몸차며 나르는 悠悠한 갈매기! 밧겨누워 쓰살가티달리는 白帆! 香氣를먹음고 불어오는 萬里의 長風! 이것이水國의 驚異 水國의風情이다。

말로만듯고 그림으로만보든그 海女들을 極度의 興味를 가진것두가 만나려는 우리는모이다。 그러나 나는 海女를기다리는동안 먼저 茫茫한 大海를 바라보며 瑠璃水晶의淸淨世界에 默讚과 感嘆를보내지 안흘수가 업는것이다

億千萬劫의 過去가 이 기픈바다속에 끝길업는 沈默으로 잠기엇고 永遠無窮한 未來가 저 아득한 水平線우에서 남모르는 秘密의출을 추지 안는냐。 翡翠玉보다도 더파란 바다우에 歡想 幻想 空想 狂想의물기둥이 聚光으로 金色으로 五彩로 七彩로、혹은 곤두서고 혹은가로눕고 또혹은 우뚝하고 또 혹은 흩들려서 瑤瑤의 祕境을 여기잠간열어 노흔듯하다。

一秒一刻도 休息과 凝滯를 가지지안흔 저 물결의世界! 작은 돌에 부닷는 작은물결, 큰바위에 다닥드리는 큰물결이 작은채로 큰채로 저마다 딴소리 제각금다른빗으로 귀와눈을 흘들고 댕기고 쥐고 뻬기고하야 恍惚한 景觀에 醉하다못해 지치게하는 이 꼿업는 神秘의바다! 자세히보자 똑똑히듯자、이 最大最高의眞理 至玄至妙의 消息을。

『어린네가 알겟느냐』하는듯한 저眞理의목소리가 들리는瞬間 다시어디로선지 『어린네게도 알려주노라』하는 듯한 저消息의 한끝트머리가 傳해질때에 나는 부채살펴듯 가슴을 限업시헤치고 歡喜와感激의 노래를 부르며 아프로 내닷고십다。

尺寸의 좁은가슴으로 滄茫한 大海와 마주서려하매 어찔수업시 터지고 깨어저서 半生의 怨恨과 苦悶이 한꺼번에 쏘다저 滄波우에 鮮血을 뿌리는 것이다。

그리고서 뷘가슴으로 大宇宙의 眞理와 消息아페 나아와선것이다。

물결! 물결! 그밧게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아니하는 곳업는바다! 一刹의 圓融속을 바라보다가 제눈마저 그 圓融속에 무처버리는瞬間 나는 三千大千世界微塵數偈의上本華嚴을 몸동이로 읽는수바게업는것이다。

발고테 밟히는 조개껍질과 모래알! 코로들어오는 물결의 香氣! 옷자락을 적시는 바다의潮風! 손가락으로 가리치는 帆船, 구름, 갈매기, 그리고 깨어지는泡沫!

어느것이 神理가아니며 어느것이 妙詮이 아니냐。 이대로 如是法이며 이대로如是說이니, 한마디 말도업고 한줄의글도 적지안헛스되 이直指妙示야말로 正法眼藏의 最高聖典이아니고 무엇이겟느냐。 이偉大한顯現 이거룩한垂示 宇宙의 眞諦妙機를 웅킈이는活經典으로 읽으라 하심이어니와 나는 더욱分明히 無常迅速의 法則과 그속에 고여잇는『사랑』의大因緣을 깨닷는것이다

아춤저녁 끗업는潮水
저구름 저갈매기
기픈 물속에
큰고기 적은고기
어울려 사랑의因緣
나도그속에 들엇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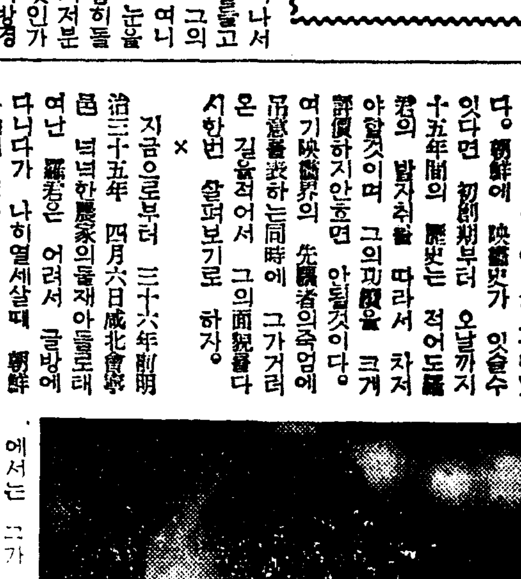
(寫眞 濟州島의海景)

羅雲奎一代記 ①

朝鮮에 活動寫眞이 드러와서 그것이 비로소映畵라는 新形態로 낫타날때부터 이날까지 그映畵와함께 苦難의길을것고잇던 朝鮮映畵界의先驅者 春史羅雲奎君은 三十六歲의 앗가운나이와 아직도 마음으로 장라지못하는"朝鮮映畵"의 큰將來를남겨노코 지난八月九日새벽에 世上을떠낫다。 朝鮮에 映畵란것이 잇슴수잇다면 初創期부터 오날까지 十五年間의 歷史는 적어도羅君의 발자취를 따라서 차저야할것이며 그의功績을 크게 評價하지안흐면 안될것이다。 여기映畵界의 先驅者의죽엄에 弔意를表하는同時에 그가거러온 길을적어서 그의面貌를다시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

지금으로부터 三十六年前明治三十五年 四月六日 咸北會寧邑 넉넉한農家의둘재아들로태여난 羅君은 어려서 글방에다니다가 나히열세살때 各地에 처음으로 普通學校가 생기고 新敎育이高潮될때 그곳普通學校에를 다니고 열일곱살때 間島明東中學에 드러갓다 그後서울로 올리와서 中東學校에 드러갓슬때가 스물두살이엿섯다 이때에는 벌서 朝鮮에도 映畵라는것이 上映되어서 劇的興奮을 가지고 꿈이만은 中學生의 靑年의 未知世界映畵의 나라가 궁궁하며 憧憬의 나라이기도하얏다 그리하야 그는 中東學校에서 다시 上級學校의 受驗準備를 爲하야 高等豫備學校로 옴겻슬때 故鄕에서는 그가 ……月과 九月에 ……의 父母가 俱沒하고말엇다。 그의 以前부터 이方面에 나가는것을 反對하던 父母가 世上을 떠나자 그는 兄님의 反對도 물리치고 그만 學校를 버리고 冊과 이불을 동모들에게 노나준다음 學資온것을 가지고 釜山을나려갓다。 그때釜山에는 朝鮮最初의映畵企業會社인 朝鮮키네마라는것이 組織되엿슬때엿다 이곳에서俳優를 採用하게되엿는데 志願者는 두사람 羅春史君外에 會社員한사람이엿섯다 이가운데서 한사람을 採用하는 試驗이잇섯는데 미리부터 이方面의知識을 어지간히 準備해가지고잇던터이라 엇사리 파스하엿다。



그리하야 그가맨처음으로出演한것이 尹白南 原作安鍾和監督으로『海의 悲曲』이라는 映畵엿다 …… 李慶孫 …… 에『雲英傳』이 製作되며『神의粧』이란것이 製作되여서 모다 그가出演하엿는데 그다지 評이 조흔것이 안이엿다。 그리고『神의粧』이란것은 水平社를 取材한것이라하야 朝鮮映畵最初의檢閱不通過作으로 드디어 封切되지못하엿섯다。

그가스물네살때 朝鮮키네마가 꺼여지고 서울에 尹白南푸로덕순이되엿섯다 거기에서『沈淸傳』에 出演하고 다시 이푸로덕순이 解散되자 羅林映畵社가 羅一鷹의主幹으로組織되엿섯다。 이羅林映畵社에서『長恨夢』을만드른後 이상한 問題가 이러나서 尹逢春等과 함께 스트라이크를하야섯다 그리하야 도라가 서울고잇다가 淀虎藏이란사람의中心으로 朝鮮키네마가 다시서울에 創立되여서『籠中鳥』를 만드럿는데 이때그의나히 二十五歲엿섯다 여기서 늘平素부터 自己손으로 準備하여 오던作品이 잇섯스니 그것이 有名한『아리랑』이엿섯다

아리랑은 原作脚色監督主演을 全部自己가하엿는데 여기서人氣는 一躍하야 羅雲奎의 일홈이 알니워젓섯다 아리랑의 主題歌가 朝鮮의 坊坊谷谷은勿論 멀리東京等地에까지 여러사람의입에서 불리워지도록 되엿섯다

여기에서 기운을어든그는다시風雲兒를 만드럿스니 이해에는 自己손으로 세個의作品을 世上에 내여노앗다。 그리하야그다음해 "들쥐" "금붕어"等을 …… 고甲一仙 金蓮實 朱三孫等當時에 그의손으로 出世를시켯스며 朝鮮映畵의 初創期를 꾸미엿섯다。

(사진은 羅雲奎)

歐米여름趣味 ⑥

太陽에굶주린 英國의여름

—부라이톤·피어ー의夜景—

在런던 田澤男

大英帝國의 首都런던에서는 鋪道에 人影이빗칠만한조흔天氣는 九月로부터 翌年의四月까지는 헤아려도 헤아릴만큼 몃칠안된다 相當히 天氣가조타는날에도 안개와구름에막혀서 萬像陰鬱을極하므로 朝鮮사람으로는 想像도할수업슬것이다 이러케 不健康한 季節도 三月初부터 四月上旬에 亘하야 開催되는 이ー스타ー祭때부터 漸漸解放되여 五月이되면 淸楚한 라이락꼿이 一齊히되기시작한다 그리하야 七月에는 들과山이 모다꼿으로덥힌다 그리하야 英國特有의 綠色잔디와 조흔調和를 이루어서 런던의 여름은 화이트선데이에 부주할때가 最高潮다 이祭日은 朝鮮의 端午에相當하는것으로서 짜라라ー만은 三日의休暇를 利用하야 부라이톤, 이ー스트만等의海岸에나가서, 水泳에딴스에、뱃노리에집겨서 여름을享樂하므로商人들에게는 文字그대로一年中第一閑散할때다。

런던等地는 六月중순께부터가 第一날이길고 아침은세時에 벌서날이밝고밤은 아홉시半쯤되여서도 讀書할수잇도록밝다。 더욱四月末日부터 八月한달까지는 時計는여덜時가 일곱時로 한時間式밧구어올려서 낫이길기를習할수업다。 그러나英國人에게는 그다지길게생각하지안는理由가잇다。 英國에서는天候가 조타는씨ー슨이라하면 겨우 六、七、八月의三個月로 九月初旬부터는 벌서엄重한안개가 끼이기始作하므로 이三個月의 季節에 對한愛情은全英國人은 이三個月間에 다른九個月의 保健工作을 十二分으로行하지안흐면 안된다는 功利心을 極히 自然으로 强要되고잇스므로 밤은一日의 四分의一이라할지라도 낫으로만 조흐도말하지안흔 環境에 處해잇다。

『太陽을보는列車』라만 말해서는 朝鮮사람에게는 무엇인지모르다。 이것도 또한 不均衡한氣候에 配置가 身體에미치는 惡影響의緩和手段으로서 생각난것으로 이列車는 一年을通하야 運轉되며 太陽의 光線을 그리워하는런던人에게 週末을利用하야 마음대로맛볼수잇게하기 爲하야 太陽이빗나는 시골까지運轉되고 잇는것이다 大槪샤라리맨은 적어도一個月에한번은 假令日用品을 節約하야서도 이列車의손님이 되지안흐면 그달의健康은 自信이업는 것처럼 자라난듯하다。

英國人은 또週末旅行의徹底的讚美者다 爲先政財界의 大立物이模範을보이고 맥드날드와가튼 勞働黨의領袖까지가 金曜日의午後에는 업는몸일을맛치고 飛行機로 런던에서約四百哩이나 떠러진 스콧트랜드ー二千尺의 高原에잇는 롯씨ー·마우스의 故鄉에 날너가며 그라우스(뇌과가튼새)산양에政務를 이저버린다。 이點 勞働者도 貴族과 富者와가 아니고 假令 …리 空中旅行은 될수업다하더라도 動搖는 多少 激烈하더라도 自家用의 自動車에 캠프道具를실코 부라이톤의 海岸에 家族團欒의 드라이브의 醍醐味는맛보고잇는것이다 대체 英國은 어떠한 시골에 가던지 道路는 驚異的으로 完備되엿스며 이兩側에 길너잇는 잔듸가 아름다운 起伏을 짓고 잇다 外國人旅行者에게『英國은 어듸를 가던지 조용히 쉴수잇는 公園이다』하고 感嘆시키고잇는데 이것은 決코 거짓말이아니다 그리고 到處에 뭇(共有地)이 整然히 準備되여 잇스므로 아모 苦痛도업고 캠프가 치여질수잇다 더욱이 一週間이나 十日 캠프生活을 한者라도 뒤에는 慾屑하나 안남기고 傷해진잔듸는 반듯이 修繕해두는 公德心의 涵養은우리들이 想像도할수업슬만큼 發達되여잇다。

鐵夏物로 特筆할것은 무엇이 엇더니하야도 피어ー다 이것은 棧橋와가튼 海上에 一哩이나뻐出한것으로 幅은 三十米이라는 堂室한 鐵骨로되여잇서서 이피어ー의 建物內에는 딴스홀, 레스트란, 喫茶店, 부링(불구울리는데)보ー트、아차ー드(弓의一種) 水泳、낙시질、水族館、어린이의 遊戲場等으로大衆의 娛樂機關이라것은 무엇이던지 設備되여五月頃으로부터 九月까지 열이여잇는데 莫大한 費用이 드므로 大槪市營으로되여잇다 부라이튼 海濱에는 이 피어가 세個나設置되여서 그收容人員은 實로三萬人이라고한다 五色의네온싸인과 多彩한 이르미네이슌에 全館이 눈이황홀한 피어ー의夜景 瀟洒는 정말꿈에보는 龍宮의再現으로 英國의勤勞階級에게 親해저잇다 (此項續)

라듸오

十日 (火曜)

◇午後六時三〇分 여름放學라듸오遊戲(三)全國中繼ー(夏休라듸오體操)
◇同六時四〇分 라듸오少年小說 "友情" 李亨稙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夏期라듸오大學 法律 損害賠償問題에對하야 尹元上
◇同八時 趣味講演 各道山水이야기 車相瓚
◇同八時三十分(京平) 水十夜ー全國中繼ー(國語)(京城)平耳溪谷의물소리 (平壤)大同江上에議斷을듯우고
◇同八時四十分 京平納凉릴레ー 一京城平耳溪谷으로부터中繼ー 一平壤大同江으로부터中繼ー
◇同九時 모던才談 一、世界雜談 二、八道雜談 音樂 [illegible]

十一日【水曜】

◇午前一一時一五分 復習時間
◇同六時三〇分 ……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夏期라듸오大學 文藝篇『戰後의赤誠』 大竹十郎
◇同八時 講演 內務局長 ……
◇同八時三十分 流行歌 ……
京城음레코ー드콘사ー트 …… 五、行進曲『常勝軍』

十二日 (木曜)

◇午前一一時一五分 復習時間
◇午後〇時〇五分(東) 木曜音樂
◇同六時三〇分(平) 夏休라듸오
◇同六時四〇分 播音音樂 ……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夏期라듸오大學『自然科學篇』 沈亨弼
◇同八時(第二回) 更生農家體驗談 ……
◇同八時三〇分 歌詞 ……
◇同八時五〇分 新民謠 ……
◇同九時一〇分 古談『봉나만산』 崔汝成

살결을본바탕부터 곱고히게만드는

하로에두번三四分치로로 근본적치로가되는 新家庭美顔療法

자태와 가정에와 모성에에 넘치는 매력을 가정의 평화를위하야 보존식히려는 분 『보통하시는 화장(분·물분·크림 종류)로는 일시적임으로 살결본바탕은 조금도 회복되지안는까닭에 거처러진 살결·빗갈이검은것·죽은깨·버짐·점점 심해가는 잔주름살을 업새고 분바장을 안코라도 근본적화장이 되기위하야……

처녀시대 명랑한 신녀성의활기와 청춘의꿈을 어여쁜 얼굴에서 찾도록 하시려는분 자기만이 가지고잇는 어여쁜 특증을 깨닷지못하시고 남이한다고 가루화장을 하시나 이런애시절에 가정은 히고 어여쁘든 살결을 오날날에는 일고 여드름, 버짐, 기름끼끄른 얼골로된때문에 생기는번민을 해결키위하야

가정부인 시부모 남편시중과 살님사리에 골몰하시는사이에 녀성만이 기질수잇는 어여쁜 ……

직업부인 직업상 하는수업시 분바름을 하시게 되기때문에 얼굴은 분에 결거되야 빗갈이 검고 연독(鉛毒)으로말미아마 얼굴에는 무어이 모도생기고 피부영양이 낡빠진까닭에 파래가는 회색 매력을 다시차즈며 연독을업세고 일허버렷든우슴을 도로 차지시려는분

남자제씨 로는 美容的立場보다도 皮膚營養 차로써 美白消菌作用으로써 꼭必要하나니 여드름·햇빗에거른데·개기름흡흠은데 고통을 늣기시는분들은 두말업시 이 온洗顏크림으로 치료하시면 단시일에근치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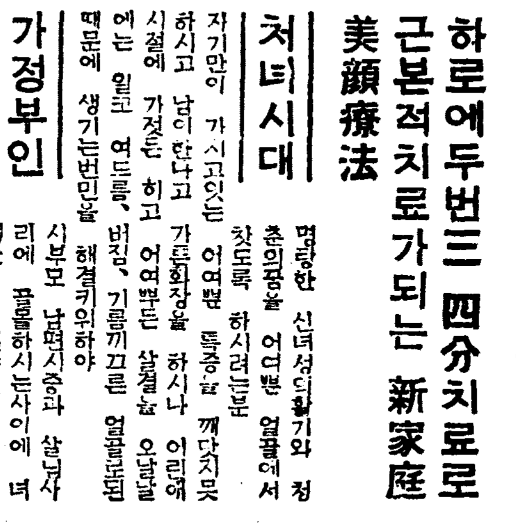
활성상태(活性狀態)의 고로이도硫黃을 보유(保有)한 强力美白素『레온세안크림』은 미백살균(美白殺菌) 작용이 강렬함으로 자택에서 아무염려업시 간단히사용하야 단시일안에 살결이곱고 빗갈이히게되며 여드름 죽은깨 버짐 개기름 흙으든것이 업서저서 어여뻐집니다 일허버린 靑春을 한탄하시는분은 조곰도주저마시고 곳치로하시사 根治의기쁨을 어더주십시요

—정가—普通瓶 一圓四十錢、德用瓶 三圓四十錢 전도유명한 약방 화장품점에서 판매합니다 마는 매절될때에는 송료 삽십전을 선송하시면 대금인환으로도송약해드립니다

무대진정 청구하시는대로 조선국문으로 쓴『산가정미안료법』을 어느분에게든지거저드립니다

專賣特許·活性고로이도硫黃保有

레온세안크림



東京市神田區小川町西三丁目
株式會社 レオン商會
振替東京八八一一番

中部版

江原道에犯罪激增 半年에六千五百件
發生件數는減、犯罪人員은增 詐欺、橫領、賭博이依然最多

【春川】문화수준이 높아감을따라 가지각색의 범죄가 발생하는데 강원도(江原道)의 금년상반기 범죄건수를 조사한바에의하면 형법범죄발생건수(刑法犯罪發生件數)가 사천사백팔십구건으로 검거건수(檢擧件數)가 사천이백육십삼건인바 작년동기에 비하면 일백십오건의 증가를보게되엿스며 특별범수(特別犯數)는 이천이백칠십칠건으로 작년동기에비하면 삼백오십사건의감소를보게되여 육천오백사십건인데 형법죄중에는 사기(詐欺)횡령(橫領) 도박(賭博)등이수위를 점령하고특별범중에는자전거취체규측위반(自轉車取締規則違反)이 수위를 점령하고잇는데 춘추세로보면 범죄건수는 비교적감소되나 범죄인원수는 여전히증가하고잇는현상이다

本報支局後援 仁川軟式野球
第一日은盛況

【仁川】인천체육회주최와 본보인천지국후원의 인천연식야구대회는 예정과가티 지난팔일오전구시부터 장엄한입장식을 비롯하야 경기는거행되엿는바 당일은준결승까지맛치고 결승전으로 넘어지게되엿는데 일로정하얏다 전적은다음과가트나『게임』중에 노련(老練)한 제물포(濟物浦)군과 변소한소장들로만이조직된 한용(漢勇)군과의 열전은 실로회까지 연장하야 관중을취여광케한 남어지에 기적적으로 한용군이 승리하얏다

第一回戰

野口商會2A—1米檣
天一釀造11A—2朝燐
濟物浦5—2朝取

準決勝戰

天一釀造3A—0野口商會
漢勇10—3濟物浦

蘇萊에도獻金遝至

【蘇萊】지난六일까지 소래경찰관주재소(蘇萊警察官駐在所)에기탁한 헌금과 그씨명은다음과갓다

蛇川振興會金十七圓十錢 秀山里金 月浦二十圓 梅湖里振興會十八圓二十五錢 下佳月振興會七圓四十錢 蘇花里 李圭訖 十圓外二十六圓 累計一百四十五圓 (八月六日現在) 그리고 소래면사무소(蘇萊面)에 기탁한 금액도상당하여원이라한다

仁川에또生阿片
吐瀉病靈藥으로密賣 頻繁히發見、警察은嚴重取締

【仁川】수일전 인천부내화평정에서 복룡을일으킨자가자식에게 아편을 먹이엿든것이 분량이초과하야 오사하엿다함은 기보한바와 갓거니와 이사건이잇슨이래 인천서에서는 아편취체를더욱심하게 하고잇든바 지난팔일또다시 동정근방에서 생아편을다량으로 휴대하고잇는 리모(李某)(三○)을인치하고 방금그출처를조사중이라는데 여름철에 빈발하는 토사병으로 고민하는민중에게 영약(靈藥)이라고하야 매매하는 번수가 빈번하다하야 더욱더 취체를 혹심히하고자 엄중조사중이라한다

春川에獻金遝至

【春川】금번북지사변에 큰충동을바더 각게에서 의연금을헌납하는이가 속출하는데 그간춘천읍사무소를통하여 헌납한총액이 일천백팔십칠원오십전인데 (칠일현재)동일, 칠일양일간 헌납한자를들면 다음과갓다

十五圓 春川稅務署員一同 十圓五錢 森町一丁目 二十圓 日中定道 十圓 大和屋店員一同

嬰兒壓殺犯送局

【金浦】김포군 군내면걸포리(郡內面傑浦里) 삼백팔십삼번지 윤도야지(尹道也地)의 내연처최점백(崔點白)(二)은 수월전부터전 기유과우연한 기회에 동거하게되자 얼마도아니되여 아해를낫스나 여러가지의 창피한생각으로 동거자인 유과공모한후 그영아를 죽서에서 압살시킨사실이탄노되여 김포경찰서에 검거취조중이든바 그가취조를 마치고지난 구일에일건 서류와함께 인천지청 검사국으로 송치하엿다한다

國防婦人會發會式

【坡州】시국의중대성에감하야광탄면에서는 지난사일광탄면공보교강당에서 국방부인회광탄면분회(國防婦人會 坡州郡支部廣灘面分會)를창립하고 발회식을거행하엿는데 출석회원이 여명과 내빈삼십여명이모이여 성황리에 발회식을맛치고 끄트로다과회가 잇슨후 산회하엿다한다 (사진은발회식광경)

金村서도獻金

【金村】지난이십팔일파주아동경찰관주재소최기호순사(坡州衙洞警察官駐在所崔基浩巡査)를 차저와용소병사에게나누워달라고사이다일백병을 기부한 농촌부인이 잇다 그는본군 교하면하지석리(交河面下支石里) 윤홍종(尹鴻鍾)씨부인 서마래(徐馬來)씨로 금조여율통과하는부대를보고 느낀바잇서 그리하엿다 한다 그리고 그외에도 다음과가튼헌금이잇섯다

交河面舊地里婦人會二圓 新洞面金村里新村洞振興會手巾十打 衙洞面金村里李時榮사이다三百本

議政府在留支那人 二十四圓을獻金
萬全의保護를感謝

【楊州】의정부(議政府)재류중국인들은 지난칠일 양주경찰서를 차저와서 국방헌금으로 이십사원을 전하야달라고 부탁하얏는바 이번모국(母國)의 풍운이 급함을따라 일본경찰의 보호가 적절할뿐더러 이번통주(通州)사변으로 불상사가 돌발함에 더욱보호를 엄중히하야 일층보호에 전력을다함에 이에재류중국인들은 감격에 넘치여이와가티약소하나마 국방에보태여달라는의미로 두고갓다는데 양주경찰서에서도 중국인의 열성에감격하야 곳군부에전달하기로하얏다

城東中學校의 一期工事完了

【京南】성동중학(城東中學)신교사를 부내행당정(杏堂町)에청부업동아공업주식회사(東亞工業株式會社)에서 이십만원 공비로 작년시월부터 공사를 하여오든중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여금팔월중에 제일기 공사만 끗을맛치고 오는이학기부터는 새교사에서 공부를 시작하리라하며 남은제이기공사는 내년삼월까지완성되며 내년신학기부터는 역시신교사에서 수업하리라한다

京畿道甘蔗知事 仁川地方初巡視

【仁川】감자(甘蔗)경기도지사는 신임한이래 지난구일오전구시 인천신사에 참배하고 각관청을 순시한후 오후십이시에 부윤주최의다화회(茶話會)에참석하고 동오후두시경 귀저하엿다

—仁川神社—府廳—稅關—朝每—仁川郡廳—富川郡廳—法院支廳—會議所—警察署—海事出張所

轉輾流浪튼少女
潭陽에서黃海道까지 仁川署에歸鄕을哀願

【仁川】더위를참다못하야 산간에서놀고잇든 소녀를유괴하야전라남도 (全羅南道)에서 황해도(黃海道)까지유리표랑케한 유괴마가잇다 =지난십일오전구시경 전남담양군무창면서흥리(全南潭陽郡武昌面瑞興里)김정현(金正鉉)의매제보임(福任)(一五)이는 지난일일주간에 나려쪼이는 폭서에참다못함으로 산간에서 량풍을쏘이고잇는것을 엇더한자가 꾀이여 이리저리 표랑한끗헤 황해도 어근방에서 유리하야온남자는 어대로인지 종적을감초우고 말엇슴으로 그는할수업시 삼지사방으로표랑타가 인천에일으러 맛참내 경찰서에 애원하얏다는것이라한다

武運長久祈願祭
長湍官民이執行

【長湍】현하북지 정세의 중대성에감하야 장단군민은 총후의적성을 다하고저 지난팔일오후세시반경에 각관공서 재향군인분회 각학교장 각면장 각금조리사 기타관민오백여명이 장단신사에 참집하야 황군장병의무운장구 국위선양 군운흥창의 기원제(祈願祭)를 엄숙히집행하얏다

趙寡婦의寄附金으로 長興面所를新築
駐在所도寄附로改築

【楊州】양주군장흥면사무소(楊州郡長興面)동경찰관주재소 이전에대하야는 일부면민의 반대로 일시중지하기까지에 이르럿든바 장흥면장 최기준(崔基俊)씨의열성과 관계당국의 금후대세에빗처 도저히 구청사로는사무집행상 불편과협착을늣기여 신축함에는 면주양지대인 일영리(日迎里)가 적당함을 인정하야 일부면민의 반대를무릅쓰고 전기일영리에 신축하기로 결정되여금춘공사를 시작하야 겨우요사이 준공되여 이전올하는동시에 신축락성식을 지난칠일오전열한시부터 원산군수(遠山郡守) 정상서장(井上署長) 기타각관공서장신문기자 지방일반면민수백명의참합으로 성대히 거행하얏는데 동면사무소는 과부(寡婦)조세진여사(趙世鎭)의상천이백원의 희사를 토대삼아 일반면민의기부로총공비오천이백이십원에 근대식양옥으로 준공되여 한위관옵나타내고잇스며 또동경찰관주재소는 리석우(李錫宇)씨의 이천오백원의 기부를 토대삼아 부족액은 일반유지의 기부로 총공비삼천칠백사십칠원으로 청사와 숙사를 근대적 콩크리—트양옥으로 총공채과에 유의하야 노

觀測所移轉反對와 工業用水의問題
仁川府振興會에서蹶起

【仁川】이백오십만원경비로 김포연창리(金浦鷰倉里)에 대양수기(大揚水機)를 설치하야 부천군서곶면(富川郡西串面)에 저수지를 설치하고 대공장을 유치하랴는 십년대계의 인천부사업이 잇다함은 기보한바와 갓거니와 계속하야 관측소까지 이전하게되엿슴으로 인천부세진흥회에서는 지난구일오후이시부터 상공회의소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이상의 양문제를 토의한결과 공업용수문제에 대하야는 일일이라도속히실시하도록 총독부와 경기도에요망서를 제출키로 하엿다하며 관측소문제는 도에문의하야 이전방침이 확실하다하면 적극반대키로 결의하엿다한다

水鐘寺洪住持獻金

【楊州】양주군와부면수종사(楊州郡瓦阜面水鐘寺)주지 홍태욱(洪泰旭)씨는 국방헌금으로 사재이십원을 국방에써달라고 양주경찰서를 방문하야 두고간일이잇다 씨는 불교에뜻이기퍼쇠퇴하야가는 절을 부흥시키기에 노력하엿스며 심전개발(心田開發)에 전력을경주하야 내려오든중 지난팔월칠일에는 무운장구의기원을 하엿다하며 이번에는 총후의지성으로 변약한공양에서이와가튼 헌금이잇서 양주에서도감격하야 곳군부에 송달하기로하엿다

長篇小說 花冠【13】
李泰俊 作 金奎澤 畵

여름밤의꿈(十三)

『얘? 우리오빠라다 낼부터 우리 딴스 가리켜주실…황재하(黃在河)씨…』

정거장에서처럼 정히가 나서며 소개하엿다。

하고 재하는 연극을하듯 천연스럽게 허리를 구핀다。 동옥은 어쩔줄을 몰라 정히의 뒤로 숨어버렷다。

『대표는 누가 오빨 대표로 뽑앗서?』

『자천대표지 허허……』

『전 임동옥이얘요… 가방을드려다주서서 미안합니다』

『별말슴을…。 오시게 매우더우섯지오? 어 별장지대 거룩민을 대표해 동옥실 환영합니다』

하고 웃는것을 보니 어느틈에 안경은 벗어 들엇는데 눈어남자의것으로는 지나치게 상글거린다。

『어서 파라솔이나 피자녀요드거워 죽겟수』

『네—그리하오리다』

재하는 동옥의것보다도 더새째가 지른 손수건을 꺼내 이마를 닥고는 쉬잇을 펼치 모래에 세워주엇다。

『어서 인전 가 수영복 내다줘요 빨리』

『오빤 심브럼 잘해줘 조와내 년에도 또 와요 응?』

『흥! 해마다 네 심부룸이나 하구 늙으란말이냐?』

『그럼 하나 데리구 오구라누가 말렴。 오빠가 못나 혼자 댕기지뭘』

『혼자 댕기면 못나닌가?』

『그러치 안루』

『말씀 좀 삼가시지。 동옥씨도 아마혼자 오신것 가튼데』

『참、못나끼리로군그래 동옥이도 그점엔 못나니지 별수잇나』

해서 소리는 잇고、얼게나마 예이다 함게 웃엇다。

재하는 꼭 뛰여 드리가 수영뿐 아니라 사과、복숭아까지 안고 나와다。 그리고

『인전 물에 가랍니까?』

하엿다。 정히는

『언젠 누가 못참엇나?』

해서 또다시웃엇다。 재하는 무안도 타지 안코 성큼거리며 사과를하나 집어 껍질채 먹으면서 천막잇는 쪽으로 나려갓다。

『아이두 기껀 부려먹군 그러케 망신을 주니?』

『그리게 우린 여왕을 안야?』

이들도 실과를 하나씩 먹고서로 망을 보면서 쇠잇 속에서 수영복으로 갈아입엇다。 동옥은 수영복만은 옷이 아닌것가터서 다시금 좌우를 둘러보앗다。 더욱 재하가 간쪽에 마음이 씨엿다。

파도는 실줄엇다。 보기보다는 갑절식이나 올려솟는다。

정히는 익숙하게 몸을 솟구어 얼굴에는 물한방울맞지 안코나 동옥은 헉 헉 느끼도록코에 입에짠물을 뒤집어썻다。 허리께차는 데서는그만서고말엇다

정히는 두팔을 갈메기의 나래처럼 쪽—쪽 뻗으며 헤여나가기 시작한다。

동옥은 눈만 시원할뿐 가슴은 그만 꽉 막히는듯이 답답해지고말앗다。 세상에서 제일널본 운동장인것 가튼 바다。 뛰는 생선처럼 탄력잇는 물결。 한번 창파에 몸을던저 아릇히 떠잇는 구름의궁전을 향해 헤여나가보고십흔 정열은 목이막히리만치 끌어오르나 팔과다리는 갑작이 묶긴가 되는듯하다。 동옥은 또 한번 재하의쪽을내려다보앗다。 재하도 어느틈에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바다로 뛰여든다。 대뜸 무릅께 허리께、가슴께가 되더니 팔을 쭉 뻗으며 떠나가는것이다。

『나만 못 뜨네! 속상해…… 저이가 숭 숭안볼가? 참! 나봐 그까짓 모던뽀이에게 왜이다지 관심하는걸가?』

동옥은 회끈거리는 얼굴을 한참 짜물에 싯고 꽤멀리나간정히를 어서 드러오라고 불럿다。

『그만침 좀 서봐』

『여기가 멧……멧길인데?』

『무섭지 안니?』

『무섭긴 왜 여간……여간 조흔줄 아니?』

정히는 다 나와서 뒤를 한번 돌아보더니

『기피 드러갈수록 더 시원해 그리구 가만히 떠서 물미를 내려다보면 여간 신기한줄아니?』

하엿다。

『신기?』

『그럼、바위가 뵈구 해초가 나구한걸 보면 꼭 육지에서공중에 뜨거 갓다니 비행하는거 가터』

『비행!』

하고 동옥은 감탄하엿다。 그리고 아까 정거장에서 오면서 정히가『던 아직 몰라요 좀…라협이구 강정이구 다 애정문제에선 적당한 용어가 아닌것가터』하던 말이 생각낫다。 자기는『물의바다뿐 아니라 사랑의바다에서도 이럴것이 아닌가?』생각이 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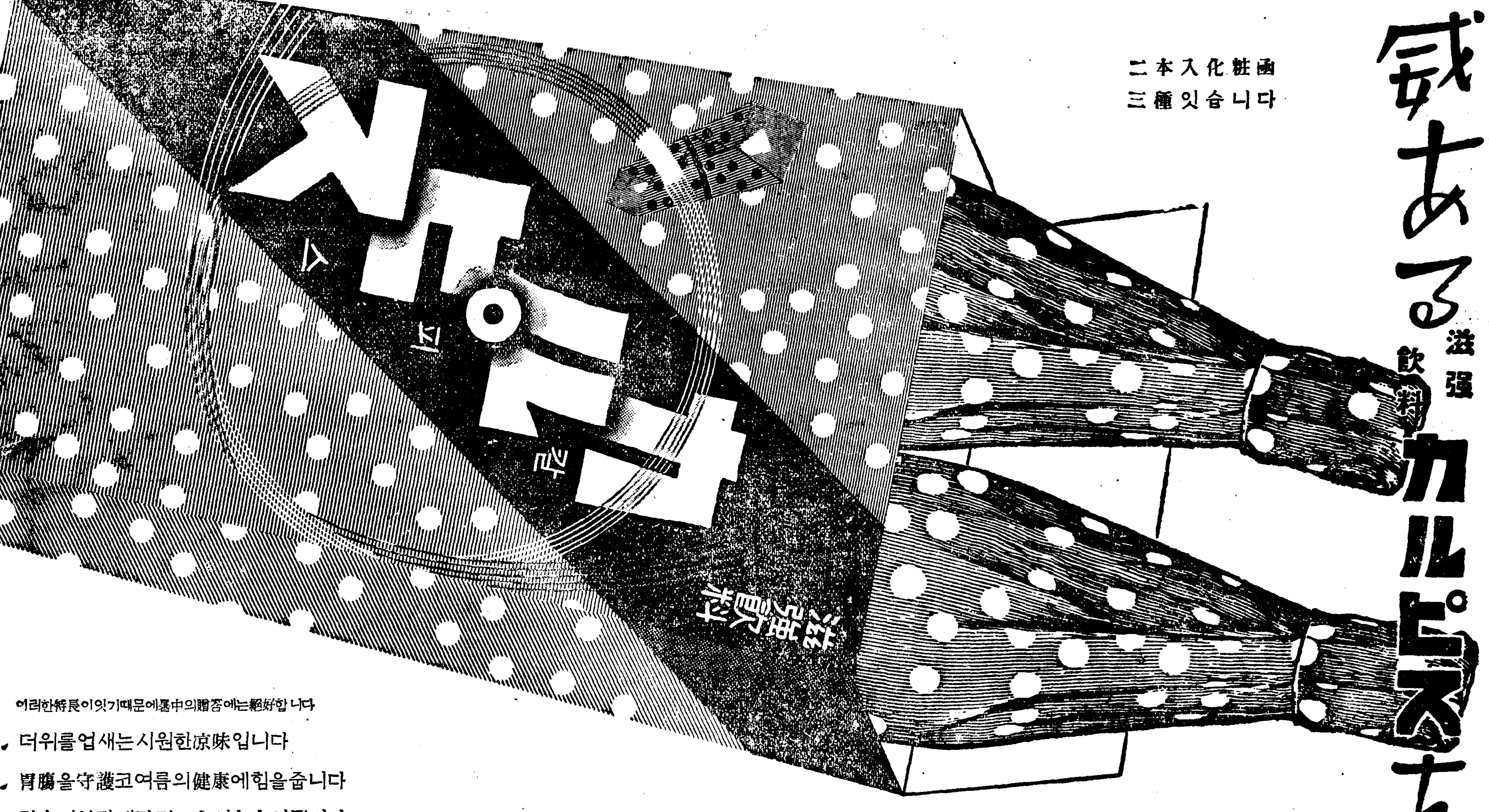
권위잇는 칼피스를

중원에는 가격이 적당하고

お中元には値頃で權威あるカルピスを

滋強飲料

二本入化粧函 三種잇습니다



여러한特長이잇기때문에暑中의贈答에는絶好합니다

1. 더위를업새는시원한凉味입니다
2. 胃腸을守護코여름의健康에힘을줍니다
3. 잡수기알맞게타면一本이七本이됩니다

001593

本社 京城販賣所 電本(2)一五九七番

ニスと染料
染藥 アスリ 卸 ルル 製 ニコ品料 造
京城鍾路六丁目 裕豐工業社 電光2二三四 振替京城一一七九六

創立 明治三十二年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株式會社 朝鮮商業銀行
頭取 朴榮喆
專務取締役 堀正一
支店 出張所 [illegible]

軍手의製造
◉年中無休……收入確實◉
○收入確實하고確實한需要層을가진軍手編物의製造를勸함니다。
○이일이야말로晝夜晴雨에不關코年中活動할수잇습니다。
○弊所의發明機는操作이單純하야素人에게도그날부터收入을볼수잇소
○弊所는軍手의製造普及와家庭의餘剩勞力을活用하는副業으로普及하고綿絲의普及、製品의引受等相互連絡을取하야共存共榮의實을擧키爲하야目下各地에製造家를求하는中이요。
○就業希望의분은左記弊所에照會次第說明書無料送呈합니다
京城府黃金町五丁目 軍手製造 朝日軍手京城支店 電話本局六〇七一·振替京城一四三六〇番

第一劇場 (電光一七五五番)
八月十二日낫부터四日間大公開 每日晝夜三回公開 一回十二時 二回二時二十分(續映) 三回七時三十分始映
大衆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
RKO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巨匠監督죠—지스띄반氏 作曲제로—칸氏 主演푸레드、아스테아氏 진저—로자스氏
舞踊映畵 有頂天時代
京城撮影所大作品朝鮮語全發聲 監督 李銘雨氏 錄音 李弼雨氏
史劇 洪吉童傳(後篇) 共演 李鍾喆氏 李東根氏 金貞圭氏
松竹大船社特作네오스—비—토—키 佐佐木康氏監督作品
現代名篇 青春突擊隊 共演 川崎弘子 久原良子 上山草人 日下部章 德大寺伸 佐野周二氏

若劇
十日ヨリ五日間 晝夜二回 大人五〇錢 學生小人三〇錢

1 生活と戀愛		1・40	6・15
2 大每・ニュース 南國太平記豫告篇		3・05	7・40
3 後篇エノケンのちやツきり金太	11・00	3・20	7・55
4 ワイキキの結婚	12・05	4・30	9・00

(一) ワーナー作品 フランチョツト・トーン主演 (三) P・C・L・作榎本健一主演 (四)パ社作ビング・クロスビイ シヤリイ・ロス主演

八月十一日낫부터 開演時間 午後一時半 七時半
劇團靑春座 全員總出演
▲上演劇本▼ 李雲芳作 『靑春日記』三幕六場
靑春은人生의꽃! 人生荒野에외로히핀靑春의꽃한떨기、모진비음산한바람에시들고마는떨기 [illegible]

東洋劇場
九月山人作 爆笑劇『장가보내주』一幕
觀覽料 階上大人六〇 小人五〇 階下大人四〇 小人三〇

新富座 京城新堂町 電(本)五六七七番
◇八月十一日부터三日間!! 土曜日曜祭祝日은晝夜二回 (낫十二時부터六時까지續映) (밤七時半부터始映)
大衆料金 階上卄錢 階下十錢 均一 (日活的三大名篇大公開)
◇유니버살超特作全發聲日本版!! 監督…월리암나이氏 大活劇 快逆突破隊 主演 (존·작트·홀트氏 에데이우드嬢)
◇파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探偵劇 아메리카의恐怖 監督…카—를·와퍼氏 主演 (존·베일스·케리크란트氏)
◇マキノ超特作全發聲版!! 時代劇 刀チ拔イテ 監督…松田定治氏 主演…澤村國太郎 田村邦男 大倉千代子

明治座
八月七日より上映 七日より時間表

朝日ニュース	11、30	3、00	7、00
泣くな女よ	11、45	3、15	7、15
京日ニュース	1、05	4、35	8、35
空驅ける戀	1、27	4、57	8、57

咸南의野口財閥事業②

長津江水電全貌 (上)

十數年以前까지는 一般에서 水力地點을 求키가 頗히 可望이 적다고 생각되엇스나 漸次그調査가 進行됨에 伴하야 總督府에서는 相當한 調査機關을 設하고 多額의 經費와 長年의日子를 費하야 調査한 結果를發表키에 至하야 大水量인 可能性을 具備한것이 判明되엇다。今日까지의 調査로도 優秀한地點만으로 大略二百萬키로와트를 넘고 總體로는 五百萬키로와트에 達하리라고한다 特히 日本內地에 比하야 大規模의 工事를施하면 非常히 低價의 電力을 得할地點이 만허서 先年完成한 赴戰江水電과 如함은이可能性을 如實히證左한것이다。必要는 發明의 母이다 最近까지 이豐富하고 有利한 水力電氣가 開發되지안는것은 結局 그만한 電力을 需要할事業이 업섯든때문으로 工業的으로 相當히큰電力을 消費치안는限 此等天然資源도 所用업는 보배이다 그러나 大正末期赴戰江水電의 大工事가 企圖되고 其出力二十八萬키로와트의 거의 全部를 需要하는 窒素肥料工場이 생김에 及하야 朝鮮의 工業은劃時代的飛躍을 試키에 至한것이다 由來朝鮮은 그脊椎가되는 山脈이東部에 偏한關係上西流하는 河川即黃海에 注하는 河川의 時定箇所에 堰堤를 設함에 依하야 東에 逆流케하고 日本海側에 떠러트리어 高落差를 得할地點이不少하다。赴戰江水電과 如한것이다 長津江水電과 如함도그 好適例로서 日本內地에 比하야 貯水池設備의 地點에 適當한것은多幸한일이다

一、計劃의大要

長津江은 赴戰江의 上流에잇는支流로 源을咸興의 西北大凡五十粁를 距하는 蓋馬高原에 發하는 支流이다 이川은 海拔三千五百尺의 高原地帶를 北으로 緩流하기大凡四十粁로峽谷을 이엇다 이 堰堤에 貯水量을 築하고 今後更 止하야이에 包含된 平坦한 高原地一帶를 貯水池로하고 豐期의大洪水를 貯水하야 數年乃至十數年間을 平均하야 均一流出量이되게하며 그水를 上記高原의 地下기피 即長津江의 川底를 穿하야 江本來의流水에逆行하야水源에向하야 東으로 導水하고 蓋馬高原의中腹을 貫通하야 東海岸 即日本海側의 黑林江에 流下하고 그高落差를 利用하야 三十數萬키로와트의 水力發電을하는것이 이事業의 根本計劃이다 그槪要는

發電所名	水路延長	有效落差	平均有效落差	使用水量	最大發電所出力
	粁	米	米	立方米秒	키로와트
第一發電所	二五、九	四六五	四〇七	四二	一四四、〇〇〇
第二發電所	五、六	三一三	三〇三	四二	一六〇、〇〇〇
第三發電所	四、五	一四二	一三一	四二	四七、〇〇〇
第四發電所	一、一	九二	七六	四二	二八、〇〇〇
計	四七、一	一、〇一二	九一七		三七九、〇〇〇

貯水池의 長津江流域은 第一堰堤에잇서서 約百方里 第二堰堤에잇서서 約二十方里 計百二十方里를 包含하는것으로서 過去十數年의 實測定에依하야 使用할수잇는 平均水量은 四二立方米每秒의 豫想이나 總工事에對하야서도미리 餘裕를取하야 五二立方米每秒를 取水할수잇는 設計를하고 即第三堰堤에依한 流域三十方里에도 이것을 備키로한것이다 從하야 第三堰堤를 만들고 取水하게되면 最大發電力은 實로 四十萬키로와트라는 놀라운 數字를 示할것이다。

二、電力의使途

發生電力中 其三分의一인 約十六萬키로와트는 當社와 朝鮮合同電氣會社及 東拓의 共同出資에 依한 朝鮮送電會社에 依하야 멀리 平壤 京城으로보내고 殘餘二十六萬키로와트는 主로 朝鮮窒素肥料 大日本化學 朝鮮窒素火藥 朝鮮石油株式會社 元山工場等의 諸工場과 咸北의 朝鮮石炭工業會社의 石炭液化工業等에 送電하야 化學工業用에 使用케할것으로서 此等의工場의 電力의 殘餘는 會社에서 施設한 北鮮送電網에依하야 咸南北一帶의 一般消費者에게도 供給케될것이다 이恩惠에 浴하는 咸興과 元山 淸津 雄基 羅津等北朝鮮一帶의 都市는不遠한 將來에 一大工業地帶로서 發展할것이오 長津江水電出現 이朝鮮의 工業革命의 黎明이 될것이다 (계속)

政府所有米는 朝鮮서保管必要

有事之時直時精白供給이可能 地理的으로도得策

政府米의保管은大體日本內地에서 買上한것은 日本內地에서朝鮮에서 買上한것은 朝鮮에서 保管하는터이나 朝鮮의地理的、氣候的條件으로보아 日本內地에서買上한것도 一部는이것을 朝鮮에서 保管할 必要가잇다는 論이 一部有力者間에 提唱되어 注目되다 即其理由는

一、日本內地에는 大精米業이업스나 朝鮮의 精米工業은 獨自의 發達을하야 一朝有事之時 直時 政府米를 精白하야 供給할수잇다

一、地理的으로 보드래도 朝鮮을 供給의 原地로함이 得策이다

一、朝鮮은 空氣가 乾燥되어 米의 保存上變質이적어得策이라는것等이다

鐵道局收入激增

一七月約四百萬圓增收

鐵道局의 七月分의運輸收入은 五百二十六萬五千四百九十七圓인데 前年七月에比하야 百十八萬五千三百六十一圓의增加이다 一日一키로當收入은 四十八圓四十錢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八圓六十二錢의增收이다그實績을보면 ▲旅客乘車人員은 二百三十七萬二千四百二十六人으로 그收入은 二百五十五萬八千六百四十三圓인데 前年同期에比하야 人員으로는 三十四萬九千四百八十九人 收入으로는 四十八萬五千百六圓이增加이다 ▲貨物發送噸數는 六十五萬七十六噸으로 그收入은二百八十萬六千八百五十四圓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噸數로는 三萬九千五百七十六噸收入으로는 七十萬二百五十五圓의 增加이다 그리고 本年度의累計를 보면 乘車人員은 一千一百五十九萬七千二百九十七人 收入은一千百九十六萬五千三百六十六圓이며 貨物發送噸數는 二百九十六萬四千七百二十七噸 收入은一千一百四十二萬一千五百五十七圓으로 收入合計는 二千三百三十八萬七千九百二十三圓으로되여 前年同期에比하야 三百九十萬一千四十八圓의增收인데 平均한키로에 五十二圓五十二錢으로되여 前年同期에比하야 七圓八十一錢의增收이라한다

移出小包郵便審査

全朝鮮郵便局所에서 取扱한最近一個月間의 小包郵便物移出申告數는 七千七百三十一個로 審査結果 無稅品이 四千百四十九個 免稅品이 二千四百五十一個이며 有稅品은 一千百二十四個인데 其稅額은 一千百十四圓五十二錢이다

伊藤重次郞氏는 總督府林業課長足立氏는 東拓副林業課長 小林氏는 王子製紙第二山林課長으로樺太木材常務、山陽펄푸 十別軌道取締役等을 兼任한 人物이오現職대로 入社케되리라한다

朝鮮產金界로 大資本進出

擴充外에新規投資

新產金計畫으로서 增產의七割을朝鮮에求코잇는情勢에 應하야方今日本內地資本의 第二次的進出이行하라는모양이다 即三井、三菱、住友等의第二次擴充外에新投資로서神戶旭실크의 小田萬藏、西濱外男氏等을 背景으로한 東邦鑛業(資本金百五十萬圓全額拂込濟)은 今回一擧新資金二百萬圓을投하야 有力金山의買收 鑛狀黑鉛의增產計畫을하고잇다 또中外鑛業、松方系 關西財閥等의進出計畫等十指를 算하는모양이다

林業開發重役陣

朝鮮林業開發會社는 八月三十一日創立總會를 開할터인데 內定된同社陣容은 如左하다 ▲社長 矢島杉造 ▲理事 伊藤重次郞 足立利夫小林準一郞

係로資材가遲延된 關係上十一月完成은 到底히 可望이업고 一個月乃至二個月遲延되리라한다

貿易入超累計

七億四千四百萬圓

八月上旬도依然入超繼續

【東京電話同盟】大藏省發表=八月上旬의 日本內地對外國貿易槪算은 如左하다

輸出	七一、六二五千圓
輸入	九五、四七二
合計	一六七、〇九七
入超	二三、八四七
累計入超(一月以降)	七四四、一三四

即 一月以降入超累計는 七億四千四百十三萬五千圓의 巨額으로서 入超繼續이 注目되엇다

米棉收穫豫想

三百萬俵增收

【華盛頓九日發商通】米國農務省發表=八月一日現在의 新棉作況은 八割一分三厘로서 一에一카ㅣ當二、二三三封度、收穫豫想은一千五百五十九萬三千俵로서 前年實收에比하야 三百十九萬四千俵의增加이다

熟練工養成

工業協會에서

朝鮮工業協會에서는 熟練工을養成키爲하야 今回機械科、電氣科의修業生 各百名을 募集키로되엿는데 資格은

一、滿十五歲以上男子

二、小學校或은普通學校卒業者八月二十五日까지에 申請하여야하고修業中은 若干의 手當을支給키로되엿다

京電受電設備

多少遲延될모양

朝鮮送電이 京城電氣에 送電키로된 平壤、京城間의 送電設備及 水色의 京城電氣受電設備는 十一月完成送電의 豫定이든바 諸機械工事材料等이 輸送關係

外國置籍船輸入

近海航路無響

政府는 北支事變에依한 船腹의 特殊需要에 應하야 船腹不足을 緩和할 目的으로 關東州外國의 置籍船의 日本內地近海航路의 …

產金獎勵

各國施設

一、北米合衆國=北米合衆國은 一九二七年以來數年間 產金額의 增加를 圖키 爲하야 (一)政府가 地質調査를 行하고 (二)探鑛獎勵金을 交付하얏섯다 그러나 最近은 格別히 產金獎勵策은 쓰지안코잇다。

二、南阿聯邦=南阿聯邦에서는 特히 產金獎勵施設을 講究치안코 一九三三年 超過利得稅를 賦課하에 際하야 貧鑛에 對하야서는 이것을 輕減하는 方途를 講究하얏스나 右는 現在의 產金額의 增加를 圖함을 目的으로하이 아니오 貧鑛을 開發하야 富鑛을 留保코저하는 目的으로 보이는데 그結果產金額은 減少되엇다

三、加奈陀=加奈陀는 (一)一九三五年政府는 總額百萬弗의 經費로서 組織的으로 探鑛하기로 되고 (二)一九三六年十月以降 產金會社에對하야 輸出을爲한 金의 生產에使用되는 諸原料에關하야서는 納付한諸稅의 九十九%를 拂戾하얏다。

四、濠洲=一九三〇年十二月以降產金獎勵法에 依하야 產金業者에對하야 一定한 產金獎勵金을 交付하얏스나 一九三三年九月十三日이것을 修正하고 金價格이 一온스에 英貨五磅(但濠洲磅으로서는五磅十志)以下로低下할時는 過去三個年의 平均實績에對한 超過產出金一온스에十六志의獎勵金을 交付하고 濠洲磅이平價로 回復되면 一磅을支給키로한結果 獎勵金은 當分間 事實上停止되엇다。

五、蘇聯邦=一般으로 私有財產制度를 否定함에不拘코 金鑛에關해서는 私的經營을 許하고 坑夫機械等에 對하야 援助를與하며 產金을獎勵하는中이다。

六、其他諸國=英國、獨逸、佛蘭西及 伊太利諸國은從來의金鑛山이 만흐나 產出치안코 또將來 增加할 可望이 업슴으로 產金獎勵策을 講究치안는다。其他小產金國으로서 產金獎勵를 爲하야 產金國에對하야 免稅를 하는곳도 잇스나 一切의 產金을政府에提供할 義務를負擔하는것을그條件으로한다。

製系原料難解消

產繭增加、共販出廻增

朝鮮內의 製絲界는 一兩年來 工場設備合理化의 結果 深刻한 原料繭不足에 苦悶中이든바 今年에 入하야 蠶價의 好調에依한 產繭增加와 共販出廻增大에 依하야 原料가 順調로 入手되고 今年夏秋繭도 五分七厘의 擴立增加가 豫想됨으로 製絲原料不安은 解消되리라한다

經濟界消息

○公森鮮銀副總裁=安奉線不通으로天津에서歸途中奉天에잇든바 豫定을變更하야 大連에가서十日朝出帆하는 日滿連絡船으로 渡東

○龍山工作增資=計畫中이던 龍山工作의 一千萬圓增資件은中旬重役會에 附議決定하리라고

○南鮮合同電氣殖銀으로부터 借入=南鮮合同電氣에서는 變電所其他 事業擴充資金을 調達키爲하야 社債發行을 計畫하고 關係金融業者와 折衝하얏는바 모다 不調達에 終하얏는데 今回折衝한 結果 殖銀으로부터 年四分三厘의 利率로서 五百萬圓을 借入함에 成功하얏다한다

○弘中商工五倍增資=各種鑛山土木機械中心으로 一般機械工作製造販賣의 弘中商會(資本金三十萬圓)는 今回 一躍五倍의大增資를하고 資本金을百五十萬圓으로하야 弘中商工株式會社라고 改稱키로 決定하야 同社는機械 鑛物 水栓 製鐵 組立의各工場을 完備하고鑿岩機等 各種鑛山用機械를비롯하야 土木水利機械에至하기까지 製造販賣의擴張을 하기로 되엇는바今回의 增資에 際하야서는日本內地의 池貝鐵工所及 日立製作所가 持株케되리라고

寸鐵

○入超累計는 勿驚七億四千萬圓 언제나 出超로 轉換될는고? 今年의入超는 結局얼마?

○朝鮮產金界로 大資本第二段移入旺盛 파내라 無盡藏인朝鮮의金을……

○政府米 朝鮮保管說 擡頭 時局으로보아 一理잇는말

○鐵道收入은 七月까지는 늘엇다만은 八月은減少難免이겟지 貨物受託制限 客車量을줄엿스니……

取引停止

(八月六日) ▲出版果 京城府鍾路一丁目五六 李春 ▲京城府都染町一七 金鳳圭

今日의市勢【十日】

株式 突込後에 急返

前場續落

支那事態는 上海의突發事件을 傳하는等 去益惡化의一途를 밟게되는바이나 今朝寄付는 新東一圓七十錢 高新八十錢高로 寄付하야 前後場의 受渡는 多少混亂에 寄付하엿는데 그後高買不斷과 低迷狀態를 보이다시 低落되어 新東百三十二圓九、大新七十三圓丁으로 前場을마치엇스나 引後의東京氣配는 再次頑强하엿다

後場强調

後場은 東新二圓六高、鐘新五圓九高、大新二圓高等으로 急反騰에 活躍한後採合을 거듭하다가 頑强히 引을止하엿다

下支底入模樣

今朝突込이最後?

南支事態의 惡化로 日支間의 關係는 再次惡化할 形勢가 濃厚하야 實價된 人氣와함께 今朝寄付高後再次實叩되어 東京鐘新은二百三十四圓五의 低價를보고 東新은 百三十二圓二를 示現하엿는데 前場引際에 至하야 東京市場은 俄然反騰을 보이고後場도이어 頑强한 步調를보이게되엇다。이反騰材料로는 政府가 公債政策을 爲하야 數日前부터 考慮中이든 預金部 資金運用決定案中 爲先五千萬圓을 金融市場에 撒布키로 되엇다는 情報가잇서 이政府의 金融政策을好感한것 이라고하나 市勢自體로보아서도 買方의 行動에 따라 反落할데로 反落은되엇스나 低落도이만하면 悲觀이 度를지나친感이 不無하므로 비록時局은 透視가 困難하나 여기서 有力側들은 大衆買에 對抗하야 低落을 停止시킨後 다시形勢를觀望하려는 態度인듯하니 爲先은 一段此邊에서 底入을 보일것이 아닌가 觀測된다。勿論事變의完全한 解決까지는 幾多의 波瀾이 잇슬것은想像할수잇스나 情勢의 大不利라도업다면 이以上의 瓦落은 大體업슬것이란 說이濃厚하다。

雜株依然脆弱

日本新의 一圓低、東邦人造絹絲의 二六、五인 一圓五低等으로 纖維株는 依然弱含인듯할수 잇고 九州曹達一圓五低 電工新三一、八인 一圓二低、神戶製鋼新一圓五低인三一、五等으로보아 工業株도 軟弱하며 日產新一圓低인 五三、○ 東滿洲二十圓丁인二圓低、拓新一圓低인二五、○ 日曹新二十圓丁인 一六、○等으로보아 雜株는 依然落潮를보엿다

國債 戾賣物로頭重

【東京電】金融情勢가緩慢하이러하야할買物이업서 市勢는不勢로서 倂擔商狀이되어 戾賣도로 買物은招來하는 場面으로 一、二回四分은 五錢下押하고佛貨는 五錢低가되고 米貨는 六分半三百七十圓 五分半三百二十四圓이엇다 ▲甲五分利 一〇一、一〇 ▲二回四分利 一〇一、三〇 ▲佛貨 一九四七〇

長期取引

은 鐘新當限二四、一五 大新當限七三、八 東新當限一三三、五를 보엿다

期米 低寄後高

前場波瀾

今朝는雨天으로 阪地三十一圓八十六錢인 七丁反落을 算하고 當은三圓六十錢인 六丁低 中은一、九十五錢인 亦十丁低로 先限은二十九圓五十三錢인七丁反落으로 場을結한後 地三節二圓○一錢으로 四節九十六錢까지의反落을伴하야 六十七錢으로 六十錢까지 下押하더니 阪地八節○六錢으로 續高함을맏아 六十九錢으로 結局阪止○五錢을보고 六十七錢에止場하다

後場堅强

後場은 二十九圓七十錢인 三丁高로 結場한後二節七十一錢 三節七十四錢으로

市場六感

(株)……大低落後 上寄後엔低落하고 또 上寄後엔 低落하는 市勢변롯이 오래繼續되면는 ▲春이 亂紛紛하니 틀릉리 말릉의格으로▲時局이 오락가락하니 市場人의 精神도 어지러워 싹이울트다가도 挫折▲그러나 天地는循環의法則이 支配하는법이니 겨울이가면春光이올것만은 確實▲來日의買特代를 苦待할順序?(金剛城)

(米)……先限은 好轉氣의 繼續을맏아 動亂反撥의 形勢를 보이고잇다▲先限이 反落하는 바람에 當先兩限도 自然追從的行動을 加하나 그러나 當中은 實米의 事情을 度外視할수 업는만큼 依然反撥으로 原狀依復▲今朝正米는 丸仁三等米 三十二圓六十錢으로十丁反落正米의 實勢가 얼마나 頑强할을 可知▲何如間 期間만은現實의 正米事情으로 瓦落될餘地가업고 先限만은 買作氣分으로 軟化勢를 뭇하고잇다中限의幅은 去益擴大?(東山)

新古의分水嶺

二百四五十丁

四節八十錢에올라 堅强하엿다 增場期에 商圍된 當中兩限은 在來의 枯渴로 因하야 當限은三十二圓七十錢中心 中限은 三十二圓○錢의中心으로 伸縮의 狀態를 呈하면서도 容易히 低落을 行하지안코 先限은 總買氣가 하는關係上 二十九圓六十錢을 中心으로 殆히 軟價의 光景을 보이는 中 增期의 살인 中限과의 開緖即 新古米의 分水嶺의 距離가 二百四、五十丁이나 벌어젓는 後의天候가 마치 何如한 經過를 하는때는 稀有의 大凶作을 豫期할수잇슬것이며 따라서 新古米의 分水嶺의 距離는 一層低落을 可期할수잇슴으로 期의又一層低落을 나타내는 中限의 下游과 相俟하야 漸次遠隔하여질것을 豫期할수도잇다 그러므로 機會를利用하야 中限買를 그대로 두고 先限을 賣하는것이 아닐가하는 商談도잇다

正米實勢注目

元來正米와 清算이란 兩者의關係를가지고잇는만큼 原則的으로 正米市勢가 變動되엇을때는 淸算市勢가 追從하게되나 境遇에 依하야는 淸算이 먼저 行動한後 正米가此에追隨하는 例가 非一非再인데 現下當地의 期正兩界事情으로보아서는 當中兩限의

正米 消極賣買 不動

京城同調

今朝定期는 强保合인데 正米는 市中現米薄으로 少强狀態이나 市價는不變 依然小口商談뿐이다 ㊀三等三一、六〇 四等三一、三〇 一等白米三二、四、五〇

仁川不變

一般이 新材待로 傍觀하고잇스나 精米側이原料買로 多少나마 濁品賣를하고잇섯다 ㊀穀良三等三二、六〇 四等三二、三〇 ㊀四等三二、一〇 四等三一、八〇 多摩錦三等三一、八〇 ㊀三一、九〇 一等白米四二、一〇

釜山保合

奧地出廻薄으로 市中持米側은 堅調를 維持하고잇스나 精米側도 買氣一息으로 小口의消極的賣買로 市況은不變이다 ㊀穀良三等 三二、九五 四等三二、八五 一等白米一三、八七

大邱强調

一般으로買氣의 市場이나 品薄인데다 今朝定期의 堅調로 氣配가强調를보엿다 ㊀穀良三等三二、六〇 四等三二、四〇 一等白米一三、六五

群山軟化

出廻는無로繼續하야 實物薄을 報하고잇스나日本內地側의 高値警戒로 一般買氣不添하야 市勢도亦是十錢低를 告하엿다 ㊀銀坊主三等三二、八〇 四等三二、六〇 一等白米一四、二〇

木浦軟調

市中在米激減으로 賣買皆無의 狀態이나 無材料인때라 買堅도업서依然閑散한推移이다 ㊀銀坊主三等 三二、二〇 四等 三二、〇〇 一等白米一四、〇〇

今日財界十日

仁川期米先限	[illegible]
大阪期米先限	[illegible]
仁川三等米一石	[illegible]
京城一等白米百키로	[illegible]
正租(仁川)一等一斤價	[illegible]
고무神戶現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 買方 —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海外經濟 九日

[illegible]

銀行券 九日

◆朝鮮銀行券◆ / ◆日本銀行券◆ [illegible]

手形交換·金利

◆京城手形交換高◆ / ◆東京金利◆ [illegible]

鰯油粕·麥粉

◆阪神鰯粕◆ / ◆阪神鰯油◆ /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金銀價

◆大阪金利◆ / ◆京城市中金銀價◆ / ◆東京金銀價◆ [illegible]

對外爲替

◆金買入價◆ [illegible]

正租 / 正米

◆京城正米◆ / ◆仁川正米◆ /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紡績製品◆ /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 ◆短期主要取組高◆ / ◆實定代引日步◆ / ◆朝取短期賣買高◆ / ◆東京短期◆ / ◆東京短期取組◆ / ◆大阪短期◆ / ◆大阪短期取組◆ / ◆大阪長期◆ / ◆東京現株◆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 / ◆朝取期米賣買高◆ / ◆釜山期米◆ / ◆群山期米◆ / ◆大邱期米◆ / ◆大阪期米◆ / ◆木浦期米◆ / ◆東京期米◆ / ◆大阪期米取組◆ /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京城物價(十日)

▲白米(石、單位圓) 多摩錦 特二石 一○、○○ 一等 ... [illegible]

砂糖 / 生糸 / 人絹 / 棉花 / 綿糸

◆大阪砂糖◆ / ◆東京砂糖◆ / ◆橫濱生糸◆ / ◆各地人絹◆ / ◆大阪棉花◆ / ◆大阪綿糸◆ [illegible]

趙俊鎬取引店 仁川府海岸町三丁目 東 期米

金·銀·白金 杉山商會 京城明治町

柳來恒取引店 京城黃金町 仁川本町 株式 期米 玉

紺谷取引店 案內進呈 仁川 期米 仁

益康 京城 金益證券 仁川